월간 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Contents

11 November 2015

❶ 주차_11.01-11.08

1. 대남 ····· 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1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5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9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2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❷ 주차_11.09-11.15

1. 대남 ····· 3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3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42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46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5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❸ 주차_11.16-11.22

1. 대남 ····· 5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5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63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66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7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❹ 주차_11.23-11.30

1. 대남 ····· 7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80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84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88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96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Contents

12 December 2015

❶ 주차_12.01-12.06

1. 대남 ····· 10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07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1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15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18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❷ 주차_12.07-12.13

1. 대남 ····· 123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2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32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36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4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❸ 주차_12.14-12.20

1. 대남 ····· 14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4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인쇄: 2016년 1월 **발행**: 2016년 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노현우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2023-8001 / (직통) 2023-8028 / (팩시밀리) 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비매품〉

3. **대내 정치** ····· *152*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56*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6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❹ 주차_12.21-12.27

1. **대남** ····· *16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69*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73*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78*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183*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❺ 주차_12.28-12.31

1. **대남** ····· *19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192*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195*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199*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202*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11월 일지** / *208*
■ **12월 일지** / *21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11.01-11.08

11월

1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北, “적대행위 중지하라” 한미연합훈련 비난(11/3)
- 北,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2명 개성공단 출입 불허(11/3)
- 北,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과세(11/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 만월대 발굴현장 방문(11/2)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연일 ‘일본군위안부’ 비판…“침략역사 미화는 범죄목적”(11/2)
- UN총회,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 강력 촉구(11/2)
- 北, “북미 평화협정은 美정부 의지에 달려”(11/4)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군사일꾼대회에서 정치사상교육 강화 주문(11/3~4)
- 김 黨 제1비서,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현대화 강조(11/3)
- 김 黨 제1비서,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7)
- 北, 당 창건 70주년 성과 자축논설…“혁명신념 버리지 말라”(11/2)
- 北 매체, 제7차 당대회 기념 ‘띄우기’ 주력(11/2)
- 빨치산 출신 북한 리을설 원수, 폐암으로 사망(11/8)

4. 경제

- 北,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진행(11/3)
- 北, 청천강 주변에 수력발전소 10개 건설
- 北, 중국인 관광객 겨냥한 접경지역 관광개발 가속화
- 北, 자체 개발 데스크톱 운영체제에 평양시 표기
- 北, 보수중인 북-중 교량에 中 관광객 도보 허용…외화벌이 주력
- 2015년 1~9월 미-북 교역 450만 달러…85%가 지원품
- WFP, “5세 미만 북한 아동 3분의 1 영양실조”…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

5. 사회

- 北 당국, 주민등록 미등록자 강력 단속 시행
- 北 보위부, 독일산 첨단장비로 휴대전화 전파 감지 및 적발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적대행위 중지하라" 한미연합훈련 비난(11/3,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3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한 호전세력은 남북 화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상대로 한 핵전쟁연습소동들을 벌이면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적대행위의 사례로 지난달 19~30일 열린 호국훈련과 최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전투기 등이 동원된 가운데 동해상에서 개최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남북 사이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무엇보다도 남한 당국이 동족을 반대해 외세와 함께 감행하는 온갖 군사적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남한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의 '북지역 진입' 문제를 놓고 쑥덕공론을 벌려놓고 미국의 각본에 따라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3각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한 당국은 대결전쟁소동으로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민족의 버림을 받고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머저리짓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北,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2명 개성공단 출입 불허(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전함.
- 이에 뉴스는 남측이 즉각 항의하고 출입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서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함.

개성공단 입주기업 올해부터 북한에 ‘세금’ 낸다(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을 보도함.

北,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 출입제한 철회(1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일 최상철 부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던 것을 철회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뉴스는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5일) 오후 관리위 부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대변인은 “이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며 “(북측은) ‘관리위 부위원장의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출입 신청 시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외통위, 2년여 만에 방북…개성 만월대 시찰(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여야 외통위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58명이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지난 2013년 10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이후 2년여 만에 성사된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현장 방문 및 발굴 작업의 진척도 점검,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으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함.

-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과 '북 인권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북남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며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저해를 주는 적대행위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1.2, 중앙방송)
- "조선민족끼리 이념은 자주통일을 위한 절대불변의 원칙"이라며 '우리민족 끼리 이념을 외면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 남북관계는 우여곡절과 파국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민족끼리 이념 구현' 강조(11.3, 중앙통신· 노동신문)
- 美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 부산 입항 관련 '군사적으로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벌리기 위해서'라며 '南 군부호전광들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는 길로 계속 줄달음친다면 저들의 자멸만을 앞당길 뿐'이라고 위협(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現 남북관계는 '한걸음씩 개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우리민족끼리 자세 견지 및 대결적 행동 중단' 강조(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붕괴될 것, 통일이 얼마 안남았다' 등 발언(11.2, '통일대비 북한지역 SOC사업과 실향민의 역할' 세미나)에 대해 "우리를 헐뜯는 망발을 늘어놓아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고 조소(11.6, 중앙통신· 민주조선)
- '韓美연합군사령부는 동북아시아지역을 타고 앉으려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매국노들의 공모결탁의 산물'이었다며 '미국과의 굴종적인 동맹을 끝장내는 정책적 결단' 촉구(11.7,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 연일 '일본군위안부' 비판…"침략역사 미화엔 범죄목적"(1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일 '과거 죄악을 왜 부인하는가'란 사설에서 "일본은 지난날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것을 비롯해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에 대해 오늘날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그것을 덮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고 비난함.

- 사설은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주변 나라들이 외교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면서 "일본의 철면피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파렴치한 망언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라며 분노를 표시하였고, "일본 반동들이 일제의 침략 역사를 미화 분식하는 밑바탕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자는 범죄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함.
- 조선중앙통신도 2일 "최근 일본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위안부' 문제해결모임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빨리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비판과 미국 뉴저지주의 위안부 추모비 건립 5주년 기념식 소식을 전하며 이는 "과거 일제의 침략 역사와 반인륜 범죄를 한사코 미화 분식하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美·日에 '눈에는 눈' 전략(11/5, 민주조선; 11/6,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5일 '미국은 인권에 대해 떠들 자격이 없다'란 글에서 미국의 실업과 노숙, 범죄 실태를 거론하며 "인권을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미국이 제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목청을 돋우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6일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미국에는 미래가 없다'란 글에서 "1%의 특권 계층이 99%의 근로 인민 대중을 착취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라며 "미국이야말로 인민 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해줄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함.
- 이어 "유색 인종과 소수 민족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인종 주의국가"라며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썩어빠진 사회제도 그 자체를 들어내지 않는 이상 극심한 인권 위기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밝힘.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외무성 공보국장 "북미 평화협정은 美정부 의지에 달려"(11/4, 연합뉴스, APTN)

- 연합뉴스는 4일 정동학 북한 외무성 공보국장이 AP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수십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평화협정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정동학 공보국장은 "한반도 핵 문제는 수십년에 걸친 미 정부의 대북 적대적 정책과 끝없는 핵 위협과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미 정부는 끊임없이 남한에 전략적 핵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핵 항공모함이 항상 북한을 향하고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들이 항상 남한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미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음을 강조했다고 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 "위안부 피해자 북에도 있다…전체적 해결해야"(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고 강조 하면서,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만여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 했다면서 "일본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여성의 존엄과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한 일본이 이 외에도 조선인 840만 여 명 강제 연행, 100여 만 명 학살, 창씨개명, 생체 실험과 같은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70년이 지나 도록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핏대를 세웠고, "전체 조선 민족이 당한 피해를 전조 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일본 고래잡이'에 "범죄행위" 성토(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고래사냥군의 감출 수 없는 흑심'이라는 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외면하고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의 무지막지한 고래사냥 행위는 지구상의 귀중한 고래자원을 고갈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일본의 처사는 국제사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면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가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

의 고래잡이를 금지했지만 일본은 1987년부터 '과학연구용'이란 간판을 내걸고 수많은 고래를 계속 잡아들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본의 '연구용' 고래잡이란 상업용 고래잡이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총회,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 강력 촉구(11/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가 2일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핵무기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조치를 촉구한 이 결의안에 대해 156개국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개국과 17개국에 그쳤다고 설명함.
- 방송은 이 결의안이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및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핵 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임.
-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추가 핵실험 자제 및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정영원 「청맹」 부위원장), 11월 2일 '세계민주청년연맹 제19차 대회'(쿠바) 참가와 베네수엘라 방문차 평양 출발(11.2, 중앙통신)
- 프랑스 실업계 대표단(단장 : 알방 융 프랑스 '빅토르 섹갈랜기금' 중국대표), 11월 2일 평양 도착(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란 노동자의 집 대표단(단장: 알리레자 마흐줍 총서기), 11월 2일 귀국(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새 세대일꾼 대표단(단장: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委 부위원장), 11월 3일 평양도착(11.3, 중앙통신)
- 싱가포르 여성조직이사회 대표단·「총련」 조선신보사 대표단, 11월 3일 각각 평양 출발(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더 인터셉터(美 폭로전문 웹사이트)가 폭로한 '인도주의 국제봉사그룹을 이용한 정탐계획' 관련 '미국의 극악한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주의적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도주의협조단체를 통한 간첩활동 중단' 촉구(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등 관련 미국의 '北 도발·위협' 발언들에 대해 '조선의 군사적 위력, 조선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전쟁을 강요한다면 공화국은 기꺼이 응해줄 것'이라고 위협(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1월 5일 신임 주북 인도 대사(자스민다르 카스투리아)와 담화(11.5, 중앙통신)
- 日 극우익 정객들의 '가을철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아시아 나라 인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난 및 '군국주의 부활·재침책동 중단 및 과거청산' 촉구(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미 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항구적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선결조건'이라며 '평화협정체결을 뒷전에 밀어놓을수록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 및 '평화협정체결 제안의 긍정적 호응' 촉구(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과 조선특산물판매(주) 사장에 대한 '외환법위반'혐의 재판 관련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총련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전면 탄압의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라며 '日 당국이 조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부당한 형벌 취소와 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11월 7일 앙골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독립 40주년 경축행사를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11.7,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정치사상 교육 앞세워야"…'군사일꾼대회'서 주문(11/3-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지난 3~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학생들을 군사가로 키우기 전에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정치사상 교육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며 “군사학교에서 군사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 올리고 부대지휘관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강의실과 훈련장, 과목연구실,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정보화·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면서 “교육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학교관리 운영사업을 정규화·규범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교원의 헌신적 노력은 용사의 붉은 피처럼 고결하고 천길 바닷속 진주보석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군사학교 교원들을 금방석에 앉혀 누구나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각급 군사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에 김 제1위원장과 함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이 주석단에 앉았으며, 보고를 맡은 황 총정치국장은 “주체적 군사교육사상과 교육 전통은 사상도 풍모도 대원수님 그대로인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함.

북 김정은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현대화 다그쳐야”(1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서부전선 반(反)항공 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 부문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 고사로켓 개발 사업을 적극화해나감으로써 적들의 어떤 공중 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통같이 보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고사로켓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의 현대화·정밀화를 계속 다그쳐야한다”고 주문했음을 밝힘.
- 또한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사격장 감시소에서 부대의 실태와 사격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격 훈련을 직접 참관했으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덧붙임.

북한 김정은,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이번 대회가 군사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념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참가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빨치산 출신 북한 리을설 원수, 폐암으로 사망(11/8, 조선중앙통신)

- 빨치산 출신인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가 7일 폐암 투병 중 94세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북한은 리을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리을설 동지는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영도 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해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강조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노동신문 “언론인, 김정은 시대 사상적 전위 돼야”(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에서 “우리 출판 보도물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라며 “모든 언론인은 새로운 신문, 보도, 방송, 출판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 출판보도물은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제국주의자의 추악한 정체를 발가놓는 대적언론전을 벌여왔다”며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독소로부터 정치사상적 풍모와 생활양식을 지키는 전초병이 된 것이 언론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다른 글에서는 “당 역사와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불멸의 이정표가 될 노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붓대포의 위력으로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불러일으켜야할 언론인의 심장이 세차게 높뛴다”고 지적함.
- 노동신문 3면 논설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창건 기념일 연설에서 강조한 ‘인민’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혁명의 전도와 사회주의 흥망성쇠는 새 세대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고 힘주어 말함.

북한 "콜라맛보다 들쭉맛…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당 창건 70주년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2면 전체를 할애한 논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에서 "혁명신념이야말로 주체 혁명의 고귀한 재보"라며 "우리 인민이 간직한 혁명신념의 근본핵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 논설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당 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경축한 승리의 영마루(꼭대기)에 있다"며 "혁명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절감하고 있다"고 자찬하였고, "코카콜라맛이 아니라 백두산 들쭉맛을 좋아하며 범속한 유행가가 아니라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새 세대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찬사를 보냄.
- 그러면서 신문은 "비록 아직은 (인민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서도 "제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인민의 생활은 더없이 당당하고 활기에 넘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엎어놓고 뒤집어 놓아도 당과 수령만을 따르고,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마음을 더욱 순결하게 가다듬고 혁명가의 본태를 지키는 것이 조선의 참된 혁명가"라며 거듭 충성을 강조함.

북한, 7차 당대회 '띄우기'…"당에 황금산 선물하자"(11/2,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조선중앙방송은 2일 평안남도 남포시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일꾼들은 당대회를 당 역사에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빛내어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꾼들이 "대회를 위해 당사업 화력을 총집중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원산군민발전소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정한 기일까지 완성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2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0여개 공정의 현대화·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완성하여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일념으로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항일혁명투사,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각종 발언도 소개함.
- '조선의오늘'도 2일 내각사무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대회는 당건설과 혁명 발전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사"라고 규정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2일 95회 생일을 맞은 김철만(항일혁명투사)에게 '생일상' 전달(11.2, 중앙통신)
- 노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일 김기남(당 비서)·리영식(노동신문사

책임주필/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2,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 주체의 영도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라며 '혁명사상과 영도방식의 위대성' 강조(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문화성,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 활발히 전개(11.7,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올해 10만 정보에 나무 수억그루 심었다"(11/2, 내나라)

- '내나라'는 북한 산림총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올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1정보 = 9천917㎡)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힘.
- 백원철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은 '내나라'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수십 종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10여만 정보의 산과 들에 심는 성과가 이룩됐다"고 하며 "중앙양묘장만 놓고 보아도 수십여종에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해 산림복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그는 "나무를 심는 데만 그치지 않고 물과 비료주기, 풀과 잡목 베어주기를 비롯해 나무 비배(거름을 주고 가꿈)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은 조국의 모든 산들을 머지않아 푸른 숲 설레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김정은시대 창조물"(11/3, 조선중앙TV, 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은 북한이 3일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 거리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 매체는 '평양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중구역에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에 수천 가구의 주택과 150여 개의 상업 시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기상수문국, 우리의 백화점격인 창광상점, 탁아소, 유치원, 학교, 체육공원 등이 들어섰다고 소개했으며,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오수용 노동당 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매체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준공사에서 "미래과학자거리는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과 사회주의 조선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는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으며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하겠다"고 독려했다고 덧붙임.

재생에너지 사용 독려하는 북한…"전력난 타개책"(1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에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했다며 "녹색 건축물 창조의 비약적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3일 보도함.
- 또한 "녹색 건축 창조의 목적은 자원과 에네르기(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오염 발생을 감소시키며 생태 환경을 보호해 사람들에게 이로운 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독려함.

북, 청천강에 수력발전소 10개 건설(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평안북도 구장, 개천 지방을 다녀온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평안남도 원리 앞에서 시작해 향산군까지 이르는 청천강 상류에 10개의 계단식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물을 잡아 농사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수력발전소를 몇 개 건설하지 못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단번에 여러 개 건설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건설비 충당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고 덧붙임.
- 이어 소식통은 "그러나 언제(댐)를 다 쌓는다 해도 발전기가 없어 전기 생산을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함.

북한, 접경지역 관광개발 속도…"중국인 관광객 겨냥"(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북한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5일 '하늘에서 본 북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월 북한 상공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중국 투먼시의 (50억 위안, 한화 약 8천 900억 원) 투자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라며 "(2013년 12월) 투자협정에 합의

한 뒤 1년간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새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힘.

- 또한 방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온성섬 관광개발구 남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건설됐고, 기존도로는 새 단장을 하는 기초공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둘레 2.5km, 면적은 930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골프코스와 수영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함.

북한 김정은이 한 사료작물을 '애국풀'로 불렀더니…(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1116호 농장을 찾아가 접한 사료용 작물을 '애국풀'로 명명한 것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애국풀'을 널리 퍼트리기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작업은) 평양시가 앞장서고 있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종묘 생산방법에서 번식의 근본을 찾고 있다"고 소개함.
- 평양시는 내년 5월 열리는 7차 노동당대회 소집 이전에 10만개 이상의 종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평안남도는 현재 시, 군 축산 부문 관계자들에게 '애국풀'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 관련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강원도와 자강도에서도 당 대회 전에 한 개의 종묘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힘.

다. 경제 상황

北 '태양빛 에너지 버스' 운행…"승객 140명에 시속 40㎞"(11/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남포시 과학기술위원회 부원 정인성의 말을 인용해 "최근 남포시에서 태양빛 에네르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버스를 만들어 여객 운수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재 800킬로의 거리를 달려 보았는데 손님들을 70명, 최고 140명까지 태우고도 40키로미터메씨(시속 40㎞)의 속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었다"며 버스의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함.

"백두산청년발전소, 김정은 불같은 독촉에 대충대충 건설"(11/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당 창건 70돌을 맞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김정은의 치적 선전을 위해 공기(工期)를 훨씬 앞당겨 무리하게 부실공사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또한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발전소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완공하라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당 중앙의 불같은 독촉에 어쩔 수없이 대충대충 완공됐다"며 "특히 과거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멘트와 모래, 자갈 혼합비율이 제대로 맞지 않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10년이 걸려야할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도 김정일의 지시로 3년만에 완공됐지만 부실공사로 진행돼 제대로 된 발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도 부실 공사의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함.

북, 발전소 건설자에 '평양견학' 선물(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 당국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건설일꾼들에게 올해 12월까지 교대로 평양견학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로 조직된 첫 평양 견학단이 11월 2일 일정을 마치고 열차편으로 건설현장에 돌아왔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한번에 3천 명씩 조직되는 평양견학을 마치고 나서 건설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기념메달'을 수여받았으며, 여성들은 '은하수' 화장품과 속옷 한 벌, 남성들은 평양소주 한 병과 평양담배 한 보루, 속옷 한 벌이 들어있는 여행용 트렁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함.

북, 추수기에도 쌀값 안 떨어져(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대북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방을 휩쓴 지독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평안북도 지방의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함.
- 신의주와 연계를 갖고 있는 중국 료녕성의 한 대북 소식통은 "작년보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신의주 남민동과 남하동, 친선장마당에서 쌀 1kg은 4천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쌀값 상승에 민감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민들이 달러나 위안화를 가지고 있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한 사람이 1년을 먹자면 미화 200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요즘 웬만한 도시 사람들은 그만한 돈은 굴리고 있다"고 덧붙임.

WFP "5세 미만 북한 아동 3분의 1 영양실조"(11/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 다미안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3일 보도함.
- 킨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북한의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해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올해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며 "WFP가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함.

"김장채소 軍·수해지역 우선 공급방침에 배추·무 가격 폭등"(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일 함경북도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전국적인 가뭄과 잇따른 장마피해로 대부분 협동농장 남새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다"면서 "기관 기업소들은 정해진 인근 협동농장에 나가 배추가을(수확)을 진행하지만 지난해보다 예상 할당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였음을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청진 수남 시장에서 배추 1kg이 1,000원이나 올라 3,000원에, 무는 500원 가량 올라 2,000원인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지난 8월, 함경도와 양강도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많은 '남새밭'이 유실됐기 때문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데도 위(중앙)에서는 피해(나선)지역 우선공급 방침을 내세우며 일부지역 농장 배추 한포기도 타 지역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했으며, "주변 부대에 공급할 계획분을 최우선 보장해야 하는데다, 수해지역 공급까지 맡게 된 농장원들도 김장걱정부터 하고 있다"고 전해짐.

北 평양시 표기 확대…자체 OS '붉은별3.0'에도 적용(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전 구글 직원인 윌 스코트가 비즈니스 및 IT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인사이더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북한이 자체 개발한 데스크톱 운영체제(OS) '붉은별 3.0'에 평양시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뉴스는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스코트가 '붉은별 3.0'을 구입해 귀국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북한의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해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북한이 '붉은별 3.0' 설치 중간과정에 시간대 설정의 옵션으로 '조선-평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다고 전함.

북한매체 "화장품 품질 개선 성과"…리설주의 힘?(11/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5일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이란 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소식을 전하며 "이번 전시회에 80여 종에 수백 점이나 되는 화장품들을 출품한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전시대들은 마치도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방불케 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매체는 화장비누, 살결물(스킨), 샴푸, 린스 등 진열 상품을 예로 들며 "상표들이 매우 특색있고 포장 또한 달라졌다. 대번에(단숨에) 눈길을 끄는 새 상품들도 많았다"고 소개하였고, "특히 자연건조로 만든 기능성 화장비누는 사람들의 피부에

좋고 여성들의 미감에 맞는 색과 향을 갖고 있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고 전시회장의 분위기를 전함.

- 또한 매체는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란 구호를 내세우며 "우리 화장품 공업의 목표와 전진 속도가 또 달라졌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상품들에 그 꿈이 실렸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평양화장품 공장뿐 아니라 신의주 화장품공장도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체의 기술역량을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기술갱신 주기를 부단히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박람회에 적극적인 북한…전문가 "외자유치 의도"(11/1, 연합뉴스)

- 코트라(KOTRA) '제4회 중조박람회 개최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8일 중국에서 열린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북중박람회)에서 북한 기업을 위한 부스는 모두 104개가 설치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북한 측 참가 인원은 지난해 2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두 배로 늘었으며, 코트라 다롄무역관은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인사 증가는 전시회 현장이나 단둥시내 호텔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함.
- 북한과 중국이 2012년 시작된 북중박람회를 통해 3년간 유치한 투자액은 총 4억 1천만 달러(한화 4천 600억 원)에 달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EU 작년 무역 76% 감소…"북 광물수출 중단 탓"(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4년 북한과 EU의 무역액이 3천 500만 유로(436억여 원)로 2013년 1억 4천 600만유로(1천 819억여 원)보다 76% 줄었다고 EU 집행위원회의 '대북한 교역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4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지난해 무역액이 북한의 광물 수출 중단 탓에 2013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對) EU 무역은 수출 1천 800만 유로(224억여 원), 수입 1천 700만 유로(212억여 원)로 각각 집계되었고,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품 900만 유로(112억여 원), 화공품 400만 유로(49억여 원), 중장비와 차량 부품류 200만 유로(24억여 원), 공산품 100 만유로(12억여 원) 등이며 주 수입 품목은 중장비와 차량부품 500만 유로(62억여 원), 식품과 동물 400만 유로(49억여 원), 화공품 300만 유로(37억여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북중 '휴대전화 방해전파' 갈등…"중, 북에 중단 요구"(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방해 전파로 국경 인근 중국 주민들이 통화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당국이 방해 전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을 위해 방해 전파를 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창바이현 정부가 방해 전파 중단을 요구했으나 양강도 당국이 전파 발사 중단 대가로 창바이현 정부에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함.
- 이에 중국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린성과 랴오닝성 정부는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까지 찾아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함.

"외화난 北, 보수중인 북중교량 도보로 中관광객 訪北 허용"(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일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9월 28일 파손된 중국 단둥(丹東) - 북한 신의주 간 조중(북중)우의교 보수 공사가 최근까지 진행되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 여행객들로 하여금 도보로 조중우의교를 건너 방북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은 신의주를 방문하는 일일 여행객들에게 걸어서 들어오라는 통보를 내렸다"면서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가 아닌 도보로 방북하는 여행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소개함.

1-9월 미북 교역 450만 달러...대부분 지원품(11/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백 50만 달러 ($4,488,000)로 집계됨에 따라 전년도인 2014년 같은 기간 ($21,900,000)의 20%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이 같은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 중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이며 그중에서도 9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 그러면서 방송은 총 450만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백 83만 달러 ($3,837,000)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NAICS 990000)'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전자제품이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다고 설명함.

헬기로 평양 둘러보는 관광상품 나왔다…평양마라톤 상품도(11/5, 연합뉴스)

- 중국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는 5일 헬기 투어가 포함된 새해맞이 평양 관광 상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박6일짜리인 이 상품은 올해의 마지막 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관광객들은 새해 첫날 오전 북측이 제공하는 러시아제 밀 Mi-17을 타고 하늘을 날아 상공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는 일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원래 상품가격 895유로(약 110만 원)에 295유로를 추가로 내면 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또한 북한 여행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국 여행사들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북한의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관광 상품도 잇달아 내놨는데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는 "북한을 방문해 평양마라톤에 참가하라"는 글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출시 소식을 알렸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여행객들은 대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김일성경기장 특별관람석에서 대회를 지켜볼 수 있다"면서 "모든 여행객에게는 북한 주민 7만 명이 참가하는 개막식과 폐회식 관람 기회도 주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가격은 5박6일 일정(내년 4월 8일~14일)의 상품이 995유로(약 123만 원),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관련 투어를 포함해 이틀이 추가된 상품은 1천295유로라고 뉴스는 덧붙임.

"북-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내년 10월 완공"(11/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 가 내년 10월 완공된다고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훈춘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교 건설에 필요한 총 투자액 1억 4천 700만 위안(한화 262억여 원) 가운데 7천만 위안(125억여 원)이 투입됐다"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고, 549m 길이 새 다리는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현재 주교량 기초 공사가 끝나고 주교량 받침대 8개가 설치된 상황이라고 전해짐.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 10kw 풍력발전기 생산 공정 확립(11.2, 중앙통신)
- 「당 창건」 70주년 기념 평양시 경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발표회(11.3 ~7) 개막식, 11월 3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 및 박철근(조선과학기 술총연맹 평양시위원장/개막 발언) 등 참가(11.3, 중앙방송)
- 산림 및 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11월 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 및 국토환경보호성·국가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등 연구사·기술자·교원 등 참가 (11.3,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 단나무(본명: 아로니 아)의 '유효성분 (열매정액 100㎖ 속에 헤스페리딘 3,210㎎· 루틴㎎ 함유 새롭게 확증 등) 추가' 발견(11.3, 중앙통신)

- 전국 건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3~4 평양에서 진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9차 전국 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11월 4일 김영훈(체육상,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4,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조선옷전시회 개막식(11.4~6), 11월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월 2~6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진행 및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체신부문 일꾼·과학자·기술자·교원 등 참가(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의 각종 수지폐기물로 연료 생산기술 개발 등 '각지 공장-기업소의 재자원화기술 연구 도입으로 연료문제 해결·도시환경 개선' 보도(11.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북, 자본주의 생산방식 묵인(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이 "가내 수공업적이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장마당이나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개인이 자동차나 다른 윤전기재(운송수단)들을 공장, 기업소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시대는 한물갔다"며 이제는 "소규모 기업들이 버젓이 작업장과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많이 생기자 중국 장사꾼들이 들여오는 장사물품도 달라지고 있다"며 "완제품도 들어오지만 개인 영업장에 필요한 부속품의 수입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함흥에서 개

인들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자전거, 오토바이 다야(타이어)는 중국산보다 값이 훨씬 비싸고 자동차도 돈만 내면 개인 수리소에서 수리해 준다고 덧붙임.

북한 태블릿PC 룡흥 뜯어보니…"남한산 메모리 들어있네"(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2년 전 출시한 태블릿PC 룡흥에 사용된 반도체가 국내산이며, 이를 분해한 결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2개가 장착돼 있었다고 보도함.
- 뉴스는 NK지식인연대가 "룡흥의 포장상자에 '판형콤퓨터(태블릿PC) 룡흥 - 룡악산정보기술교류소'라고 쓰여있고, 제원은 CPU 1㎓, 주기억(램) 512MB, 내부기억기(내장메모리) 8GB, 외부기억기(외장메모리) 16GB, 화면크기 8인치, 무게 250g, 배터리 사용시간은 6시간"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임.

북한 군부, 주유소 독점 운영(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이 "평양과 원산,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옆에 원유판매소들이 많이 생겨났다"면서 "고속도로는 물론 평양-신의주간 일반 국도 옆에도 원유판매소들이 줄줄이 들어섰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2000년대처럼 도람(드럼통)으로 휘발유를 팔던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면서 "과거에도 군대들이 기름을 빼내 장사꾼에게 넘겨주고 돈을 벌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네가 직접 주유소를 차리고 팔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로써 당국의 비호 하에 군대가 주유소 사업권을 틀어쥐고 안정적인 수입을 챙긴다고 덧붙임.
- 이어 방송은 군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는 부흥 원유판매소, 삼흥 원유판매소, 강성 원유판매소 등으로, 판매소 앞에 붙은 이름은 인민군 소속 외화벌이 회사이름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은 목이 좋은 장소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음을 밝힘.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북, '미거주자' 집중 단속(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작년 3월에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5대 사법기관(당,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재판소) 합동의 '312 상무'를 통해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등록 미등록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전함.

- 평양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 돈벌이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흘러들어 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 판단하여 '312 상무'를 총동원해 미등록자를 색출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함.

북, 독일산 첨단장비로 핸드폰 전파 감지(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보도를 통해 국경연선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북한 주민들이 올해 8월부터 일절 전화연락을 끊는 원인은 군사용으로 제작된 독일산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라고 밝힘.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올해 3월 경 국경연선에 러시아산 휴대전화 추적 장비를 배치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독일산 첨단 휴대전화 감지 장비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전하면서, 휴대전화 감지 장비는 추적용과 방해전파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경연선에 약 3천대정도, 민경(휴전선)부대들에 6천대정도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 합치면 1만여 대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마. 사회 동향

북한 노동신문 "태권도 기본동작, 3천200개나 된다"(11/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일 '태권도의 구성요소와 경기종목' 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종목이 다양해 다른 무도들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무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단련, 호신술로 구성돼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태권도의 기본동작이 공격과 방어의 개별 동작들로 구성된 3천200여 개의 종류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틀은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을 리치와 뜻에 맞게 묶어 놓은 것으로서 상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선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전함.
- 한편 연합뉴스는 2017년 국제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제20차 태권도 세계 선수권대회가 북한에서 열린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북한이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양 청춘거리에 위치한 태권도전당의 무도종합훈련장, 심판원실, 기자회견실, 선수휴게실 등을 단장하는 재건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北 개발 최신 스마트폰 '평양' 삼성 갤럭시와 비슷"(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주민 사이에서 '평양타치'라고 불리는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모양과 형식은 한국 삼성의 갤럭시와 비슷하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6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뒷면에는 '평양'이라고 쓰여 있다"며 "가격은 200~300달러"라고 설명하면서 "사진기, 음악 기능은 물론 문자를 뜻하는 '통보문', 인터넷을 의미하는 '열람기'를 비롯해 녹음기와 달력 등 일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있다"며 "'다국어사전'은 북한 학생과 공무원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함.
-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많다"며 "이 스마트폰의 특징으로는 와이파이(Wi-Fi), 즉 무선 데이터 전송 체계로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없다"고 덧붙임.

북, 나선시 홍수 복구과정 소개…'전화위복의 30여일' 방송(11/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전화위복의 30여일'이라는 제목의 15분짜리 특집 영상을 방송하며 지난 8월 발생한 나선시의 홍수 피해 복구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
- 초반에 피해 상황을 등장시킨 이 영상은 이어 "그 시각 나선시 인민은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가 토의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어떤 '사랑의 명령'이 내려지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피해 복구 명령이 하달된 지난 8월 회의 모습을 전하고 "인민 생활은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라 강조함.
- 또한 영상에는 군인과 주민이 햇볕 아래에서 주택을 짓거나 거리 퇴적물을 쓸어내는 모습, 제방을 쌓는 모습, 자재나 식료품을 확보하려 애쓰는 나선가구공장과 나선종합식료공장, 선봉피복공장 등이 등장했으며 특히 물살에 맞서 최고지도자의 초상화나 벽화를 보전하려다 목숨을 잃은 주민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함.

북한, 체육도서 발간 활발…"체제결속 다지기 수단"(11/2,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일 북한의 체육신문사를 소개하며 "원수님이 지펴주신 체육 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해 일꾼들이 체육 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새 도서 집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사는 최근 북한의 체육 강국 정책 성과를 집약한 '절세 위인과 체육 열풍'을 비롯해 노동당의 체육 정책을 해설한 도서, 역경을 이겨낸 체육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집 '꿈과 희망'을 잇달아 펴냈으며 일반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포츠 안마법을 소개한 책과 각종 스포츠 경기 규칙을 담은 '체육 경기 심판 지식', 월드컵을 비롯한 축구 상식을 설명한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등도 발간함.

"탈북자 둔 北가정, '南화장품·노트북' 예물로 경제력 과시"(11/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4일 양강도 소식통이 "결혼을 앞둔 남성들은 신부에게서 손전지(휴대용 전등)나 열쇠고리를 비롯해, 남한산 노트북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혼 예물

이 다양"하며, "최근 결혼 하는 남녀를 보면 신부에게는 한국산 화장품을, 신랑에게는 고급스러운 노트북을 선물해주는 것이 최고로 꼽힌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결혼을 앞둔 신부는 약혼식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을 받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신랑은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데 손목시계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상류층에서 결혼선물로 주는 중국산 중고 노트북은 북한 돈 150만 원, 독일산은 250만~300만 원 정도이고 한국산은 500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설명함.

평양공항에 장애인화장실…"북 변화 신호" vs "선전효과"(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 7월 준공한 평양국제공항 신청사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4일 보도함.
- 방송은 최근 방북한 서방 관광객이 평양공항에서 찍은 사진에 "화려한 돌로 장식된 청사에 장애인을 나타내는 표시와 함께 '위생실'(화장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문 위에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열린 문 사이로 단체복을 입은 북한 직원 한 명이 청소를 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있고 다른 직원 세 명은 주변에 둘러서 있다"며 관광객에서 제공받은 사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그러면서 방송은 이 관광객이 공항 신청사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몇 군데 더 설치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평양공항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인권개선 압박을 의식해 이뤄진 '선전용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임.

히딩크, 풋살경기장 건립 지원차 방북길 올라(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69)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5일 오전 시각장애인을 위해 거스히딩크재단에서 추진한 풋살 축구장 '드림필드' 건립을 위해 김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지난 2일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히딩크 전 감독이 방북 이유에 대해 "북한으로 드림필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축구와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을 덧붙이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축구 관계자와 만나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7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전함.

北 중매쟁이, 결혼대상 가족중 탈북자 있다고 밝히는 이유(1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5일 함경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남한에 있는 탈북자로부터 방조(傍助)를 받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전에는 '적대계급'으로 분류됐던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은 지난 시기와 달리 굳이 정치적으로 우월한

가정에서 결혼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의 방조를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과 사돈을 맺으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다는 인식이 강해 오히려 조건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소식통은 "가족 중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있는 대상과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걸림돌로 생각하는 시기는 끝"이며 "탈북자 가족을 둔 가정의 돈 주머니가 든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인민보안원들이나 국가안전보위원들도 노골적으로 뇌물을 바칠 것을 요구해 제 이속을 챙기기도 한다"고 설명함.

- 제16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폐막식, 11월 2일 전극만(교육위원회 부위원장/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2, 중앙통신)
- 나선시, 체육관(2층 규모, 농구·배구·탁구 시설 등) 새로 건설(11.2, 중앙통신)
- 北 리세광 선수, '제46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4차 전국 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 11월 4일 평양 대동강반에서 진행(11.4,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대열, 11월 1일 나선시 나진지구에 도착 및 나선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및 제2차 전국 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진행(11.4, 중앙통신)
- 제34차 윤이상음악회, 11월 5일 박춘남(문화상)·홍경호(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등이 관람한 가운데 모란봉극장에서 진행(11.5, 중앙통신)
- 전국 보건일꾼 위생선전 대경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진행(11.5, 중앙통신)
- 北 내각, 11월 6일 옥류관에서 리세광 선수(제46차 세계기계체 조선수권대회 우승)를 위한 연회 개최 및 김용진(내각 부총리/연 설)·김영훈(체육상)·리종무(軍 장령) 등 참가(11.6, 중앙통신)
- 제46차 예술인체육대회(축구·농구·탁구·육상 등), 11월 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및 김기남(黨 비서)·박춘남(문화상)·안동춘(문예총 위원장) 등 경기 관람(11.6, 중앙통신·중앙방송)

11.09-11.15

11월

2주차

3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北, 남한에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 주장(11/10)
- 北, 11/11~12/7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선포(11/15)
-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 北거쳐 南 항구로 온다(11/13)
- 꿈틀대는 남북 민간교류…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
- 남북 종교인, 금강산에 모여 화해·평화통일 다짐(11/10)
- 북민협, 민간교류 활기 속 18~21일 방북…인도지원 논의

2. 핵문제 및 외교

-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 비난…“핵억제력 발전될 것”(11/12)
- 北-러, ‘위험 군사행동 방지 협정’ 체결(11/12)
- 北 “평화협정 앞서 비핵화 진전 美요구는 언어도단”(11/13)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리을설 빈소 찾아 조문(11/9)
- 김 黨 제1비서, 리을설 사망에 “군부대 조기 게양” 지시(11/9)
- 김 黨 제1비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지지도(11/14)
- ‘신상 변동설’ 최룡해, 북한TV 기록영상에 등장(11/9)
- 대북소식통 “최룡해 ‘해임’…협동농장서 혁명화교육”(11/12)
- 北, 리을설 ‘장갑차 운구’…“군 원로 최고 예우”(11/12)

4. 경제

- 北,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 등장”
- 北 남신의주 아파트 가격 폭락…“신압록강 대교 건설 취소 때문”
- 北, 학교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
- 도이체방크, “북한과 관련된 거래 하지 않겠다”

5. 사회

- 北 당국, 해외무역일꾼에 “제3국인 접촉 말라” 지시
- 올 1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 977명으로 집계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선전매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 주장(11/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실시된 한미 공군의 대비태세 유지훈련(Vigilant ACE)과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발표된 '4D 작전계획',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군의 기념 관함식, 동해상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북침 전쟁연습 소동이 대화와 양립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되새겨 보고 대화 분위기부터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10일 보도를 통해 주장함.
- 매체는 "(군사훈련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북남(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 정세를 8월 합의 이전의 일촉즉발 상태로 되돌려 놓게 만들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군부 패당의 군사적 도발소동은 명백히 북남(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보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대화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선포…미사일 발사하나(11/15,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스커드 미사일 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다른 소식통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기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함남 신포조선소 부두에 설치한 해상 발사대가 아직 SLBM을 발사할 정도로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함.
-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8월 지뢰·포격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실제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 北거쳐 南 항구로 온다(1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운송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 측 기업 3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성 검토의 일환으로 3차 시범운송을 한다”며 이같이 말하였고, 이번 운송은 1, 2차 시범운송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임.
- 뉴스는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이 국내 광양항과 포항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가 부산항으로 각각 운송되며, 기업 3사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우리 측 방북단 20명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검증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함.

북민협, 민간교류 활기 속 18~21일 방북…인도지원 논의(11/15, 연합뉴스)

- 국내 59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적인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15일 북민협과 통일부에 따르면 북민협 소속 20여개 대북 지원단체의 관계자 31명이 18~21일 북한 민화협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며 방문단에는 월드비전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어린이어깨동무 등 주요 대북 지원단체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북민협 관계자는 “지난 시기 사업 자체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사업 아이템을 가져가는 단체는 (사업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정부 당국자는 “8·25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 차례에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 예비접촉에 아직 북측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다 보면 당국회담 개최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꿈틀대는 남북 민간교류…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9일 통일부가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015년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이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이었다고 보도함.
- 뉴스는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개성),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 공동행사가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10월 방북 인원이 88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9월까지 월평균 방북 인원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임.

남북 종교인, 금강산에 모여 화해·평화통일 다짐(11/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남한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스님) 회원 150명과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협회장 강지영) 회원 50명이 9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보도함.
- 남북종교인들은 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종교인들은 7·4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고 종교인 사이에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 협회장은 "북과 남 사이에 친척상봉과 노동자축구대회 등 관계개선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기"라며 "7·4공동성명 등 북남합의를 적극적인 실천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고 덧붙임.

- 주한미군 유지비 지불 관련 '남조선 인민들이 침략군에게 대가를 지불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남조선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라고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11.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북인권 결의안' 유엔 상정 참여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11.11, 중앙통신· 노동신문)
- 제47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4D 작전계획' 수립 등 거론하며 남한 군부는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민족반역 무리, 반통일 집단"이라고 비난 및 '군사적 도발소동 중단' 주장(11.12, 중앙 통신·노동신문)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 관련 '남조선이야말로 수많은 모략사건과 온갖 비열한 음모로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추악한 인권유린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11.13, 중앙통신·민주조선)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싸움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싸움에서 진다면 북한 놈들이 어떻게 보겠는냐)에 대해 '체제대결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며 '종북 타령이 결코 김무성과 같은 특등 친미사대 매국노의 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없다'고 비난(1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당국이 '외세공조의 反北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파탄될 수 있다'며 '대결정책 전환 용단' 촉구(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북핵문제 발언(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 본질과 근원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추태, 남북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복잡성과 장애만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 비난…"핵억제력 발전될 것"(1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온갖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함없겠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

은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강화 발전될 것"이며 "2008년 공화당 행정부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선심이 아니라 자기식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 일"이고, "테러지원국 딱지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눈썹 한오리도 까딱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에 대해 "우리(북)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적대 의도에 환장한 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北외무성, "평화협정 앞서 비핵화 진전 美요구는 언어도단"(1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전환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언어도단"이라고 13일 보도를 통해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얼마 전 미 국무부 대북한정책 특별대표는 어느 한 토론회 마당에서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1950년대에 시작된 북미 교전관계 때문에 1980년대에 핵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순서 타령을 하는 것은 결국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대변인은 "역사적 경험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면서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논의를 먼저 해보기도 했고 또 핵 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회담도 수없이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으며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은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깔려 있다"고 덧붙임.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북-러, '위험 군사행동 방지 협정' 체결(1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오금철 부총참모장, 러시아 총참모부 니콜라이 보그다놉스키 제1부총참모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협정은 불가피한 상황 및 실수로 상대국 군대 인근에서 인명 피해 혹은 물질적 손해를 일으키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 활동을 '위험한 군사행동'이라 규정했고, 양측이 상대국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군사장비나 병력이 상대국을 침범하는 것을 예방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으며, 군사 활동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함.

아. 국제기구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독일서 한반도 세미나...북한 대표단 참석, 평화협정 논의"(11/1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함.
- 방송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학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북한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림용철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경식 실장,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의 리명진 교수가 초대됐다고 전함.

북, 유엔서 호주 인권 거센 비판(11/11, 인디펜던트)

- 영국 인디펜던트는 11일 보도를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 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서 북한이 오스트랄리아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10일 "오스트랄리아는 최근 난민센터 관리들의 성폭력 등 난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이 黨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제시한 인민중시사상과 이론을 연구체득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11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중앙과 평양시내 당·행정·근로단체 일꾼 등 참가(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일본에서 어린이 성학대행위성행 및 유엔 특별보고관 현지 조사 결과(여학생들 원조교제 연루 등)를 전하며 “이런 반인륜 국가가 우리(北)의 인권에 대해 떠들면서 놀아대고 있다”고 조소(11.9, 중앙통신)
- 김철학 브라질 주재 北 대사, 11월 4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단장 :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제1 부총참 모장), 11월 9일 평양 도착(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대한 미국 內 부정적 발언(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 등)들 관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나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주장(11.10, 중앙통신· 노동신문)
- 몽골국방성 대표단(단장: 치메도르쥐 쏘쏘르바람 국장), 11월 10일 평양 도착(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11월 5일 앙골라독립 40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내각총리, 11월 9일 벨리즈 수상에 재선된 ‘딘 바로우’에게 축전(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 시기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미국은 北-美 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11.11, 중앙통신 논평)
- 韓美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배치 논의 관련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인류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며 ‘미국의 북 위협 타령은 저들의 도발적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1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3 개발 관련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간섭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우리(北)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로 더욱 억세게 나갈 것’이라고 주장(11.11,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오금철 부총참모장)과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니콜라이 보그다놉스키 제1부총참모장)의 회담, 11월 11일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이탈리아 대사(마르코 델라 세타)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11, 중앙통신)
- 폴란드 독립절에 즈음한 폴란드 연주가들의 연주회, 11월 11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11.12), 美 ‘테드 포’ 위원장(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

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에 대해 "우리(北)에 대한 적대의도에 환장이 된 자들의 넋두리"라며 '反테러 입장 不變 및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에 핵억제력 강화 발전' 강조(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교토 지방재판소의 조선특산물판매(株) 사장(허정도, 「총련」 허종만 의장 차남) 등 '외환법위반 혐의(북한산 송이버섯 부정수입)' 징역 구형에 대해 '법치국가의 날강도적인 반총련 정치모략극'이라며 석방 촉구(11.12, 중앙통신)
- 러-北, 11월 12일 평양에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 조인 및 오금철(軍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러시아연방 무력 제1 부총참모장) 서명(11.12,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11월 12일 앙골라 도착(11.12, 중앙방송)
-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몽골 국방성 대표단 등, 11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영식(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11월 13일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대표단(단장: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제1부총참모장)을 만나 담화(11.13, 중앙통신)
- 강용덕 駐덴마크 北 대사, 11월 6일 同國 여왕에게 신임장 제정(11.13, 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11월 8일 싱가포르와 외교관계 설정 40주년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11.13, 중앙통신)
- 마크 릴레이 美 육군참모총장의 발언(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란다 등) 관련 '美 호전광이 평화통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주장(11.14, 중앙통신· 노동신문)
- 앙골라 독립 40주년 경축행사 참가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11월 12일 앙골라 대통령(조제 에두아르두 두스산투스)과 담화 및 대외관계상과 회담 진행(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4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포 27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마흐무드 압바스)에게 축전(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시리아 시정운동' 45주년 축전(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를 비난하며 "일본 당국은 모든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리을설 빈소 찾아 조문(1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일에 사망한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빈소인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을 찾아 조문했음을 전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군 원수인 리을설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 8일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인민군 관계자들이 동행하여 조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전날 발표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진 최룡해 당 비서(근로단체 담당)는 조문보도에서 제외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였던 리을설 원수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하였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던 노 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덧붙임.

북한 김정은, 리을설 사망에 "군부대 조기 게양" 지시(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7일 사망과 관련해 모든 군부대에 조기(弔旗)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보도함.
- 이에 대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조선 인민군 원수 리을설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8일 오후 6시(이하 평양시간)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띄우라"고 말했으며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조기를 띄우는 기간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말라"고 지시함.

北 김정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지지도(1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진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설비 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 우리(북)의 주체적 역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당의 현대화 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국산화"라며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되였다"며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배우게 하자"라고 말함.
- 이번 시찰에는 김양건, 오수용 당비서와 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등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신상 변동설’ 최룡해, 북한TV 기록영상에 등장(11/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5시30분(북한시간) 방영한 기록영상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2015년 10월’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최룡해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냄.
- 11월 4일 오후 처음 방송된 이 영상은 최룡해의 신상 변동설이 처음 제기된 8일에 이어 9일에도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놓은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도 장의위원 명단에는 빠졌으나 이날 중앙TV가 방송한 당·정·군 간부들의 조의식장 방문 영상에는 모습을 드러냄.

대북소식통 “최룡해 ‘해임’…협동농장서 혁명화교육”(1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이 12일 “최룡해는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혁명화 교육)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였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부진이 아니겠느냐고 추정된다”며 “이번에는 최룡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최룡해는 빨치산 2세대라는 신분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쉽게 숙청 되지는 않을 것”이고 “혁명화교육을 받다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북한 리을설 ‘장갑차 운구’…“군 원로 최고 예우”(11/1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2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평양시내 중앙노동자 회관에서 영결식을 끝내고 대성산 혁명열사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을설의 시신을 운송했던 차량은 북한이 자체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승리 장갑차’로 확인됨.
- 이에 연합신문은 리을설의 시신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발인을 마친 뒤 녹색과 하늘색으로 위장한 장갑차에 옮겨졌고 이후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3명과 함께 고개를 숙여 예우를 표시하는 등, 리을설의 장례식이 최고 예우로 치러졌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은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결전장이었고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장이었다’며 ‘청년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하여 모두가 본받아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선동(11.10, 중앙방송· 노동신문)
- 제2차 전국 「여맹」 초급일꾼 열성자대회, 11월 11일 김정순(여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사적비 준공식, 11월 11일 박영호(황해남도당 책임비서/ 준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령광산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라며 ‘노래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黨 제7차대회를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 전진’ 주문 속에 연일 ‘혁신창조’ 선동(11.1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조
-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45.11.18) 70주년 기념 연구토론회, 11월 1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11월 하순 평양에서 진행 예정(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70번째 생일을 맞은 정기종(김일성훈장 수훈자인 4.15문학창작단 작가)·박우섭(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송한정(원산수산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과 90번째 생일을 맞은 한병준(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에게 ‘생일상’ 전달(11.14, 중앙통신)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제7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14일 김정순(「여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北送 비전향장기수 리경찬의 80회 ‘생일상’ 전달(11.15, 중앙통신)
-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양형섭·김양건·오수용·로두철 등 黨·국가 책임일 꾼들, 11월 15일 미래과학자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교육자·과학자들 가정 축하 방문(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 등장"(11/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9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평양시는 물론 평성과 순천 등 주요 기차역과 장거리 버스 종점에는 외지 손님에게 길을 안내하는 '길 봉사 업종'이 새롭게 생겼"으며, "이들은 손님이 요구하는 주소로 안내하거나 상대방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돈을 받는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주요 도시 역전에 자전거와 리어커, 통통이(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해 짐을 운반해주는 인력거꾼이 등장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길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길 안내 서비스업'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면서 "길 안내를 해주고 받는 돈은 1,000원~2,000원 정도로 정해졌지만 야밤에 여관이나 '대기숙박'(민박)을 알선을 요구하는 손님을 안내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서비스가 좋고 깨끗한 숙박집을 안내하면 손님으로부터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러한 길안내 봉사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은 평성인데 이곳 버스 종점이나 기차역에 내리게 되면 안내자업자들이 줄레줄레 나타나 '정성껏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깍듯이 인사한다"면서 "이들은 상대방의 말투나 옷차림에 따라 장사꾼, 법관(보안, 검찰), 당 간부, 군인 등으로 약삭빠르게 구별한 다음 길안내 봉사 요금을 정하기도 하며, 뗑(어리바리)하게 행동하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바가지 요금을 씌워 남보다 배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함.

● 북 남신의주 아파트 가격 폭락 이유는(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국경지대 소식통들이 "중국이 대교를 한창 건설할 때 남신의주 방 2칸짜리 아파트는 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5천 달러 대로 떨어

졌다"고 전해 왔으며, 중국이 대교를 건설하기 전 남신의주의 아파트 시세는 3천~4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다리 완공시점이던 2013년에 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급락했다고 설명함.

- 방송은 중국이 신압록강 다리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북한 군부가 신의주에 주재하고 있는 외화벌이 지사들에게 다리 끝단이 들어서는 남신의주로 사무실을 옮기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성택 숙청 이후 다리 개통 소식이 사라짐에 따라 여기에 투자했던 외화벌이 회사들이 크게 후회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덧붙임.

북, 실적 내려 주민 수탈 계속(11/1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내년 1월 청년동맹 대회와 5월초 노동당창건 7차 대회를 구실로 현금과 물건을 바치도록 주민들을 압박함에 따라, 당 창건 70돌만 넘기면 한숨 돌릴 것으로 기대하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1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당 창건 70돌을 핑계로 거둬들이던 당국의 강제모금이 이제는 당 제7차대회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며 "당 창건 70돌이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주민들은 중앙의 계속되는 수탈행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양강도 주민들은 백두산 관광철도 건설과 위연지구 아파트 살림집 건설을 위해 돈을 내라는 독촉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민생활 향상이 이런 주민수탈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굳이 인민생활 향상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임.

북 중앙동물원 동물들 폐사(11/1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이전으로 완공한다던 북한 '조선중앙동물원' 개건확장 공사가 절반 수준밖에 진척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로 희귀동물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잇따랐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10월 중순 경 북한당국이 조직한 외교정책회의에 참석했다가 최근 중국 내 파견지로 돌아왔다는 한 소식통은 "평양동물원은 노동당 제7차대회를 앞둔 4월말이나 돼야 내부공사까지 완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조선중앙동물원'에 대한 보수 확장공사에 이어 올해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설계로 개건확장공사를 진행했으나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한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하여 평양시의 한 주민은 "지난 9월 초 동물원 시설 이전과정에서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해 냉각설비가 4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고로 극지동물 수 십 마리가 질식사했다"고 전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

은 동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해당 간부들을 처벌하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북극곰과 참대곰(판다)을 비롯한 희귀동물들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함.

북 학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1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후 북한이 가내수공업 수준의 개인 상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장마당을 주축으로 한 개인들의 상행위가 치열한 경쟁을 동반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성과 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 장마당은 소매보다는 도매거래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일반 소비품 거래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장마당 보다 싸고 믿을만한 거래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이런 장사에 떠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물물교환 거래에 분쟁이 생길 경우 교원들이 중재에 나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교원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필수품은 손전화"라며 "학부모들이 자신의 장사물품의 내용이나 가격흥정,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목록 등을 전화로 직접 자식들의 담임교원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교원들은 이른바 '거래장부'를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는데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수안'은 대충 작성하면서도 학부모들과의 물물 거래내역을 담은 '거래장부'는 밤늦게라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北여맹원, 간부 닦달에 사채 빌려 '충성자금' 바쳐"(1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3일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연말 결산 총화를 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맹원들은 미달된 과제를 해결하느라 경황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민군대지원 과제나 충성의 외화과제를 미처 하지 못한 여맹원들은 '돈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 혜산시 여맹원들은 1년간 농촌동원 및 사회동원에 빠진 대신 내야 하는 돈을 다 합치면 약 30만 원 정도이고 1인당 군대지원 과제는 10~15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면서 "여맹원들은 인민군대지원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돈벌이 장사에 손을 대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말단 조직인 초급단체의 맹원이 과제수행을 완수하지 못하면 부문위원회 간부로부터 초급단체위원장이 함께 추궁을 받게 된다"면서 "만약 연말까지 과제를 미달하게 되면 초급단체위원장이 지휘 책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초급단체위원장은 여맹원들의 과제 수행을 강압한다"고 설명함.

● "北 국경경비대 강냉이밥 150g '영양실조'"(11/15, 아시아프레스)

-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의 말을 인용해 15일 "수확기를 맞아 군대 식사가 약간 호전되기도 했으나 굶주린 채 시장을 배회하는 병사들이 다수"라고 보도함.
- 협력자는 "국경경비대에는 한 끼에 150g의 강냉이(옥수수) 밥과 무, 염장과 시래기국만 공급된다"며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군인도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당국이 국가에 규정량을 낸 나머지 식량을 자유 처분해도 된다고 통보했음에도 올해 1월 들어 '군량미', '애국미'를 내라고 할당해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다"며 "농민들은 도 군량미를 징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도이체방크 "북한 관련 거래 않겠다"(1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입수한 도이체방크의 최근 재정보고서에 북한이 금융위험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도이체방크가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사실을 보도함.
- 방송은 도이체방크가 지난 8월 작성한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서 중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한 문제'(US Embargoes-Related Matters) 부분을 보면 금융 위험국가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 북한과도 거래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부터 도이체방크는 2006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수단, 쿠바 등 네 나라와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위험국가들과는 달러를 비롯한 모든 통화를 포함한 기존의 금융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함.

- 김광현(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 박사)의 최근 세계과학원 청년회원·국제이 론물리센터 회원 등록 및 지난 10년간 국제학술잡지 등 18건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 소개(11.9, 중앙통신)
- 금성청년출판사 창립 70주년 기념 청소년출판물 전시회, 11월 9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11.10, 중앙방송)
- 각지 협동농장들, 물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도입(11.10, 중앙통신)
-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11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민족유산 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발표 1주년 기념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보호부문 전국과학 기술발표회, 11월 11일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평양기관차대 창립('45.11.10)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11일 김두일(철도성 정치국

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중앙산업미술전시회(10.6, '당 창건' 70주년 경축 개막) 폐막식, 11월 12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임철웅(내각 부총리/폐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 거리를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11.12, 중앙통신)
- 평안남북도·황해북도·강원도 등 '올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의 면적에 수억 그루 나무심기' 등 지난 1년간 "산림복구전투 성과 이룩" 선전(11.12, 중앙통신)
- 제12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11.11~13) 폐막식, 11월 13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형직사범대학, 사범대학·교원대학부문 처음으로 대학생 과학탐구 상학급 배출(11.14, 중앙통신)
- 자강도 희천시, 대규모 양묘장 새로 건설(11.14,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시장서 '국정가격 얼마요'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1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3일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행위를 통해 결정된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사(私)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이 공식 결정하는 시장 '국정가격'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대신 가격 상한선인 '한도가격'만 공시(公示)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당국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시장관리소에서도 이를 반영해 국정가격이 아닌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도가격'만 붙여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고, "'한도 가격'도 이제는 개인 장사꾼들이 파는 상품 가격에 맞춰주고 있어 한도가격의 의미도 퇴색됐다"고 하며 "만약 쌀이 현재 5,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4,500~5,000원이라는 한도가격을 제시해 놓는 형식이다"고 설명함.
- 뉴스는 이처럼 국정가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북한 당국은 시장

가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소식통들이 "도(道) 인민 위원회에서 매일 시장을 돌면서 쌀값 등 시장 물가를 파악해 내각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자기계, 식품 등 각 분야에서 파악하는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시장 물가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국내입국 탈북민, 13년만에 월평균 100명선 이하로(1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03년 1천285명으로 처음 월평균 100명 선을 넘은 이후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경단속 및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등으로 감소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북 "해외무역일꾼, 제3국인 접촉 말라"(1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군대와 내각 등 중앙기관들이 자기부서에 부과된 국가건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에 주재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인과 미국 등 서방세계 사람들을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석탄과 정광, 약초를 팔아 외화벌이할 때는 외국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원자재가 고갈되어 인원을 파견해 중개무역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외 주재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함.
- 방송은 현재 동남아와 중국 남방에 파견된 조선무역은행과 모란지도국 산하 주재원의 연간 상납금이 약 6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중개무역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함.

마. 사회 동향

"韓流 영향 北주민, '해피버스데이' 부르며 케이크 촛불 꺼"(11/1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에서 한류(韓流) 바람이 불면서 돈주(신흥부유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생일축하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돈주들만 비싼 케이크를 구매했지만 최근에는 케이크를 찾는 주민들이 늘면서 저렴한 케이크를 만들어 개인 집에 배달까지 해주

는 전문점이 등장했다고 보도함.

‘11월16일은 북한 어머니 날’…주민들 선물 사느라 ‘분주’(11/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평양 상가와 상점 관리인, 일반 시민 등의 말을 인용해 수많은 주민이 어머니에게 줄 화장품과 꽃을 사려고 상가와 상점을 찾고 있다고 보도함.
- 광복지구상업중심의 김영옥 부지배인은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뜻깊은 어머니날을 앞두고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찾고 있다”면서 그는 “특히 화장품들을 사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화장품 매대를 찾는 손님들이 특별히 많다”고 말했으며, 평양시내 황금벌 꽃상점의 장현욱 책임자는 “손님들은 세계적으로 ‘어머니꽃’으로 불리는 카네이션을 많이 찾고 있다”고 밝힘.

- 금성청년출판사 창립(‘45.11.9)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9일 진행 및 리일환(黨 부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참가(11.9,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노동자 농구경기대회(11.9-13) 개막식, 11월 9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 및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주영길(「직총」 위원장/ 개막사) 등 참가(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국제축구연맹 청년급 감독 강습(국제축구연맹 강사 ‘곽가명’ 집행), 11월 4~5일 평양에서 진행 및 체육단 감독들·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들 참가(11.9, 중앙통신)
- 북 아시아 U-16 여자축구 4강 진출(11.9, 미국의소리)
- 미림승마구락부, 청소년 과외승마강습 1회 졸업생 배출(11.11,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 충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11월 5일 함경북도 경원군 도착·달리기 진행 및 11월 11일 김책시 향발(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천강체육단(평남도 평성시, ‘72.10.15 창립)의 지난 40여년간 ‘국내·국제 경기에서 5,580여개·110여개 메달 쟁취 등 우수 체육선수 육성 체육단위’로 소개(11.12,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노동자 농구경기대회 폐막식, 11월 13일 주영길(직총위원장, 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 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11월 15일 ‘2015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선수권 대회(중국)’ 우승(일본팀 1:0 승리) 및 2016년 17살 미만 여자월드컵 참가자격 획득(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11.16-11.22

11월

2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南, 23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北 "우리수역 목표 시 응징"(11/22)
- 北,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하자" 제의(11/20)
- 北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남측, 서해 우리수역 목표 해상사격 시 응징 주장"(11/22)
- 北, "남한,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 보여야"(11/18)
- 北, 남북대화 촉구에 "책임 전가" 주장(11/16)
- 北, 무단입북 남한 국민 1명 판문점 통해 송환(11/1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을사늑약 110년' 맞아 日과거사 성토…"강도적 침략"(11/17)
- 러 법무장관 방북…사법공조 협정체결(11/17)
- IAEA "북 핵 심각한 우려…현장 검증 필요"(11/18)
- 北 대사, 유엔서 "인권결의안은 악의적 중상모략"…폐기 요구(11/18)
- 北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세력의 모략 책동"(11/21)
- 유엔 "반기문 총장 방북 논의 진행 중"…방북 추진 공식 시인(11/19)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3대혁명운동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11/20)
- 北, '어머니 날'에 여성역할 강조…'代이은 충성' 유도(11/16)
- 北 청년동맹 제9차 대회, 내년 5월 당대회 이후로 연기(11/18)
- 北 체육계 실세 손광호, 지난달 ANOC 총회 참석차 방미(11/19)
-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8개월 만에 복권(11/20)

4. 경제

- 北,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작성
- 北, 나선경제특구 '자본주의식' 모델 적용…'개방실험' 나섰나(11/18)
- 중국, WFP에 대북식량지원 100만 달러(11/17)
- 김장철 지나면서 북한 채소, 쌀 가격 하락

5. 사회

- 北, WHO 지원 아래 전국적 결핵조사 첫 실시 예정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 보여야"(11/18,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에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당국은 당국회담과 관련해 '북이 묵묵부답하고 있다'느니, '호응'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는가 하면 현 집권자까지 나서 '북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마치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 있는 듯이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어 "이것은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또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에 역행해 대화상대방을 부정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북침전쟁 불장난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핵 및 인권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헐뜯으며 "북남관계는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개선될수 없고,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속에 없는 말장난을 부릴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버리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북한 "남측, 서해 우리수역 목표 해상사격시 응징" 주장(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22일 담화에서 "남한군이 23일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155mm 자행곡사포 K-9와 130mm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스파이크, 무장 헬기 AH-1S를 비롯한 살인장비들을 동원해 또다시 우리측 수역을 향해 도발적인 해상사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5년전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순한 군사적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8·25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방함.
- 대변인은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연평도 포격도발의 공식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려는 취지"라면서 "역사 왜곡과 사건 날조에 이골이 난 자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희비극"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연평도 포격전의 명칭을 바꾸는 유치한 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또 하나의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북한 매체, 남북대화 촉구에 "책임 전가" 주장(11/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보도를 통해 남한 정부가 최근 북한에 '8·25 합의' 이행을 위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관계 답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대화 타령에는 북남합의 이행과 관계개선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밝힘.
- 매체는 "남조선 집권자가 정상회담을 운운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북의 태도 변화'라는 조건부를 단 것은 대화 타령 속에 숨겨진 체제 대결, 반공화국 압살 흉심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며 "이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대화를 표방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이 있다면 대화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북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하자" 제의(11/20,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0일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북측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촉구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호응한 것은 다행"이라고 전함.
- 남과 북이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당국 회담의 의제와 급을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우선 갖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라. 대남 군사 관계

남, 23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북 "우리수역 목표시 응징"(11/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22일 "우리 군은 23일 서북도서의 우리 측 해역에서 계획된 (해상)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에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23일 서해 열점(접적)지역

에서 아군(북측) 수역을 목표로 한 남조선 군부의 해상사격이 강행되는 경우 5개 섬 수역에 대한 서남전선 군부대들의 무자비한 응징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은 "남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155mm 자행곡사포 K-9와 130mm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스파이크, 무장 헬기 AH-1S를 비롯한 살인장비들을 동원해 또다시 우리 측 수역을 향해 도발적인 해상사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5년 전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순한 군사적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8·25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방함.

마. 남북 경제 관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북한 표준시 반영해 개편한다(1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현재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전자출입시스템(RFID)이 북한 표준시 변경을 반영해 개편된다고 보도하면서, 2억 7천 400만 원 규모인 이번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 표준시 변경에 따른 주요 로직 수정·보완 및 시스템 대응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 출입 관련 서류에는 남측시간과 북측시간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전자출입시스템도 출입계획 시간 조회 등에서 양측 시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 추가될 기능 중에는 일 단위 상시통행 시행을 대비해 심사율을 높이고, 개성공단 방문 신청 및 승인 자료를 남측과 북측이 문서 파일 형태로 주고받도록 하는 내용, 방화벽·침입탐지 등의 기능이 있는 통합 보안장비 도입 등도 들어있다고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북한, 무단입북 우리 국민 1명 판문점 통해 송환(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던 이모(48)씨를 송환 했다고 보도함.
-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45분께 북한 적십자 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한 명을 오후 4시 30분께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힘.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세력의 모략 책동"(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적 실례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을 우리에 대한 극단한 정치적 도발 문서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결의안 강압 채택 놀음은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린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인권 모략 책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함.
- 이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극적인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실로 감행되는 내정간섭을 허용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며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모략에 강경 대응하는 우리 입장이 천백 번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맞는 해당 조치들을 강구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북한 "일본 군위안부 배상하라" 거듭 촉구(1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장장 40여 년 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16일 보도함.
- 대변인은 "패망한 지 70년 넘도록 과거청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며 "(일본이 오히려) 강제연행된 조선 청장년을 자원한 사람들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에 대한 청산은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고 뻗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북한, '을사늑약 110년' 맞아 日과거사 성토…"강도적 침략"(11/1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7일 '강도적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이란 정세론 해설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했다"고 성토하면서, 이를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라며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 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절대로 왜곡될 수 없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사람을 강제연행해 노예 노동을 강요했던 공장, 탄광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해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왜곡 미화하는가 하면 집권자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문구까지 빼버려 과거 죄행을 정당화해 피해자인 전체 조선 민족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도 '을사5조약일을 맞아 일본정부에 과거청산 요구'라는 보도에서 "일제가 불법 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오늘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 보고 있다"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백 년 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끝까지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과거 역사의 반성과 청산을 요구함.

사. 대러시아

러 법무장관 방북…사법공조 협정체결(11/17, 자유아시아방송, 타스통신)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러시아 간 사법공조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며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법무부 대표단이 17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함.
- 타스통신에 따르면 코노발로프 장관 일행은 이번 방북에서 북러 양국 간 사법분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 기업 간 계약과 법적 규제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대사, 유엔서 "인권결의안은 악의적 중상모략"…폐기 요구(11/18, AFP, AP 통신)

- 북한의 리흥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발의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폐기를 요구했다고 AFP, AP통신이 18일 보도함.
- 매체는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리 대사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 중상모략이자,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임.
- 이어 리 대사는 "우리는 EU와 일본이 즉각 결의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결점을 바로잡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강제노동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함.

● IAEA "북 핵 심각한 우려…현장 검증 필요"(1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연례 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IAEA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었으며, IAEA 검증 요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현안 등을 해결하는데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함.

● 유엔 "반기문 총장 방북 논의 진행중"…방북 추진 공식 시인(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이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그간 반 총장이 특정 시점에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나 예측이 나올 때마다 "해당 시점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방북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이 사실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관련하여 "(반 총장의 방북 발표는)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또는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함.

자. 기타 국가

● '반미 우방' 북한·시리아, 문화 분야도 협력(11/18, 미국의소리, 시나통신)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북한과 시리아가 올해부터 3년간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행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시리아 관영 시나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계획서 체결에 장명호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와 이쌈 카릴 시리아 문화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계획서에는 영화와 음악, 연극, 조형예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양국 문화의 날 행사 개최, 음악원과 연극원 간 협력 및 지원,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임.

-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도연맹 위원장, 11월 16일 평양 도착(11.16,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과 일행, 11월 16일 앙골라공화국 공식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환(1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11월 15일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同國 외무장관(로랑 파비우스)에게 위로 전문(11.17,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유도연맹 위원장(마리우스 비저)과 담화(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신종수), 11월 17일 평양에 도착하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러셀(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北 비핵화 수용(北, 비핵화 나서면 평화체제·관계정상화 등)' 촉구 발언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은 北-美間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의 관건,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의 유일한 방도'라고 '미국의 정책결단' 촉구(11.18, 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8일 이임 주북 쿠바 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면담(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11월 18일 이임 주북 쿠바 대사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 및 김영남 등 참가(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委 부위원장), 11월 18일 러시아 사법성 대표단(단장 :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장관)과 면담 및 '김정은 선물' 접수(11.18, 중앙통신)
- 안광일 인도네시아 주재 北 대사, 11월 13일 주재국 대통령(조코 위도도)에게 신임장 전달(11.18, 평양방송·중앙통신)
- 일본의 안보법 개정과 무력증강을 거론하며 '아시아를 제패하려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 목표'라며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침략전쟁을 꿈꾸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자유아시아방송(RFA)의 '北 조선중앙통신, 악성코드 유포 해킹' 주장은 '선군조선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차단해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계획적인 모략책동'이라며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선군조선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11.19,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가나 대사(아나니 오쿠미니 데무야코르)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19, 중앙통신)
- 곽지환 적도기니 주재 北 대사, 11월 10일 주재국 민주당 총비서(헤로니모 오사 에코로)와 담화(11.20, 중앙통신)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단장: 전기철 국장), 11월 19일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 참가차 평양 출발(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에르데네 바트-울 수도행정장관 및 시장), 11월 19일 평양 도착(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사법성 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사법상), 11월 19일 귀국(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동북아에서 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이 좁아지고 있는데 불안을 느끼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 아·태지역에 무력증강으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21세기의 냉전에서 승자가 되려 하지만 패배자는 미국'이라고 주장(11.2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대외경제투자협력위, 독일 동아시아협회와 '양해문' 체결(11.20, 중앙통신)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에르데네 바뜨-울 수도행정장관 겸 시장), 11월 20일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 '전략적인내' 정책은 "철저한 실패작으로 미국의 쇠퇴를 촉진하고 있다"며 '對北 적대시정책 철회 및 평화협정체결 호응 정책결단' 촉구(11.21, 중앙통신)
-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백인경찰의 흑인사살·아프가니스탄 병원공습)'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라 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범죄자"라며 "인권재판관 행세('인권보고서' 등 발표)" 비난(11.21,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군사 대표단(단장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월 21일 라오스·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차 평양 출발(11.21, 중앙통신·평양방송)
-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단장 : 채춘희 부위원장), 11월 21일 쿠바(국제민주여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페루 방문차 평양 출발(11.21, 중앙통신·평양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인민배우 전우봉 사망…김정은 화환(1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우봉 김원균명칭평양음악종합대학(전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학부 전 교수가 83세로 사망했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사망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전우봉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 17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은 "3대혁명운동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당 제1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개막된 제4차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나 생산보다 꾸리기 같은데 편중하는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에 빙자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3대혁명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지도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편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한다"며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은 "당원과 근로자, 특히 청년들 속에서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김기남 당비서는 보고를 통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체육계 실세 손광호, 지난달 ANOC 총회 참석차 방미(11/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체육계의 실세로 꼽히는 손광호 체육성 부상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고 20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손 부상이 지난달 29~30일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오리 아브라모위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인사들의 워싱턴DC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총회 참석 외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복권(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기술로 개발한 지하전동차의 시운전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 올해 3월 초 이후로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다가 8개월 만에 재등장하여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北 청년동맹 제9차 대회, 내년 5월 당대회 이후로 연기(1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청년동맹 제5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년동맹 창립 일흔 돌을 맞으며 소집하기로 돼 있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함.
- 통신은 확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새로운 영웅천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백두산 청년강국의 위용을 다시 한 번 힘있게 떨쳐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어머니 날'에 여성역할 강조…'代이은 충성' 유도(11/16,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TV,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16일 '우리 어머니들은 백두산 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 가는 애국자들이다'라는 사설에서 "어머니들은 강성 조선(북한)의 기둥감,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을 억세게 키워나가는 밑뿌리로,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어머니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적 헌신성으로 김정은시대를 빛내어 가고 있다"며 어머니를 비롯한 북한 여성들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요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어머니 날은 자식들이 어머니들을 축하해 주는 날"이라며 "많은 사람이 어머니에게 축하 엽서도 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가 식사도 하고 있다"고 어머니 날을 맞은 사회 분위기를 전함.

- '조선의 오늘'은 16일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란 글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노동당의 품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토록 값높고 긍지로운 것"이라며 어머니와 노동당을 동일시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조선중앙TV도 16일 '어머니의 마음', '빨간 별들의 자랑-어머니 날을 축하해요', '온 나라 아들 딸들을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등 어머니 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함.

김일성정치대학에 김일성·김정일 새 동상 건립(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김일성정치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20일에 성대히 진행됐다"고 전함.
- 제막식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과 대학의 일꾼들, 교직원, 학생, 각급 군사학교 일꾼들, 인민군 장병, 군인가족 등이 참가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北, 축구 이어 '농구 띄우기'…"김정일 업적 지키는 문제"(11/2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전국노동자농구경기대회' 개·폐막 소식을 전하며 "원수님(김정은)이 지난 9월 농구 종목 발전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체육부문에 쌓아올린 장군님(김정일)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농구 종목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 귀중한 가르침을 줬다"면서 "농구경기대회는 주체혁명 위업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 노동계급의 정신력과 단결력, 체육기술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45.11.18) 70주년 중앙보고회, 11월 17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 11월 17일 평양 도착(11.17,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현지지도(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축산물 종합가공공장·축산학연구소 등) 정형 현지 요해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애국풀'을 널리 퍼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 토의(11.18, 중앙통신)
-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委 제5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18일 평양에서 진행 및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및 청년동맹 중앙위원과 중앙·지방의 청년동맹 일꾼들 참가(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2~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총화모임,

1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가(11.18, 중앙통신)
-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1월 1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및 김용진(내각 부총리)·최상건(黨 부장)·김승두(교육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11.18, 중앙통신)
- 김기남·최태복·곽범기·오수용 등 黨 비서들과 黨 중앙委 일꾼들, 11월 18일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1.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9일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 전동차의 시운전 참관(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사법검찰기관 창립('45.11.19)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1월 19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
- 제4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혁명 열사능 등 참관(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황창봉(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1동 60인민반)의 100세 생일상 전달(11.20, 중앙통신)
-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11월 20일 평양에서 개막(11.21, 중앙통신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성심성의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22, 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11월 21일 함광철('청년동맹' 부위원장) 등 토론과 '김정은에게 전하는 맹세문' 채택 후 폐막(11.21,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정령. 제760호(11.11字),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 붉은기(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등)·2중3대혁명붉은기(만경대닭공장 후보2직장 등)·3대혁명붉은기(평양건축종합대학 등)' 수여(11.21, 중앙방송)
- 도당 책임비서들과 내각, 성, 중앙기관일꾼들, 11월 22일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참관(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 경제발전 4개년 계획 작성(1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노동당 중앙위가 내년 5월로 예정된 7차대회에서 제시할 인민경제발전 4개년 계획을 작성하도록 내각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위해 내각 산하 각 부처들이 지방 현지를 답사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경제발전 4개년 계획은 내년 5월 초에 진행될 노동당 제7차대

회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며 이는 1980년대 북한의 국가운영 방식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어 개혁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각 도당 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오는 12월 초 평양에 모여 당 대회준비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된다"며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함.

나. 주요 조치

북한 나선경제특구 '자본주의식' 모델 적용…'개방실험' 나섰나(11/18, 내나라)

- '내나라'는 18일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 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북한기업과 관련 사업의 이름을 공개하여 나선경제특구를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사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함.
- 매체는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외국투자의 법률적 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했으며, 합법적인 이윤과 이자, 이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익금 같은 소득을 제한 없이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투자 정책 분야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비법적인 간섭은 할 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종합 개발 계획에는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 안팎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 수출입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저당할 수 있다"고 명시함.

'100년만의 왕가뭄' 겪은 북한, '물절약 농법' 권장(김일성종합대학학보, 7/20; 1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3호(7월20일 발행)에는 '물 절약형 농법을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라는 제목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법을 소개한 글이 실려 있음.
- 이 글은 영양알모(한 개의 영양알에 씨앗이 2~3알씩 들어가는 형태의 모) 농법의 경우 모에 물을 4~7일에 한 번씩만 주면 돼 물을 아끼는 동시에 수확량은 일반 모를 심은 논보다 정보(약 9천900㎡)당 약 437㎏ 많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식의 물 절약형 농법을 모든 영농공정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적은 물로 정보당 알곡 소

출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함.

다. 경제 상황

"北 김장·수확 끝나면서 남새·쌀 가격 하락…쌀 4700원"(11/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11월에 접어들면서 쌀과 남새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김장철이 끝나는 시기이고 벼 탈곡을 시작한 시점이어서 시장 물가 변동이 있다"면서 "김장철인 10월 중순에는 배추 1kg에 1,950원까지 올랐었는데 10월 말부터는 1,500원으로 내려가더니 이달 초부터는 9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배추뿐 아니라 벼 탈곡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쌀 가격도 5,2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렸다"고 보도함.
- 이에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당, 행정, 근로단체에 소속된 모든 주민들은 결산총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대신 내고 과제수행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다"며 "돈을 대신 내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혜산시 기준으로 지난 10월 중순 휘발유 1kg은 6,000원, 디젤유 1kg은 4,000원이었으나 11월 초 소폭 올라, 휘발유 1kg은 7,000원, 디젤유 1kg은 4,500원에 거래되었으며, 이후 11월 중순 현재 휘발유는 7,300원, 디젤유는 5,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임.

北주민, 김정은 치적 평양고층아파트 입주 꺼린다는데…(11/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6일 보도에서 최근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배정되고 있지만 정작 분양 받은 주민들은 이곳으로의 이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새집임에도 난방 및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함.
- 평양 소식통은 "온수 공급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돈주(신흥부유층)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이곳 아파트 시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 아파트 배정 대상자였던 과학자, 연구사들은 초기에 입주자 명단에서 빠질까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작 주택이 배정되자 겨울철 난방이 안 되고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종전에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임.

"평양서 택시비 북한돈으로 내면 상식 없는 사람"(11/1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7일 평안남도 소식통이 "평양시에서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화폐가 달러이면 정상적인 요금을 내면 되지만 국돈(북한)이면 5천원이 추가로 부과된다"면서 "외화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유통화폐가 되면서 국돈을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비용이 5천원"이라고 전했음을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평양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지하철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택시비용 계산방법 자체가 달러로 되어 있어 국돈을 지불하는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취급되며 택시기사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北대학생, 통화도 안하면서 핸드폰 '꼭' 갖고 다니는 이유(11/1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7일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 대학생들이 손 전화(핸드폰)를 부모들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부모들은 이런 성화에 못 이겨 사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손전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깔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구판매소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휴대폰은 1,300위 안(북한 돈 약 156만 원) 정도이며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아리랑 타치폰(스마트폰)'은 2,800위안(북한 돈 약 3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양강도 혜산시장의 쌀 1kg 가격이 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휴대폰은 쌀 300kg, 아리랑 타치폰은 무려 쌀 660kg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함.

북 주민, 식수난 자체해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함경북도 청진시의 소식통을 통해 식수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재 시에서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왜정(일제) 때 묻은 낡은 수도관과 전력부족, 약한 수압으로 주민들이 수돗물을 원만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약한 전력과 수압으로 물 부족현상이 계속되자 청진시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최근 자체로 양수기를 구입, 설치해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고, 청진시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 사태에 지친 상태여서 당국에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함.

오라스콤, 북한 고려링크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11/1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보도에서 북한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통신업체 오라스콤(OTMT)이 고려링크를 계열사(subsidiary)에서 분리해 협력(associate)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이에 오라스콤은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KPTC)와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회계기준(EAS)과 국제회계기준(IFRS) 을 모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WFP 대북 영양지원 모금액, 목표액 절반 수준"(11/1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WFP의 자금 현황자료를 인용해 WFP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8천 890만 달러(약 1천 42억 1천만 원)였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목표액 1억 6천 780만 달러(약 1천 967억1천만 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금액으로, 이로 인해 WFP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이에 방송은 WFP가 올해 말 종료하려던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해 WFP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는 러시아가 지원국 중 가장 많은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 3천만 원)를 냈고 이어 스위스 593만 달러(약 69억 5천만 원), 호주 230만 달러(약 26억 9천만 원), 한국 200만 달러(약 23억 4천만 원), 캐나다 160만 달러(약 18억 7천만 원), 중국 100만 달러(약 11억 7천만 원) 등의 순서라고 덧붙임.

중, WFP 대북식량지원 100만 달러(11/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 자금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이 북한주민의 영양지원을 위해 2015년 11월 초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함.
- 정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자금은 모두 500만 달러에 달하며,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중국의 지원액으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량가공공장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비스켓을 만드는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 선박, 중 단둥항에서 모습 감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의 한 무역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8월 하순부터 북한선박이 단둥항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둥항의 운영권을 확보한 Y건설 집단 측에서 국제무역항인 단둥항의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 등 오염유발 물질의 입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은 주로 단둥항을 통해 반입되었는데 단둥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키려는 단둥시 당국과 항만운영을 맡은 Y건설 집단의 방침에 따라 석탄 배의 입항과 하역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라고 함.

– 평안북도 신의주시, 산림복구사업에 주력(11.17, 중앙방송)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준공식, 11월 17일 희천9호발전소에서 진행(11.18, 중앙통신)

- 강원도 수산관리국 및 산하 수산사업소 일꾼들, 보름 남짓 기간 '지난해 同期 대비 3배 이상 물고기 잡이 성과' 선전(11.18, 중앙방송·노동신문)
- 함경남도 룡전 과수농장지구에 북청사과연구소(보존실·분석실·정보실 등 구비) 새로 건설(11.18, 중앙방송)
-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5'(11.19~26) 개막식, 11월 19일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석탄공업부문 청년돌격대원들, 연간 굴진계획 초과 수행(11.19,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종자보관고와 과학기술보급실 및 축산기지건설을 완공(11.20, 중앙방송)
- 北 각지, 수지관을 이용한 온실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11.20,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WHO 지원 아래 전국적 결핵조사 첫 실시(1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함.
-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여름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몽골에서 실시된 결핵 실태조사에 관계자들을 파견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Prevalence of bacteriologically confirmed pulmonary TB cases)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조사 방법은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 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중에서 15세 이상 주민 7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은 개인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객담 도말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 받게 된다고 방송은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탈북민 7명, 태국서 체포…한국행 희망"(11/2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태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태국 경찰이 북부 메콩강 근처에서 탈북민 7명을 발견해 구속했으며 이들 탈북민은 20대에서 70대의 남녀로, 모두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왔다"며 "태국에서 구속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북 해외일꾼, 독일·중국서 잇따라 잠적(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보도를 통해 최근 독일과 중국 베이징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일꾼 가족이 잇따라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북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이에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위부가 재외 공관들에 '도이췰란드와 베이징에서 여러 가족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며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였고, 지난 9월 경 독일에 주재하던 한 북한 재외일꾼이 가족과 함께 사라짐에 따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의 안전대표(보위부 요원)들은 산하 무역 주재원들과 해외 근로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북한, 8월 남한드라마 복제·판매한 여성 3명 처형"(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중순 남한 드라마를 복제해 유포한 죄로 가정주부 3명을 처형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예술대학 근처에 거주하던 이들은 남한 TV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복제해 유통한 죄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8년 1월 KBS2에서 방영한 8부작 드라마는 북한 사회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권력층의 실상과 일반 서민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북, 운전면허증 불법 발급자 처벌(1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보도를 통해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부 호안과(교통과)와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대거 처벌했다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중앙당과 검찰조직으로 이뤄진 강력 조사팀이 인민보안부와 차량등록기관을 검열하고 적지 않은 간부들의 별을 뗐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외에도 검열단이 각 지방보안서 호안과에도 상무조를 파견해 면허증을

불법 발급해주던 당사자들을 줄줄이 파면시켰는데, 이 상무조는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8.3(엉터리 운전사) 운전사들 때문에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자 급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원래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자면 6개월 동안 자동차양성소에서 운전기술을 배우고, 수리기술까지 배운 뒤 시험에서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부 호안과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보안부에서는 신규 운전자의 경우 미화 250달러를 내면 새 면허증을 발급해주었고, 4급 면허 소유자가 10톤급 이상 대형트럭을 몰기 위해 면허급수를 2급으로 올리려면 50달러만 내면 가능했다"고 설명함.

마. 사회 동향

북한, 2018 러시아 월드컵축구 예선서 바레인 제압(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북한이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바레인(115위)과 홈 경기에서 2-0으로 이겼으며, 이로써 5승1무1패가 된 북한은 두 경기를 덜 치른 4승1패의 우즈베키스탄(71위)과 간격을 승점 4로 벌렸다고 보도함.

"북한 지방도시서 오토바이 개조 삼륜택시 인기"(11/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지방도시에서 오토바이를 고쳐 만든 삼륜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토바이 택시는) 2013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운송수단으로 모두 개인이 영업한다" 면서 "원래 화물 운반용으로 등록했지만 무허가로 사람들을 태우며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방송은 현재 북한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은 마비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택시는 주로 지방도시의 시내나 도시 근교를 오가며 운행하고, 기름값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야만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北 평양 주민, 핸드폰 번호 '1912'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11/1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9일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손전화기(핸드폰) 번호가 북한 내 통신망을 지원하는 고려링크와 강성네트 통신사에 따라 각각 191과 195로 시작한다고 보도하면서 고려링크는 이집트 오라스콤사(社)와 합작한 통신사로 평양 등 내륙 지역 통신망을 제공하고, 북한 내 자체 통신사인 강성네트는 평안도를 제외한 양강도와 함경도 등 북부 지역의 통신망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에는 김일성이 태어난 년도인 1912년을 선전하기 위해 고려링

크 번호인 191에 2번을 무조건 넣어서 번호를 사용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1912-OOO-OOO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이 번호가 제공된다"고 덧붙임.

"평양 유람비행, 관광객들에 인기"(11/20,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0일 "지금 공화국에서는 평양시내 유람비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람비행 열풍과 함께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고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평양 유람비행'은 평양 국제비행장을 출발해 대동강과 청춘거리의 체육촌, 두루섬,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사상탑, 김일성광장, 만수대 대기념비, 노동당 창건 기념탑, 5월1일 경기장, 미림승마구락부, 장천남 새전문협동농장 상공 등을 거쳐 같은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이 상품에는 40인승 여객기와 10인승 헬기, 3인승 또는 5인승 경비행기가 투입되며 비행 소요 시간은 총 40여 분이라고 알려짐.

"北김정은, '폭주족 오토바이 타다 걸리면 압수' 지시"(11/2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0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신흥부유층인 돈주로 하여금 과시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오토바이를 압수해 지방의 협동농장 등에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최근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이에 따라 한때 부의 상징으로 여겨 돈주들이 경쟁적으로 구입하던 값비싼 일본산 오토바이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 영예군인들에게 허용된 삼발이 오토바이(3인용)와 일부 특정기관 업무용 오토바이만 제외한 그 나머지 오토바이는 타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임.

- 청진시, 함경북도 육아원·애육원이 새로 건설됐다고 보도(11.16, 중앙방송)
-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11.18) 70주년 여맹원들의 경축무도회, 11월 18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11.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엄윤철선수,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기록' 갱신(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11.23-11.30

11월

4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南北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11/26)
- 北,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한 정황 포착(11/28)
- 北, "美, 한국에 신형 하푼 미사일 팔지 말라" 비난(11/29)
- 北, 서북도서 사격훈련에 "군사적 도발" 억지(11/24)
- 北, "북핵 국제공조 강조는 반공화국 추태" 주장(11/24)
- 北, 'IS 불똥' 차단 주력…"연계 가능성 주장은 모략"(11/23)
- 北, 당국회담 앞두고 비난공세…"관계개선 의지 보여라"(11/30)

2. 핵문제 및 외교
-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반발…"엄중한 도발"(11/25)
- 北, 한미일 6자수석 회동 계획에 "반공화국 핵소동" 비난(11/30)
- 北,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 일부 철회"(11/23)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軍 수산사업소 시찰…"시설 완벽히 구축"(11/23)
- 김 黨 제1비서, 군인예술축전 당선 공연 관람(11/24)
- 김 黨 제1비서, 연일 수산사업소 시찰…"생산량 비약적으로"(11/25)
- 김 黨 제1비서, 원산구두공장 시찰…"공장 꽝꽝 돌아가"(11/27)

4. 경제
- 北, 내각·기업 권한과 역할 구분 강조…'분권화' 전략
- 北, "해상경보에도 결사적인 물고기잡이 전투 벌여"
- 北, 서해바다 어업권 중국에 팔아…북한 군대 개입 가능성
- 北, 11/25 평양 인터넷통신국 착공…"사회주의 건설에 중요"
- 北, 북한산 경공업품 우수성 찬양…'김정은 업적' 부각
- 北 매체, 국산품 사용 독려…"경제난 타개 방편"
-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北 폭설로 일부 지연

5. 사회
- 北, '외국소식 유포' 만수대TV 제작진 숙청
- 北 사법당국, 돈 되는 사건만 다뤄 주민 반발
- 北, 11월 비 많고 기온 높은 '이상기후'…"엘니뇨 탓"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북핵 국제공조 강조는 반공화국 추태" 주장(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24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조선 집권자는 20개국 및 지역 수뇌자 회의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수뇌자 회의니 하는 국제회의들에 나타나 우리를 반대하는 체질화된 본태를 드러내놓았다"고 비판했음을 보도함.
- 조평통은 또한 "사실상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가리우고 저들의 대결 정책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부질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라며 4D작전계획, 작전계획5015,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 등을 예로 설명함.
- 또한 조평통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 때문"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험이 존재하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며 흥정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IS 불똥' 차단 주력…"연계 가능성 주장은 모략"(11/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 라고 보고한 데 대해 "동족에 대한 모략과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함.
- 매체는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남조선 정보원의 업무"라며 "남조선 당국은 정보원을 내세워 무슨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설을 내돌리게 함으로써 여론을 동족대결로 돌려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앞에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대화 상대방을 부정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북침전쟁 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내외는(안팎에서는)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행위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지난 8월 합의 이전에로 돌려세울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북한, 서북도서 사격훈련에 "군사적 도발" 억지(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격 놀음을 벌려놓았다는 그 자체가 동족 대결을 노린 가장 악랄한 군사적 도발이며 5년 전의 참패를 망각한 무모한 불장난"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아무리 당한 패전이 참혹하고 창피하다고 해도 시인할 것은 스스로 시인해야 한다"며 "불바다에 잠겼던 연평도의 그날을 상기하기가 괴로우면 다시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남한 당국이) 어용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대가 10여명이나 사망하고 수십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꾸며 여론에 내돌렸다"며 "사실 겁에 질려 쏘아댄 놈들의 눈먼 포탄 파편 하나가 들판에 있던 한마리 황소의 뒷다리에 박혔을 뿐"이라고 강조함.
- 또한 "남조선 당국이 여전히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대북정책 추구가 저들의 일관된 원칙임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며 "지금은 겉발린 말치레보다 진정어린 하나의 실천 행동이 중할 때"라고 밝히면서,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현안이 일정에 올라있는 시점에 남조선 당국이 벌려놓은 모든 대결 망동이 어떤 후과(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해볼 것"이라고 덧붙임.

북한, "美, 한국에 신형 하푼 미사일 팔지 말라" 비난(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무엇을 노린 무기판매 놀음인가'란 논평에서 "미국이 남한에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하푼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무기판매 놀음은 우리 겨레에게 동족 상쟁을 몰아오는 범죄적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데 있다"면서 "미국이 남한을 상대로 무기들을 계속 팔아먹으면 그로 하여 남한이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전변되어 갈 것"이라고 경고함.
- 논평은 또 "미국이 남한에 첨단 무장 장비들을 들이미는 것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들의 범죄적인 무기 배비(배치) 및 판매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다"라고 주장함.

북한, 당국회담 앞두고 비난공세…"관계개선 의지 보여라"(11/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대화 분위기에 과연 어울리는가'라는 논평에서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개선을 어떻게 해서나 차단해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고 보도함.
- 그러면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날(26일)에도 대화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대결적 망언들을 줴쳐대고(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겨레

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하였고, "남조선 집권 세력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북침 전쟁소동을 걷어치우고 말끝마다 외우는 '관계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북한 매체,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 짧게 보도(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쌍방은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며 "제1차 당국회담을 12월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라. 대남 군사 관계

북한, '12·11 당국회담' 앞두고 SLBM 발사시험 의도는(11/29, 연합뉴스)

-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이후 동해상에서 북한이 SLBM 수중 사출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사출시험 과정에서 미사일의 궤적은 포착되지 않고 SLBM의 캡슐(보호막) 파편만 동해상에서 포착돼 정상적인 사출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우리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北의 당국회담 등 남북대화 호응' 언급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北)의 진심어린 노력에 대한 모독,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결악습 철회, 체제대결 추구 행위 중단' 주장(11.24,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군부의 '연평도포격도발→연평도포격전' 명칭 변경 제안은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려는 광대극'으로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침략의 본거지들은 모조리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 위협(11.24, 중앙방송·평양방송)
- 현 남북관계 관련 '南 당국은 대화를 떠들면서 반공화국 핵공조와 인권모략공조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이 빚어낼 것은 남북관계 파국뿐'이라고 주장 및 '실천행동으로 대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보일 것' 요구(11.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해외순방(G20·APEC 등) 기간 북핵발언(北,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 핵개발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 등)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여 대화분위기를 사전에 깨보려는 용납 못할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으로서 절대로 문제시 될 수 없다'고 주장(11.26, 중앙통신)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1.27), '연합뉴스'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11.26, 학술회의) 보도(김정은 공포통치 등)는 "최고존엄 모독,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南 당국과 보수언론' 위협(11.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대통령의 G20·APEC 정상회의 '북핵 국제공조' 등 발언에 대해 '反北 핵공조를 애걸할수록 북남관계는 파국에 빠지고 대결과 긴장은 고조되게 될 것'이라고 지속 비난 및 '핵억제력 강화' 강조(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와 평화적 환경마련은 민족의 운명과 남북관계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라며 이를 위해 '남한 당국의 對美 공조 및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적 환경조성 방향전환' 주장(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추모행사를 거론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처사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은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정세파국을 조장하는 도발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1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당국의 '反北 핵소동(대통령, '북핵 국제공조' 발언·韓美日 6자 수석회동 계획)'을 비난하며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북한, 한미일 6자수석 회동 계획에 "반공화국 핵소동" 비난(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반공화국 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며칠 후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꿍꿍이판을 벌리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소동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용납 못할 매국반역 책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뻔뻔스럽게 북핵위협의 간판을 내걸고 외세와 공모결탁해 반공화국 핵소동에 열을 올릴수록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도 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은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을 버려야 하며 반공화국 핵소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함.

다. 회담 관련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북한,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반발…"엄중한 도발"(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조선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조선(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은 자주적인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적 문건으로서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은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버젓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실태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진짜 테러지원국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덧붙였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의 재지정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중지하라"고 요구함.

마. 대중국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 일부 철회"(11/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2001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14년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규칙·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간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만 북한의 유보조항으로 남음.
- 방송은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스탠리 브라운 美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장의 발언(대인지뢰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 등)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과 북침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北)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지 않으려면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지체 없이 끌어내가야 한다'고 주장(11.23, 중앙통신·

노동신문)

- ‘北美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北美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열쇠’라며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고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1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11월 23일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단장 : 에르데네 바트-울 수도행정장관 및 시장)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과 미림승마구락부 등 참관(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군사대표단(단장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월 22일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11.23, 중앙방송)
-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완전한 파산과 철회’를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 이행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11.24, 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서울인권회의’ 발언 등)’를 “대조선 제도전복을 노린 가소로운 추태”라며 ‘미국의 對北 전복책동에 단호히 대응 및 북한식 사회주의제도 고수’ 강조(11.24, 중앙통신 논평)
- 美 공군의 ‘신형 지상발사전략핵미사일계획 추진’ 전언(워싱턴 타임스 인용) 및 이는 “전략핵무력분야에서 유일초대국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필사적 발악”으로 ‘미국은 핵군비경쟁 장본인, 핵전파·위협 주범’이라고 비난(11.24,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군사 대표단(박영식, 인민무력부장)-라오스 국방성 대표단(생누안 사이냐랏, 국방상) 회담, 11월 23일 라오스 국방성청사에서 진행 및 ‘兩國 군대의 협조문제 강화 협의’(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불교계 대표단(명예단장: 아리마 라이데이, 일본 교토 불교회 이사장·단장: 니시오카 료고, 엥만지 지주·천태종 이전 종무총무), 11월 24일 평양 도착(1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티트 샨 쌘디 청’ 타이룩쓰패크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 11월 24일 평양 도착(1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선대표단, 11월 24일 평양 출발(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종합체배치사업 완료’ 및 헌법 9조 개헌 움직임 관련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체는 군국주의이고 재침론’이라며 ‘대동아공영권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11.25)]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피난민 사태를 거론 ‘사상최대의 피난민 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피난민문제 해결의 핵심은 인권범죄의 주범인 미국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선동(11.26, 중앙통신)
- 미국의 일본과 대규모 해상 합동군사훈련(11.16~ 日 남해)은 “우리(北)와 주변대국들을 목표

로 한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말살 하는 주범'이라고 비난 및 '자위적 조치 대응' 강조(11.27,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27일 모리타니 대통령(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에게 '모리타니 독립 55주년' 축전(11.27, 중앙통신)
- 주북 라오스 대사, 11월 2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自國 창건' 40주년 연회 개최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委 부위원장)·리룡남(대외경제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초대(11.27, 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정영원 부위원장), 11월 27일 쿠바·베네수엘라 방문 후 귀환(11.27, 중앙통신)
- '티트 샨 쌘디 청' 타이룩쓰패크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 11월 24일 귀국(11.27, 중앙통신)
- 北 군사대표단(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대장), 11월 27일 주석부에서 베트남 주석과 담화(11.28, 중앙통신)
- 北 최고검찰소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1월 28일 베트남방문차 평양 출발(11.28, 중앙통신)
- 美 국무부의 신형 '하푼' 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관련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 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난(11.2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철남 싱가포르 주재 北 대사, 11월 26일 주재국 대통령(토니 탄)에게 신임장 전달(11.30, 중앙통신)
- 北 적십자회 대표단(단장: 백용호 집행부위원장), 11월 30일 적십자 국제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차 평양 출발(11.30,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軍 수산사업소 시찰…"시설 완벽히 구축"(1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됐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수천t의 도루메기(도루묵)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정은 동지가 찬비가 쏟아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나먼 사업소를 다시 찾으셨다"고 설명함.
- 통신은 이번 현지지도에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조남진 중장을 비롯해 지난 20일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금고지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 함께했다고 덧붙임.
- 김 제1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사업소의 현대화에 만족감을 표하며 "기상예보 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가공지휘체계,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지휘 체계, 수천t 능력 초급동 및 냉동시설을 완벽히 구축했다"고 밝혔고 이어 "군인과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이 사업소 개건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아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 가공 전투를 벌리고 있는 애국자 가정들"이라고 치하함.

북한 김정은, 군인예술축전 당선 공연 관람(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7차 군무자(군무원) 예술축전'에서 당선된 중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구체적인 관람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축전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549군부대, 제264군부대, 제233군부대, 제630군부대 산하 중대의 공연이 당선됐다고 전함.
- 통신은 "중대 군인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며 "출연자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명령 관철을 위해 훈련장을 달리는 일당백 싸움꾼들의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이 이날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통해 군인들은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된다"며 "인민군대는 이 사업을 전략적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김정은, 동복선물로 돌격대원 '환심사기'(1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관광철도'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겨울옷 선물전달식이 현장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 '김정숙예술극장'에서 있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24일 보도함.
- 소식통은 이날 열린 선물전달식에 전용남 중앙청년동맹 위원장과 리상원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참석해 '선물전달사'를 낭독했으며, 돌격대 각 여단들에 '선물증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덧붙임.
- 또 다른 소식통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선물 동복은 '평양피복공장'에서 만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외출용 동복은 장마당에서 인민폐 80위안(한화 1만6천원)에 파는 중국산 동복과 재질이 비슷하다며 작업용 동복 역시 압착 솜을 넣었다고 하지만 방수천 재질이어서 외출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었다고 설명함.

北 김정은, 연일 수산사업소 시찰.."생산량 비약적으로"(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제1위원장이 '물고기 대풍'을 추진하는 인민군 제549부대 산하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서홍찬 군 상장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한광상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대연합부대 정치위원인 장동운 중장이 맞이했다.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사업소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소를 멋들어지게 개건 현대화하고 더 훌륭한 물고기잡이 성과를 안고 제7차 당대회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독려함.
- 이어 "사업소에서 올해 성과에 토대하여 짧은 기간 내에 연간 물고기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함.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시찰…"공장 꽝꽝 돌아가"(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모든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요구"라며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독려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공장이 '꽝꽝' 돌아가고 있다"며 "1월에 돌아볼 때보다 공장 환경이 더 밝아진 것만 같다"고 평가했고,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한광상이 이번 시찰을 수행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기쁘다"면서 "공장에서 '매봉산' 상표 구두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통신도 "공장이 도안실을 새로 꾸리고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으며 설비 현대화사업도 밀고 나가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선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북한 김영남, '테러 피해' 말리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테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서아프리카 말리 대통령에게 24일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말리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귀국의 수도에서 극단적인 테러 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각하와 귀국 정부와 인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 사회 정치적 안정과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 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임.

일본신문 "北최룡해 평양에서 정치학습설"(11/25, 닛케이신문)

-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룡해가 지방이 아닌 평양에 체류 중이며, 이는 언젠가 재기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함.

- 나카자와 편집위원은 최룡해에 대한 처분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행사에 맞춰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으며, 원래 최룡해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의 평양행을 성사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해 중국이 리 총리의 방북을 거절하여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김 제1위원장이 불만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문천강철공장·룡양광산·대동강뱀장어공장에 '김일성·김정일 父子 형상' 모자이크벽화 건립 및 각각 준공식 진행(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남포시 철도건설여단 '림시화' 노동자 등에게 감사(11.25, 중앙방송)
- 「농근맹」 중앙위 제7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25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황해북도 연탄군, 모범지방공업군 칭호 수여(11.25, 중앙통신)
- 교육도서출판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11월 25일 최태복(黨 비서, 축하문 전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11.26, 중앙방송)
- 제4차 전국 직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대회, 11월 27일 평양에서 진행 및 리일환(黨 부장)·주영길(「직총」 위원장 보고)과 관계부문 일꾼들·직맹초급단체위원장·중앙과 지방 직맹일꾼들 참가(11.27,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현지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6일 진행 및 박춘남(문화상) 등 참가(11.27, 중앙방송)
- 제국주의의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이 계속되는 국제환경 조건에서 "자주적대가 약하

면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할 수 없다"며 '자주·선군·사회주의 길' 不變 고수 역설(1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년들을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고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黨 제7차대회를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고 연일 선동(1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제8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29일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29, 중앙통신)
- 「직총(조선직업총동맹)」 창립('45.11.30)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1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委 부위원장)·오수용(黨 비서)·김덕훈(내각 부총리)과 제4차 전국 직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대회 참가자 등 참석(11.30, 중앙통신 ·중앙방송)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창립('45.12.1)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30일 진행(11.30,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내각·기업 권한과 역할 구분 강조…'분권화' 전략(김일성종합대학학보, 7/20; 1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3호(7월20일 발행)에 수록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과 기업체의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을 소개하며, 이 글이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 주동성, 창발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중요 조건"이라고 지적했음을 보도함.
- 또한 이 글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어느 높이에서 발휘하는가에 따라 경제 발전에 대한 추동 정도가 좌우되며,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모르면 책임성이 약화하고 경제 사업이 잘못됐을 때 책임 회피에 매달리게 된다"고 덧붙였으며 "기업체는 경제의 개별적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지 도기관(내각)은 경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임무가 무겁고 중요하다"며 내각의 기능도 강조함.

● 北 "해상경보에도 결사적인 물고기잡이 전투 벌여"(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3면 기사들을 통해 "지금 해상경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민군대

수산 부문 일꾼과 어로전사는 불사신이 되어 사나운 날(넓은)바다와 싸우며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인민군대 수산 부문에서 이룩되는 기적과 혁신은 불씨가 되고 봉화가 되어 물고기잡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해 전역을 용암마냥 세차게 끓게 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신문은 '수산성지휘부 무선대화실(통제실)에서의 1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대화실이 야전지휘소를 방불케 한다"며 "물고기잡이 실적은 당대회를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당의 호소를 받든 일꾼과 노동계급의 충정의 열도"라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28일 사설에서도 "오늘 동해 전역에서 인민군대 수산 부문의 고깃배들이 높이 울리는 만선의 뱃고동소리는 사회의 수산 부문들에 고무적인 힘을 안겨주고 분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치하함.

나. 주요 조치

"北이 앙코르와트 옆에 지은 박물관, 다음달 4일 개관"(11/30, NK뉴스)

- NK뉴스는 캄보디아 매체를 인용해 "캄보디아의 유명 사원인 앙코르와트 근처에 북한이 건립한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이 다음 달 4일 개관 예정"이라고 30일 보도함.
- 뉴스는 공사비 1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 9천만 원)를 들여 세운 이 박물관이 앙코르와트에서 3㎞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길이 120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된다고 전함.
- 그러면서 뉴스는 2011년에 착공된 이 박물관이 본래 2013년 4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매표소를 박물관 옆으로 옮겨달라고 한 북한의 요구를 캄보디아가 반대해 오면서 개관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함.

북, 서해바다 어업권 중국에 팔아(11/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산둥성(산동성)의 한 대북소식통이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선천군 일대의 수산 기지들에서 어장을 빌려주겠다는 제의가 연방 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한 수산물 수출회사는 바스레기(바지락)가 많이 나는 보산리 앞바다의 일부 구역을 떼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음을 30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 측이 내민 계약조건에 따르면 어장 넓이는 55정보로 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도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어업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하였고, 이 어장은 원래 북한 수산사업소 소관이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름과 어구 부족으로 저들이 잡지 못하게 되자 중국에 넘기고 대신 매달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수역은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군대를 끼지 않고서는 중국

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군대가 가운데서 중국측과의 흥정에 개입하고 있고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중국 어선들은 북한수역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배들은 쌍끌이 그물로 바닥을 훑기 때문에 조개 씨를 말리게 된다"고 덧붙임.

北, 평양 인터넷통신국 착공…"사회주의 건설에 중요"(11/2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5일 평양의 인터넷 통신국 착공식이 열렸으며, 착공식에는 김광철 체신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체신부문 일꾼들과 티트 산 샌디 청 태국 록스패크 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 체신상은 착공식을 선포한 뒤 "나라의 통신을 현대화하고 체신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으며, 샌디 청 록스패크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되는 평양 인터넷 통신국은 북한과 태국 사이의 오랜 친선관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양강도, 일부 기관에 감자전분 배급(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당국이 "올해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으로 5개월분의 감자를 공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급대상인 기관기업소들에 석 달 분의 감자전분을 따로 공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올해 양강도의 감자 농사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생산량을 기록함에 따라 수확한 감자의 보관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은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양강도에서 수확한 감자를 즉시 지역주민들에게 배급으로 주고 감자전분으로 만들어 사회급양(식당) 망들에 음식재료로 공급해 왔다며 올해는 배급을 다 주고도 보관이 어려울 만큼 많은 감자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보관문제가 제기되자 남는 감자들을 모두 전분으로 만들도록 협동농장들에 지시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올해 양강도가 보천군과 운흥군, 삼수군에서 정보당 30톤 이상의 감자를 수확했고 대홍단군과 백암군 '10월 8일 협동농장', 삼지연군 '포태 국영농장'은 정보당 최고 50톤의 감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함.

北 매체, 국산품 사용 독려…"경제난 타개 방편"(11/26,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소'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지하철)를 개발,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함.
- 노동신문도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빛내이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 생산한 트랙터, 자동차, 불도저 등을 소개하며 "제 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국산제품을 홍보함.
- 또 '약용 치약'을 개발한 한 연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제품을 개발했다"며 그를 치켜세움.

다. 경제 상황

북한 매체, 평양골프장 홍보…"당일 여행에 이상적"(11/23,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3일 '평양골프장'의 위치와 시설을 소개하며 "당일 여행으로 이상적인 명소"라고 선전함.
- 매체에 따르면 태성호 호수를 낀 평양골프장은 지난 1994년 개장한 18홀 골프장으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7㎞ 떨어진 곳에 있어 자동차로 30분 걸리며 부지 면적은 120정보(약 119만㎡)에 길이는 7㎞에 달함.
- 이에 매체는 "골프장에는 하루 100여 명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재와 봉사인원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면서 "건물 안에는 식당, 상점, 한증탕, 휴식실 등 봉사 시설도 편리하게 꾸려져 있다"고 소개했고, 평양시 청춘거리에는 '평양골프연습장'도 있다며 "골프연습을 시작하거나 골프장에 갈 시간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맞춤한 이곳 주변에 호텔들도 있어 사람들이 연습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임.

"北 올해 왕가뭄·수해에도 개인 소토지·뙈기밭은 풍년"(11/2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4일 양강도 소식통이 "노동신문에서는 왕가물(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와 주민들의 복구 작업 등에 연일 선전을 했지만, 특별히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가물과 장마가 쌀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협동농장 간부들은 말한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특히 개인 소토지나 뙈기밭의 경우 양수기나 물뻠쁘(펌프)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수차(水車)를 제작해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이것 저것 공을 많이 들인 소토지에서의 수확이 예년보다 좋아졌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고 덧붙임.
- 소식통에 따르면 협동농장은 평작인 가운데 개인 소토지에서의 작황이 풍년이 되면서 장마당에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개인 소토지에서 생산된 쌀이 개인 가정에서 소비되고 남은 쌀 등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현재 1kg당 쌀 가격은 평양 4,880원, 신의주 4,800원, 혜산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소식통은 "쌀 수확이 완료되고 현재 농장원들에 대한 결산분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특별히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국가 쌀은 우리 같은 백성들이 아닌 군대나 인민위원회 간부 등 평소에 놀고먹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처럼 주민들은 국가 농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쌀을 사먹거나 소토지를 통해 얻은 식량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함.

"北보안원, 북한돈·달러 환차익으로 막대한 돈 벌어"(11/2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4일 보도에서 인민보안부 소속의 평양 승차 보안서 간부들이 북한 지역 환율차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북한 전 지역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싼 지역에서 환전해 비싼 지역에 환전한 돈을 돈주들과 환전꾼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의하면, 보통 북한의 전 지역의 환율은 시장 및 장마당 내에서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북한 돈 500원 내외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구속도 없이 벌어들인 돈은 승차 보안서의 '기관자금' 명목으로 입금되기보다 관련 간부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면서 "일반 승차 보안원들은 환전벌이 보안원들 덕분에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의 이러한 환전행위를 잘 보조해 주고 있고, 열차 승객들과 열차 승무원들은 환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돈 동지'라고 부른다"고 전함.

북, 지역별 기름 값 차이 커(11/2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의 유류 수급사정이 전보다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따라 기름 값 편차가 크다고 25일 보도함.
- 평양 주민 소식통은 최근 "요즘에는 연유(휘발유)나 디젤유를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기름 값도 전에 비해 눅어져 써비차를 굴리면서 먹고 살만하다"고 전하였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역마다 기름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눅은 지역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디젤유의 경우, 신의주에서는 Kg당 0.7달러인데 평양에서는 0.57달러이고 연유(휘발유)는 이보다 0.25달러가 더 비싸다"고 설명함.
- 현재 휘발유 1kg은 약 1.4리터, 디젤 1kg은 약 1.2리터임을 감안하면 신의주의 기름 값은 리터당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각각 4.4위안과 3.7위안 정도로 중국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이에 소식통은 "국제 유가하락과 대부분의 기름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싼값으로 지원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름 값이 결코 눅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함.

北, 북한산 경공업품 우수성 찬양…'김정은 업적' 부각(11/26,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6일 '국내산 상품들로 인기를 끄는 평양제1백화점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화점 어느 매대나 국내산 상품들이 그득해 마치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방불케 했다"고 소개함.
- 매체는 가장 인기있는 제품들로 여성 대상 미용 상품을 소개하면서 '코스모스' 상표 머리빈침(머리핀), '봄향기', '은하수' 상표 고급화장품, '철쭉' 양말이나 류원신발공장의 신발, 경성도자기공장의 경질그릇도 많이 팔린다고 설명함.

- 이어 '릉라', '봄빛' 빵, '대동강병맥주', '평양소주', '랭천사이다', '강서약수'도 구입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것이 제일"이라 얘기한다고 자랑했으며, "원수님께서 경공업부문 공장과 기업소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찬양함.

전력난 북한, 전기 절약형 '조명용 스위치' 개발(1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작고도 큰 예비-조명용 자동지연 스위치'란 글에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조명용 자동지연 스위치를 설계 제작해 대대적으로 도입, 나라의 긴장한(빠듯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기사에 따르면 이 스위치는 소리·진동·빛 감지장치, 시간 지연장치, 조명등 구동장치,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은 "조명등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낮에는 빛을 수감(감지)해 조명등을 자동적으로 끄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 진동과 소리를 감지해 자동으로 켜고, 조명등이 켜진 때로부터 약 20초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고 작동 원리를 설명했으며 "수입산보다 가격도 눅고(싸고) 성능이 훨씬 개선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 이 스위치의 수요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임.

북, 관광객 유치하려 룡강온천 띄우기…"광물질 많이 함유"(11/27,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7일 '평화의 오아시스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이란 글에서 "브롬이온과 라돈이 함유된 룡강온천은 공화국(북한)의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 "룡강온탕원은 이 온천을 이용해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수술후유증,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피부병 등을 치료해 주고 있다"며 "건강증진에 특효가 있어 손님들의 각별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동포와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매체는 "룡강온천을 찾은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은 온천 주변 산과 바다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감탄해 세계자연보물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이곳을 찾은 스위스 관광객들도 "평화의 오아시스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 온천은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해 주는 하나의 낙원"이라 말했다고 선전함.

北돈주, 한 끼 식사 비용 무려 200$…"쌀 320kg 살수 있어"(11/27,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7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시는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동전 양면의 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며, 간부· 돈주들은 고급식당에서 한 끼 식사에 수백 달러 소비할 때, 일반 시민들은 시장 하루벌이로 살고 있는

빈부격차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광복거리 체육촌에 있는 '오리고기전문식당'과 '금컵식당' 등 이름 있는 고급식당에는 하루에도 오리훈제를 비롯한 각종 고급 요리식사를 하는 간부·돈주들이 넘쳐난다"면서 "이들의 식사비용은 일인당 최소 50달러가 넘으며, 4인 가족이 최소 200달러는 소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고, "200달러면 북한 시장 환율로 북한돈 160만원이 넘는데, 현재 쌀 1kg 가격이 5,000원 정도로써 이 돈이면 쌀 320kg을 쌀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 발표를 인용하여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범운송이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벌크선(4.5만t) 2척을 이용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t 운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컨테이너선(1만t) 1척을 이용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 운송은 도로 사정에 따라 미뤄졌다고 알렸으며, 이에 통일부 당국자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3사는 12월 5일까지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시작된 벌크선을 이용한 러시아 유연탄 운송은 이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점검단은 북측의 협조하에 애초 계획한 대로 석탄 운송의 안정성, 선박 2척 동시접안, 2차 시범운송 때 제기된 사항의 개선 여부 등을 점검했고 선박 2척 동시접안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함.

WFP "11월 북 65만 명 식량지원"(11/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다미안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여 WFP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65만 4천여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보도함.
- 킨 대변인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80만 명에 월평균 1만 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2013년 7월부터 올해까지 북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규모이지만, 국제사회의 모금 부족으로 지원 대상 세 명에 한 명꼴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9개 도 중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평가된 82개 군에 우선 지원했다고 설명함.
- 방송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주의 식량지원이 지난 7월 3천231톤 그리고 8월

3천785톤을 정점으로 지난 9월 2천105톤, 지난 10월 1천920톤, 그리고 11월 1천 820톤으로 세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2만 2천220톤 규모라고 전함.

- 김만유병원, 항균력 강한 '나노은(銀) 수술용 봉합사' 개발(11.23, 중앙통신)
- 전국 과수부문과학기술전시 및 발표회, 11월 2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11.26) 및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성과자료 90여건·80여점의 우수한 과일품종들 전시(11.24, 중앙방송)
- 온천화강석광산에서 화강석 2배 이상 생산 등 화강석광산들의 지난해 대비 '화강석 생산 혁신적 성과' 선전(11.24, 중앙통신)
-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24~25 평양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가정용 의료진단 및 치료지원체계 '명의원', 각지 정보기술교류소들에서 널리 판매 보급(11.25, 중앙통신)
- 평양건축종합대학, 공업폐설물로 건재품들 생산하는 방법 확립(11.25, 중앙통신)
-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5 폐막식, 11월 26일 곽범기(당 비서)·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 구소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전국 칠감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11월 25일과 26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평양에서 진행(11.26,중앙통신)
- 우주과학기술토론회, 11월 25일과 26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제5차 전국 술·기초식품 및 어린이 식료품전시회,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1.26, 중앙통신)
- 석탄공업부문 청년돌격대들, 연간굴진계획 120% 수행 및 석탄 증산에 주력(11.26, 중앙통신) 교육도서출판사 창립('45.11.25)
-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5일 진행 및 현광철(사장 겸 책임주필/보고) 등 참가(11.27, 중앙방송)
- 각지 「농근맹」 일꾼·농업근로자들, 11월 26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서 9종·수백그루 나무심기 진행(11.27, 중앙통신)
- 김책수산사업소 등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의 11월 물고기잡이 계획 123% 초과 수행(11.27, 중앙방송)
- 北 각지,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 마련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11.28, 중앙통신)
-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11월 29일 박영호(황해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진행(11.29, 중앙통신)
- 평양시에서 올해 150여개의 침전지 개건보수 등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11.30, 중앙통신)
- 평안남도 봉천탄광에 중거리 벨트콘베아 수송선 새로 건설 운영 및 '석탄 생산능력 1.5배 증가' 선전(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 장마당에 '주택 브로커'…이색 자영업자 속출(11/2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장마당에) 숙박 업주, 노래방 업주,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났다"면서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간(브로커)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1990년대 장마당 내 (판)매대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는 숙박업과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힘.

● "北주민, 겨울철 딸기·오이 하우스 재배로 수천달러 수익"(11/3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0일 평안남도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겨울철을 맞아 텃밭 온실에서 남새,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이 달러를 제법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겨울철 싱싱한 오이, 딸기는 돈주들에게 판매되는데, 특히 평양시 돈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돼 보통 겨울 한철 2천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특히 소식통은 "겨울철 온실 온도는 석탄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광지역 주민들이 주로 한다. 이들은 평양시장과 연계하여 딸기, 오이 등의 남새와 과일을 직접 도소매한다"면서 "현재 딸기 1kg 도매 가격은 북한 돈 1만 5천원(쌀 3kg 가격)인데, 설날이나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이면 가격이 두 배로 올라 '재쏘(러시아 벌목공)보다 더 좋은 외화벌이'로 통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시장에서 다른 상품은 외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겨울철 싱싱한 딸기, 오이는 돈주들의 수요가 높아 현금 거래만 할 수 있다"면서 "평양시에 돈이 많은 돈주들이 늘면서 싱싱한 남새와 과일을 먹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북, '외국소식 유포' 만수대TV 제작진 숙청"(1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7월부터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당국이 자본주의 황색 녹화물을 퍼뜨린 혐의로 만수대텔레비전 제작국을 지난 7월에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소식통은 "지금까지 방영된 만수대 TV 프로그램은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총국 산하 만수대 텔레비전 제작국이 편집해왔는데, 일부 직원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USB 기억기에 담아 빼돌린 것을 보위부가 적발하면서 사건이 터졌다"고 전했으며, 이에 "북한 보위부가 만수대 TV 제작국을 전격 조사했으며 주모자들을 숙청하고 감옥과 혁명화에 보냈으며, 가족들은 평양시에서 쫓아냈다"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북 수사기관, 돈 되는 사건만 다뤄(1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돈을 노린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회수금(압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골라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사건조사는 돈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어떤 강력범죄도 돈과 관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북한사법당국의 태도"라고 지적함.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자식들이 범인이 강탈했다 회수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도 검찰에서는 사건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며 수사착수도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피해자 측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를 대라"고 따지면서 회수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수사과정에서 당국에 압수된 돈을 다시 찾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강조함.

조선총련 前선전간부 "대북종속 끊으라"…집행부에 직격탄(11/24,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 연합뉴스는 24일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전직 간부가 대북 종속관계를 끊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총련 사회 내부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

-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히로시마(廣島) 지방에서 선전간부 등을 역임한 고충의(70·도쿄 거주) 씨는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총련 산하 상공회 70주년 기념행사때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원 귀환시킬 것, 모든 시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배포했는데, 이 제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할 것, 북한과의 종속관계를 끊기 위해 조직의 간부는 조선노동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을 것,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을 거쳐 사라진 방대한 자산의 행방과 그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짐.
- 신문은 또한 이 제언서가 북한의 납치 문제와 개인 숭배 등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죄를 쌓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배포하던 도중 회수돼 배포자 고 씨가 사실상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임.

북한 11월 비 많고 기온 높은 '이상기후'…"엘니뇨 탓"(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이달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많고 기온은 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엘니뇨 탓이라고 2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지난 1~20일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66.6㎜로, 평년(27.4㎜)의 2.4배이며 이는 북한이 기상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에 달하는데, 특히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과 서해안 북부 지방에서는 최대 330㎜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함.
- 통신은 이 같은 이상 기후에 대해 엘니뇨로 인해 아열대 고기압의 활동이 강화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북한 대부분 지역에 머물러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날씨 현상이 11월 말까지도 지속되고 겨울철에도 영향을 줘 날씨 변화가 우심해질(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함.

북 주민들 "김정은 옷차림 촌스러워"(1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해마다 겨울철을 맞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던 '장군님의 동복'이 요즘 들어 찬밥신세여서 "겨울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장군님동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장마당에서도 팔리지 않는다"고 보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겨울옷은 '장군님(지도자) 동복'이었다고 설명한 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입는 여름용 반팔이나 겨울용 잠바(점퍼)는 값이 비쌌지만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전하면서, 이에 반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주민들 속에서 '장군님 옷차림'은 점차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장군님 옷차림'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인기만을 생각하고 김정은 집권이후 그가 즐겨 입는 형태의 외투를 많이 만들어 놓았던 재봉공들은 옷이 팔리지 않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임.

● "북한국적 미국유학생 8명…작년보다 11명 감소"(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말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은 모두 8명으로, 2013~2014 학사연도의 19명보다 11명이 줄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무부 직원과 면담에서 미국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난 2000년에 201명을 기록한 이래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학술교류도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2015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종합 4위(11/3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15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으며, 남녀 각각 6명씩 총 12명이 출전한 가운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엄윤철 선수가 남자 56kg 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남자 62kg 급의 김은국, 77kg 급의 김광성, 여자 75kg 급의 림종심 선수가 은메달을 땄으며, 여자 63kg급의 최효심, 75kg 이상 급의 김국향 선수가 동메달을 보탰다고 덧붙임.

- 北 김은국 선수, '2015 세계역도선수권대회'(미국) 인상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 (1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자강도 통과(11.27,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12.01-12.06

12월

1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北, 당국회담 앞두고 지속 압박 “체제대결 종지부…” “南 대결관념 버려야”(12/4, 6)
- 종교계 남북교류 내년 더 활발해진다…이번주 사전접촉(12/1)
-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中 다롄서 개최(12/1)
- 北, 풍계리에 새 터널 굴착…추가 핵실험 준비 가능성(12/3)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 평화협정체결 위한 대화에 응해야”(12/3)
- 北 외무성 대변인, “테러·시리아 사태 책임 미국에 있다” 주장(12/5)
- 北, “인권문제 거론, 미국의 주요 침략수법” 주장(12/3)
- 北, ‘日 우주기본계획·위성발사’ 비난…“위험천만 망동”(12/2)
- 유엔 안보리 10일 북한 인권상황 논의…지난해 이어 두 번째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동화세계 같다”(12/1)
- 김 黨 제1비서, 북한 유명 축구해설가 리동규 조의(12/3)
- 김 黨 제1비서, 제4차 포병대회 참석…“형식주의가 최대 금물”(12/4)
- ‘신병치료’ 북한 황병서, 22일 만에 공개석상 등장(12/3)
- 미사일부대 총괄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대장 승진
- 北, ‘인공위성 100% 국산화’ 강조하며 선전

4. 경제

- 北, 협동농장 개혁 가능성 시사…‘관리기구 비효율’ 잇단 지적
- 북한 희천 1호 발전소, 장기간 전기 비생산
- 식량농업기구, 북한 ‘식량부족국가’ 지정(12/4)

5. 사회

- 北,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보장” 주장(12/3)
- 양강도, 폭설로 인한 교통 및 행정기능 마비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 당국회담 앞두고 "체제대결 종지부 찍어야" 압박(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정세론 해설에서 "체제대결을 종식시키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조건"이라면서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체제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체제대결 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며 "체제대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 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 반역행위로, 종당에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몰아오게 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오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북남 당국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서 "이것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함.

● 北, 당국회담 앞두고 "南 대결관념 버려야" 또 압박(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대결의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상대방의 성의를 색안경을 끼고 대하거나 이러저러한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북남 대화는 또 하나의 대결마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38노스 "풍계리에 새 터널 굴착"…추가 핵실험 준비 가능성(12/3, 38노스)

- 38노스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힘.
- 매체는 "당장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으나 새로운 터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행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에 굴착된 새로운 터널은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요 지원시설의 북서쪽에 위치한 새로운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무산산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매체는 지난 4월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구조물이 은폐돼 있었고 인근 하천을 따라 건설자재들이 놓여있었다고 밝힌 데 반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새로운 구조물이 공개된 가운데 자갈 등 상당규모의 부스러기가 놓여있고 건설자재들은 모두 치워져있다고 설명하면서 "건축자재들이 터널굴착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마. 남북 경제 관계

북한, 당국회담 앞두고 '금강산 관광' 부각(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겨레의 소원을 헤아려'란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정 회장의 금강산관광 개발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남녘 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민족의 화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었다"고 주장함.
- 이어 "김 국방위원장은 당시 금강산관광을 승인했을 때 북과 남에 두 제도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쪽에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함.
- 통일신보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을 위해 공화국(북한)은 바닷길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에까지 길을 열어주는 등 최대의 성의를 발휘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보수세력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구실로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느니 하며 관광재개에 계속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종교계 남북교류 내년 더 활발해진다…이번주 사전접촉(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보도를 통해 종교계 각 종단이 지난 11월 9~1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종교인평화대회의' 후속 조치로서 이번 주 개성에서 사전접촉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단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포함해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회 주교, 조환길 대주교, 이기헌 주교 등 17명으로 구성된 천주교 사제단이 1~4일 나흘간 북한을 방문하며, 이들은 1일 오전 9시20분에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뒤 평양을 비롯해 양측 교류가 가능한 지역들을 둘러보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이에 한국천주교 관계자는 "장충성당이 낡아 비가 새는 등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한국 측에서 재정지원을 비롯해 도울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中 다롄서 개최(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통일부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발표를 통해 남과 북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들이 오는 7~ 13일간 중국 다롄에서 편찬회의를 열어 겨레말큰사전 집필원고 중 2만여 개 단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뉴스는 이번 회의에 언어학자를 포함한 남측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관계자 23명이 참석하며, '남북 겨레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임.

● 북한, '겨레말큰사전 남북회의' 앞두고 "민족어 지켜야"(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4면의 관련 기사에서 "우리의 우수한 민족어를 지키고 적극 살려 쓰는 것은 조선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이라며 이렇게 밝힘.
- 신문은 "단일민족의 상징인 우리 말이 남조선(남한)에서 외래어에 의해 잠식당하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우리 말이 지금처럼 남조선에서 계속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족의 동질성을 지키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남조선에서의 외래어 사용 범람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국가보안법’ 제정 67주년을 맞아 ‘정권안보와 독재통치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온 파쇼악법’이라며 ‘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1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北인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관련 ‘北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北)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12.1, 중앙 통신·민주조선)
- 「직총」 중앙위 대변인 담화(12.2), 경찰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과 새누리당의 ‘복면시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용납 못할 파쇼적 폭거’라며 ‘파쇼폭압으로 얻을 것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고 비난(12.2, 중앙통신)
- 경찰의 ‘민중총궐기 집회’(11.14) 진압에 대해 ‘진보 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불순한 흉계의 발로’라며 ‘남조선 당국이 계속 반역정책과 파쇼탄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것’이라고 비난(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12.3), 남한 정부의 “파쇼탄압(경찰의 ‘민중총 궐기 집회’ 수사 등)으로 남조선은 인권불모지, 인권탄압지대”라며 ‘反정부 투쟁’ 선동(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한 공군의 ‘비상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훈련’ 실시(12.1, 경남 창녕)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북침 선제공격훈련’이라고 비난(12.3, 중앙통신)
- 남북관계 관련 ‘체제대결은 남북 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 반역행위’라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요구 및 ‘태도 여하에 따라 관계 개선의 길이 있다’고 주장(12.4, 중앙통신·노동 신문·중앙방송)
- 남한 당국자들의 대결관념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방해요인 이었다’며 남한 당국의 ‘反北 대결관념을 버리고 당국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나설 것’ 요구(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북핵 국제공조’ 강조(대통령,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등)에 대해 “쓸데없는 놀음”이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만 멀어지고 대결과 긴장만 고조되게 될 뿐, 우리(北)의 결심과 의지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對韓 THAAD 배치 필요성 등 정당화(11.25, 주한미군 사령관 등)는 “저들의 패권적 야망을 감추고 주변 대국들의 불만과 반발을 묵살시키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12.6,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 평화협정체결 위한 대화에 응해야"(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 근원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며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속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북미가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무장 해제해야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뒤섞어 놓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라고 덧붙임.
- 또한 대변인은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돼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테러·시리아 사태 책임 미국에 있다" 주장(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증에 휩싸여 있다"며 "이슬람교국가(IS)를 조작해내고 중동지역을 그들이 마음대로 살판치는 테러의 난무장으로 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최근 프랑스 파리와 말리에서 벌어진 테러, 러시아 여객기와 전폭기 격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민족간, 종교간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은 "국제적인 반테러 협력 분위기를 깨버리고 저들의 중동지배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의 산물"이라며 "시리아를 둘러싼 정세악화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우리는 테러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을 배격한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日 우주기본계획·위성발사' 비난…"위험천만 망동"(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우주에까지 뻗쳐오르는 재침 광기'란 논평에서 일본이 올해 초에 결정한 우주기본계획은 "우주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는 책

동"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성토함.

- 신문은 이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것은 도발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우주기본계획을 통한) 일본 반동들의 정탐위성 증가 놀음은 재침 준비의 완료 단계"라고 비판함.
- 또한 일본이 지난달 상업용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주에 침략적 군사위성을 마구 쏘아 올리면서도 우리의 평화적 우주 개발을 시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런 시비질은 일본이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활동을 위협으로 매도하고 우주로의 군사적 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의 일환으로 1998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을 때 일본은 그 무슨 '미사일 발사'니, '위협'이니 하며 못되게 놀아댔으며, 송금과 수출 제한 등 대조선(북한) 단독 제재를 강화해 우리에게 악랄하게 도전했다"고 밝히고 "세계는 일본의 재침 책동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인권문제 거론, 미국의 주요 침략수법" 주장(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도 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 모략소동'이란 정세론 해설에서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 허물'을 들추어내 비방 중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하며, "그 대상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들, 대미 추종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이라며 실례로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을 언급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북한)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 안보리 10일 북한 인권상황 논의…지난해 이어 두 번째(12/4,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와 관련 뉴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 유엔총회를 통과된 직후인 12월 22일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북 군사·청년 대표단 잇단 베트남행(12/1, 자유아시아방송, VNA통신)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베트남 국영 VNA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의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이 베트남 공산당 간부들과 만나 양국 청년단체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함.
- 통신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전날 하노이에서 하 티 키엣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나 호치민공산주의 청년연합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당시 면담에서 군사 분야뿐 아니라 학생 어학연수와 박물관 및 도서관 등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제도전복의 도구, 세계제패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세계도처에서 정치군사적 개입의 폭을 넓혀나가려 한다'고 비난하며 '대조선 인권소동의 파탄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12.1, 중앙통신)
- 리수용 외무상, 루마니아 국경절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12.1, 중앙통 신·중앙방송)
- 北 군사대표단(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 12월 1일 라오스와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마치고 귀환(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새 세대 일꾼대표단(단장: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위원장), 12월 1일 평양 출발(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일 라오스 창건 40주년에 즈음하여 同國대통령(촘말리 사야손)에게 축전(12.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리수용(외무상), 라오스 총리·외무상에게 축전(12.2,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임 주북 영국 대사(마이클 존 기포드)와 담화(12.2,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대표단(단장 :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11월 24일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에서 '공화국은 앞으로도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12.3, 중앙통신)
- '제2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진행하고 '北-美 평화협정체결 촉구 선언문' 채택(12.2, 중앙통신)
-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국제화·정치화 등 反北 인권모략 소동'은 "조선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군사적 힘으로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 입장 不變' 강조(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베트남 방문 중인 北 최고검찰소 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2월 2일 베트남 주석(쯔엉 떤 상) 면담(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전용남 위원장), 12월 3일 라오스 ·베트남 방문 후 귀환(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 학생소년 예술단(단장: 신길웅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교장), 12월 3일 평양 도착(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용학 駐네팔 북한 대사, 同國 대통령 예방하여 '김정은 인사' 전달(12.4, 중앙방송)
-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첨예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범죄적 결탁'이라며 '핵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 핵전파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12.5,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5일 태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부미볼 아둘리아데지)에게 축전(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과 일행, 12월 5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의'(프랑스 파리) 참가 차 평양 출발(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안동춘 부의장), 12월 5일 '아시아의회 회의 제8차 총회'(캄보디아) 참가 차 평양 출발(12.5,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동화세계 같다"(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며 흡족해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화강석과 고급 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 자태가 품위 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며 "마치 동화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다"고 평가하였음을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우리 학생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라며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후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당에서는 천만 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임.
- 통신에 따르면 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로켓 '은하3호'의 모형이 설치된 과학홀, 서예와 가야금, 성악 등을 배울 수 있는 예능동,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수영관 등 체육 시설, 야외 자동차 운전실습장 등이 들어섰으며, 이번 시찰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리일환 당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수행함.

● 北유명 축구해설가 리동규 사망…김정은 조의(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유명 축구해설가인 리동규 체육과학원 부원장이 79세로 사망했다고 3일 보도했으며, 구체적인 사망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교수 박사인 체육과학원 부원장 리동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3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10월 김정은 시찰 앞두고 갈마비행장에 폭발물"(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방송은 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6일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튿날인 7일로 예정됐던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함.
- 방송은 "폭발물은 갈마비행장 내 안내소 천장에서 발견됐으며, 광산의 갱도 굴착에 사용하는 200g의 폭발물 100개가 든 폭약 상자였다"며 "폭발물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앞두고 국가안전보위부가 현장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전함.
- 이후 보위부가 폭발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보위부의 현장 보존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비행장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은 제4차 포병대회 참석…"형식주의가 최대 금물"(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제4차 포병대회에 참석해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경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인민군의 각급 포병부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지휘관, 정치 일꾼들과 군사학교 일꾼들이 모인 포병대회 연설을 통해 "포병 무력은 인민군대의 화력타격의 기본 역량"이라며 "포병 부대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 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모든 포병 부대와 구분대들이 경상적인(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적들이 우리(북한)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에 멸적의 포화를 들씌워야 한다"고 주장함.
- 이날 행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수행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제4차 포병대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정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주석단에서 같은 열에 앉은 모습을 보도하였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박정천(파란색 동그라미) 화력지휘국장이 차례로 앉아있었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대북 소식통 "황병서, 신병 치료차 中 방문했었다"(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신병 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하면서, 이에 소식통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신병 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며 "신병 치료 이후 지금은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음을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황병서는 원래 척추가 안 좋아서 척추 수술을 받으려고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간부들은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임.
- 뉴스는 황 총정치국장이 '8·25 합의' 때 우리 군이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제거한 공로로 최근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된 점을 고려할 때 신병 치료를 마친 뒤에는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함.

● ‘신병치료’ 북한 황병서, 22일 만에 공개석상 등장(12/3,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122호 양묘장 현지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22일 동안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이번 시찰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시찰에 황 총정치국장 외에 오수용 노동당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이날 122호 양묘장의 묘목온실, 야외재배장, 비닐박막 온실재배장 등을 돌아본 뒤 “산림복구전투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1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푸른 숲 우거진 조국산천의 내일을 생각하며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꿔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지금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해 전진하는 지식경제시대”라며 “122호 양묘장을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적인 양묘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리자”고 강조함.

● 北, 미사일부대 총괄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대장 승진(12/3, 조선중앙TV; 12/4,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군사교육 일꾼 대회’에 참석한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 사령관이 별 4개가 달린 대장 견장을 달고 나온 모습을 내보냄.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김락겸은 지난해 2월 상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번에 1년 10개월 만에 대장으로 초고속 발탁됐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노동신문 “인공위성 100% 국산화” 억지주장 반복(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내 조국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한층 더 다져준 의의 깊은 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25~26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열린 우주과학기

술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세계를 둘러보면 우주에 자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100% 국산화된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라며 지금까지 발사한 인공위성들이 100% 북한제 부품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가장 극악한 제재 속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전 속에서 가장 엄혹한 강추위와 눈 속에서 위성발사를 성공한 실례를 아마 인류는 찾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 ″최첨단 과학기술과 경제력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켓 제작, 정확한 궤도 진입 등을 통해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얼마만한 높이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별지도(星圖), ‘공중제비’ (tumbling) 기술 등이 북한의 우주개발 능력을 입증한다고 강조함.
- 이어 “100% 국산화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로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꽉 채워갈 만만한 포부와 야심이 자자구구마다 어려 있는 토론들을 듣노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 오르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 장면들이 다시금 밟혀왔다”고 덧붙임.

- 오늘 동해의 물고기대풍은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인민군대의 결사옹위·결사 관철정신의 분출’이라며 사회의 수산부문 일꾼들은 ‘인민군대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높은 물고기 잡이 성과로 黨 제7차 대회를 맞이할 것’ 독려(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3일 故 리동규(체육과학원 부원장) 빈소에 조화 전달(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 12월 3일 ‘黨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 및 박태덕(황해북도 黨 책임비서)·임훈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석(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내각, 12월 4일 2015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을 위해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일성父子의 모자이크 벽화와 동상, 나선시·평안남도·황해북도 등 수많은 단위들에 건립(12.4,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만수대창작사·중앙미술창작사·평양미술대학, 黨 제7차 대회에 즈음한 선전화들 새로 창작(12.4,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협동농장 개혁 나서나…'관리기구 비효율' 잇단 지적(경제연구, 10/30; 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일 입수한 '경제연구' 2015년 4호(10월30일 발행)에 수록된 '현시 기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라는 글에서 북한 당국이 농업 경영의 자율화·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 글이 "협동농장 관리운영에서 농업근로자대중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와 요구,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창발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생산경영 활동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적 방법을 완성해야 하고 구체적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기업관리 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음을 밝힘.

나. 주요 조치

● 北, 내년 당 대회 앞두고 또 '속도전'…"통치자금 목적"(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방직공장의 정방공 150명이 연간계획을, 15명이 2년분 계획을 완수한 것을 비롯해 각지에서 계획 완수자들의 대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한 달 정도 걸려야 할 백두산영웅청년3호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선행 설비 생산을 10여 일 동안에 제작하는 성과가 이룩됐다"고 전하면서 "7차 당 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조선 인민의 사상·정신적 풍모 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어로전투' 연일 강조…"식량난 수산물로 보충"(12/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4일 4면에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펄펄 휘날려가리', '동해 어장으로 달리는 애국의 마음들', '어로 전사들의 심장의 맥동을 더해 주며'라는 제목의 기사를 4개나 실었으며, 조선중앙통신도 4일 '조선(북한) 동해어장에서 겨울철 물고기잡이를 위한 어로전 전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냄.
- 매체는 기사에서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돛을 단 이들은 날바다와 싸우며 어장마다 치열한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을 기한 전에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북, 내년 달력 중국서 인쇄(12/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변경도시의 무역회사 간부소식통을 인용하여 "내년도 북한달력이 12월 중순은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예년에 비해 새해 달력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기사정이 여의치 못해 내부에서 인쇄를 하다가 중지하고 뒤늦게 중국의 인쇄 공장에 맡겼기 때문"이며, "이 같은 (북한내부) 사정 때문에 내년도 달력은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북한 대방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소식통은 "목란 비디오에서 제작하는 영상물 CD 알판도 중국에 의뢰해서 제작해 들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도 역시 북한의 열악한 전기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수도인 평양의 중심지역도 하루 잘해야 3시간 정도, 변두리 지역은 1~2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양수기를 돌릴 수 없어 수돗물도 지역마다 교대로 제한공급하고 있다"고 전함.

북 '희천 1호발전소' 전기 생산 없어(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최근 평양을 방문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당창건 70돌이 되는 10월 10일에 희천 1호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조명용으로 공급된다고 간부들이 큰 소리 쳤는데, 또 빈소리가 되었다"면서 "평양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주변구역에는 다른 발전소에서 제공되는 전기가 하루 3시간 정도 오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인민군대 수만 명을 동원해 겨우 완성한 희천 1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면서, "군사시설이 빼곡히 들어선 용림지구에 언제가 건설된 것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함.

라. 대외 경제 관계

"북한, 올해 중국서 수입한 곡물량 작년 보다 71% 감소"(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의 양이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쌀, 두류 등의 곡물량은 4만 2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4천t)보다 71% 줄었다고 전함.
- 이와 더불어, 방송은 이 기간 곡물 수입액이 2천 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으며,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5만 4천646t)보다 41% 감소

한 3만 2천315t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같은 수입량 감소에도 북한의 곡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북한-태국 올해 무역 28% 감소"(1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3일 코트라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태국 간 무역 금액이 6천 276만 달러(730억여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 770만 달러(1천 20억여 원)보다 28.4% 줄었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는 고무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북한 수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며, 올해 들어 9개월간 태국의 북한 수출은 5천 697만 달러(662억여 원)로 작년 같은 기간 7천 815만 달러(909억여 원)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태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목은 고무와 과일류, 철광 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금속제품, 섬유류였는데 2015년 올해 태국의 대북 수입은 39% 가량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식량농업기구, 북한 '식량부족국가' 지정(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란 제목의 올해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33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곡물량 36만t 가운데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14만 2천t에 불과해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 비치는 수준이라고 보도함.
- FAO는 "북한은 올해 초 가뭄으로 봄 작황이 줄었고 여름의 홍수로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농지가 물에 잠겼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설명하였고,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 26개국과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국가 7곳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되었다고 전함.

英여행사 "내년 10월 평양서 국제아마추어 골프대회"(12/4, 연합뉴스)

-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4일 인터넷 웹사이트(www.northkoreanopen.com)를 통해 "2016년 북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다"며 "대회는 첫날 참가 선수들이 연습하고, 둘째 날에 정해진 라운드의 스코어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이 여행사가 남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고, 대회 참가비는 1천159달러(134만원)이라 설명했다고 전함.

-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효능 높은 '가금병 예방약들'(백신) 개발 선전(12.2, 중앙통신)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연간 석탄 생산계획 완수(12.2, 평양방송)
- 평안북도 여단 등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원들의 3호 발전소 건설 성과 및 수산부문 일꾼들의 11월 물고기잡이 계획 123.8% 초과 수행 선전(12.3, 중앙방송·노동신문)
-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의 '수십개 대상 신축·증설, 개건공사로 모든 공정 자동화·무인화 및 생산 현장 무균화·무진화 실현' 등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어린이 식료품 생산기지로 전변" 선전(12.3, 중앙통신)
- 2015년 전국 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12.2~4 평양에서 진행(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동해어장, 겨울철 물고기잡이를 위한 어로전을 전개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들을 잡고 있다고 선전(12.4, 중앙통신)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100.1%로 완수(12.4, 중앙통신)
- 자강도 임업관리국, 겨울철 통나무 생산계획을 106%로 수행(12.4, 중앙방송)
- 각지 4.15기술혁신돌격대, 6만 3,000여 건의 기술혁신안 연구 도입(12.5, 중앙통신)
- 평안북도 106% 등 전국 수산부문의 11월 30일까지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 103.7% 초과 수행" 선전(12.6,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보장" 주장(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소속 리 광은 이날 유엔 지정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시종일관 장애자(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8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결성됐고, 2013년 수정·보충된 '장애자 보호법'에 따라 북한 내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함.
- 또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청각장애인축구팀의 호주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 '평양 장애자교류단'의 영국과 프랑스 순회 공연 등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성과로 열거하며 "장애자 직업기능공학교

를 졸업한 장애자들이 취미와 희망에 따라 이발과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 작업 등 노동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양강도, 폭설로 행정기능 마비(12/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25cm 가량의 눈이 왔다"며 "운흥군과 백암군 일대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교통, 통신이 모두 단절됐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갑자기 내린 폭설과 한파로 땅바닥은 발을 옮겨 딛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각 지역으로 연계된 전화망도 불통이어서 지역별로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각 인민반별로 주변의 도로와 철길에 내린 눈들을 쳐내고 있지만 워낙 내린 눈의 양이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생계활동에 나서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2일 열린 유네스코의 제10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김치 담그기 풍습'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보도함.

- ‘세계 에이즈의 날’ 즈음 행사, 12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 중앙통신· 중앙방송)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월 1일 빙상관에서 진행(12.1, 중앙통신)
- 北 선수들(2015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참가, 金4·銀9·銅5), 12월 3일 귀환 및 김용진(내각부총리)·김수길(평양시黨책임비서)·김영훈(체육상)·최영남(인민봉사 총국장) 등 평양역 出迎(12.3, 중앙방송 ·중앙통신)
- ‘국제 장애자의 날(12.3)’ 기념모임, 12월 3일 강하국(보건상) 등 참석한 가운데 김책 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12.3,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11월 27일 평안북도 향산군 도착(12.5, 중앙통신)

12.07-12.13

12월

2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당국회담 北대표, 회담당일 방송서 '이산상봉' 언급(12/11)
- 당국회담 개시…南 "첫 길 잘내자", 北 "대통로 열자"(12/11)
- 北, 회담 당일에도 "南대결망동으로 전망 우려" 압박(12/11)
- 北매체들, 남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떠넘기기(12/13)
- 北, "지금 상태선 당국회담 성과 기대 어렵다" 또 압박(12/9)
- 백두산 생수, 중국→北 나진항 거쳐 부산항 도착(12/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단호히 규탄(12/12)
- 北, '美 전략적 인내' 정책 비난…"완전한 실패작" 억지(12/8)
- 北 모란봉 악단, 12/8 중국 친선방문…'훈풍' 북중관계 반영
- 北 모란봉 악단, 12/12 돌연 귀국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서 "수소탄 폭음 울릴 핵보유국" 발언(12/10)
- 김 黨 제1비서, 5월9일 메기공장 시찰…"본보기 공장"(12/12)
- 北 관료들, 싱가포르서 MBA 연수(12/9)
- 北, '김정일 4주기' 띄우기 총력…代 이은 충성 유도(12/7)
- 北, 당 대회 앞두고 새 우표도 제작…'김정은 치적' 선전(12/9)
- 北,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최상으로 보장" 선전(12/10)
- 北 TV '윤봉길 의거' 방영…"김일성 노선 정당 논증" 주장(12/10)

4. 경제

- 北, 구월산에 무선원격 산불감시체계 운영
- 北, 리수용 "김정은, 삼림 파괴와의 전쟁 선포"
- 태국, WFP 대북지원사업에 26,000 달러 지원
- 北, 25년 만에 '재정은행 대회' 연다…1990년 이후 처음
- 식량농업기구 "북한 산림 복구에 15만 달러 지원"

5. 사회

- 北, '소년장수' 모바일 게임 인기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당국회담 北대표, 회담당일 방송서 '이산상봉' 언급(12/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오전 7시(평양시간) 황 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업적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면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과 같이 삼천리강산을 통일열기로 끓게 하고 온 겨레의 가슴을 조국통일에 대한 환희로 부풀게 하는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방송함.

● **北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회담 결실없어" 주장(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며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하여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지금 상태선 당국회담 성과 기대 어렵다" 또 압박(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이중자세, 양면술책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세를 놓고 보면 북과 남이 회담장에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형편이 못된다"면서 남한에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룩하고서도 그에는 아랑곳없이 동족대결 소동을 계속 악랄하게 벌려놓음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심히 해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는 것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신문은 "아무리 훌륭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정신에 배치되게 대화 상대방을 불신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파국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임.

北매체, 회담 당일에도 "南대결망동으로 전망 우려" 압박(1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대화 타령과 상반되는 도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화 타령만 늘어놓을 뿐 분위기 조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남한에서) 반공화국 대결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회담 전망을 우려케 하는 요인"이라며 압박함.
- 신문은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전례없이 외세와의 북핵공조 나발을 요란스레 불어대는가 하면 북 인권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중지하고 대화와 관련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는 것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함.

北매체들, 남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떠넘기기(12/13,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비방중상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은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며 남한을 비난함.
- 이 매체는 "얼마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유네스코에서의 특별연설이라는 데서 그 누구의 핵위협과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요인'이라느니 뭐니 하고 요란스레 떠들어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말과 행동을 심중하게 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도 '제1차 북남당국회담, 합의 도출을 위한 북측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개성발 기사에서 "남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입장과 태도로 하여 회담은 결실없이 끝났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남측은 (회담 기간)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지난 시기 온 겨레의 관심속에 진행되여 북남관계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온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도 끝까지 외면하였다"며 우리 측을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당국회담 개시…南 "첫 길 잘내자", 北 "대통로 열자"(12/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에서 11일 오전 10시40분에 시작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1차 전체회의가 30분 만인 11시10분에 종료됐다고 보도함.
- 뉴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북측 수석 대표(단장)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어제 내려와서 개성 시내를 돌아보면서 사업을 생각했다"며 "역시 겨울이니까 날씨는 차긴 찬데 어떻든 북남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풀어가자. 겨울이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게끔 쌍방이 잘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백범 김구의 애송시로 알려진 '야설'(野雪)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1차 당국회담이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자"고 화답했다고 전함.

- 전 단장은 이에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 걸음을 잘 떼야 앞으로 남북관계도 새해를 맞는데 전망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지금 거의 8년 동안 회담이 없었다. 그 사이 고위급 긴급접촉 등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특례적인 경우였고, 사실상 본격적인 북남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그래서 그간 불신과 대립이 골수로 깊어지고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 골수를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하였고, 황 차관도 동의하며 "차근차근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음을 뉴스는 전함.

남북 당국회담 결렬…차기 회담 일정도 못 잡아(12/12,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였다"며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함.
-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
-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38노스 "북한 서해발사장 증축 완성단계"(12/10, 연합뉴스, 38노스)

- 연합뉴스는 38노스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로켓 발사대의 새 추진체 저장 벙커와 엔진 시험용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며 "이는 지난 약 3년간 진행된 증축공사가 완성단계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음을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같은 전망이 38노스가 지난 10월 24일과 지난 11월 27일에 각각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의 판독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고 전하면서, 이에 38노스가 지난 9월부터 새 추진체 저장용 벙커 공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임.
- 또한 38노스는 이런 공사들이 "전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추진력의 로켓엔진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엔진 시험 구조물과 추진체 저장용 벙커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이처럼 로켓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만약 지도부가 결정한다면, 우주 로켓 발사를 포함한 추가 활동을 동창리 발사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북, 침투용 잠수함 7척 건조(12/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함경도의 소식통이 "올해 초부터 청진조선소에서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침투병력 수송용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며 "당 창건 70돌이었던 지난 10월까지 7척의 잠수함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소식통은 "청진조선소에서 만드는 잠수함은 길이 40미터, 폭 4미터에 항해사(승조원) 9명과 전투원 3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수심 60미터에서 최대 80시간 이상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무장으로는 어뢰 4발이 전부인데 더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 기계설비들을 극도로 간소화였고 잠수함을 만드는 강판은 전부 러시아제, 잠수함 엔진은 독일제라고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백두산 생수, 중국→北 나진항 거쳐 부산항 도착(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일 보도를 통해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중국 옌볜에서 생산된 생수를 싣고 북한 나진항에서 출항한 6천600t

급 일반 화물선 뉴글로벌호가 7일 오전 9시55분 부산항 신항 제4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배에는 농심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의 백두산 지역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 10개 분량(170t)의 백산수가 실림.

- 뉴스는 백두산 생수가 얼다오바이허에서 훈춘의 포스코현대 물류단지, 북중 육로국경인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거쳐 북한 나진항으로 옮겨진 뒤 나진항 3호 부두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다고 전하면서, 뉴글로벌호가 하역작업을 마친 후 7일 오후 6시께 북한 원산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이번 나진-부산 노선은 생산공장에서 나진까지 차량으로 250㎞, 부산항까지 선박으로 950㎞로, 기존 노선보다 800㎞가량 거리가 단축됐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국회 여·야당의 '北 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관련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과 남 사이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저명한 사실'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
- '韓美 연합 도하훈련'(12.1~10, 경기도 연천군 일대) 실시 관련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며 '북남당국회담을 눈앞에 두고 전쟁 불장난 소동을 벌려 놓은 것은 이번 회담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뚜렷이 실증해 줄 뿐'이라고 비난(12.11, 중앙통신)
-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12.5, 서울)는 '보수당국의 참을 수 없는 폭압에 대한 항거의 필연적 맞작용이며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응당한 단죄'라며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도 단결된 인민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고 주장(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유럽순방에서의 발언(北,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등)에 대해 '히스테리적 광기'라며 '남조선 집권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처신을 바로 해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비난(12.11, 중앙통신·민주조선)
- '제1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2.7~8, 서울) 개최 관련 '정치 협잡꾼들의 너절한 가장무도회'라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군비경쟁, 핵전파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과 남조선'이라고 비난(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착수 언급에 대해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 분위기에 배치된다"며 '단호한 대응조치' 강조(12.12,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단호히 규탄"(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작년에 이어 또 논의한 데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함.
-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에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안보리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침략행위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는 기관이지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과 관련된 문제는 권능(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권능 밖의 일에까지 간참(간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가 제소한 미국의 특대형 고문만행과 침략적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문제들부터 취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올해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를 계기로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북한, '美 전략적 인내' 정책 비난…"완전한 실패작" 억지(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은 흉심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란 정세론 해설에서 "2009년 제1기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후 몇 달 만에 대조선(북한) 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 온 것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며 "미 행정부의 이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책 혁신메모' 를 인용해 "조선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쳤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조웰 위트 미국-코리아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토론회에서 북한의 붕괴를 통해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함.
-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은 우리(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제넘게 줴쳐대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해칠 망상만 하고 있다"며 "미국이

흉심을 버리지 않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지역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중국 신임 대외연락부장, 북한 지재룡 주중대사와 회동 (1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중국 공산당의 쑹타오 중앙 대외연락부장과 북한의 지재룡 주중 대사가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대외연락부는 쑹 부장이 이번 회동에서 중-북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방송은 쑹 부장이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한 친서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지재룡 대사는 세대를 이어 중-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굳은 의지라고 강조했음을 전함.

● 北대표 악단들, 중국 친선방문…'훈풍' 북중관계 반영(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10일부터 15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친선 방문해 공연을 진행한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친선 방문은 조중(북한과 중국)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모란봉악단, 베이징공연 직전 전격 취소한 듯…귀국 중(12/1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든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이 12일 베이

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수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北이 앙코르와트 옆에 지은 박물관, 12월 4일 개관(12/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우방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전경화관'이 지난 4일 개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개관식에는 쏙 안 캄보디아 부수상을 비롯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함.
- 북한이 공사비 1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 9천만 원)를 들여 세운 이 박물관은 앙코르와트에서 3㎞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박물관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길이 120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됐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임.

- 美 1기병사단 소속 1기병여단 병력(4,500여명) 南 순환배치 관련 '끊임없는 무력증강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만을 몰아온다'며 주한미군 무력 철수 요구(12.7, 중앙통신·평양방송)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장애'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국무부가 일본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 매각 결정에 대해 '일본을 아시

아 침략정책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긴 반평화적 범죄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참혹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12.8,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단장: 전기철 국장), 12월 8일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 참가 후 귀환(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최고검찰소 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2월 8일 베트남 방문 후 귀환(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방위상의 對北 미사일위협 대비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도입 검토 구상 표명을 "군사대국화 전략 실현의 한 고리"라며 이를 실행할 경우 '교전상대측의 1차적 타격목표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12.9,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식 가치관과 인권기준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위험천만한 인권말살 행위"라고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北인권문제 제기 등)" 비난 및 '인민대중의 인권옹호 투쟁' 강조(12.9,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미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합의 관련 '美-日 사이의 군사적 공모결탁이 더욱더 노골화되어 보다 침략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지역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美-日 군사동맹 강화에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2.11, 중앙통신)
- 미국의 '北 위협론' 주장의 속심은 '공화국을 압박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형성해 보자는 데 있다'며 '미국이 우리(北)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것만큼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의 강화·발전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역사왜곡 서적(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전면 부정)을 美 학자·전문가들에게 배포 관련 '도덕적 저열성과 파렴치성의 극치'라며 '전대미문의 피비린 범죄 역사의 진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영원히 덮어버릴 수 없다'고 비난(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제군사체육이사회 위원장(압둘하킴 모하메드 이싸 알샤누)과 일행, 12월 11일 평양 도착(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은 국제사회의 '테러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은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국가테러행위와 인권유린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미국의 반테러전 不許' 주장(12.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12월 9일 아시아 의회 회의 제8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정전협정→평화협정 교체, 연방제통일' 강조(12.12, 중앙통신)
-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北 대사(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통일당 대회 참가), 12월 10일 주재국 전국 말라이통일당 위원장 면담(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동력성 대표단, 12월 12일 귀국(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수소탄 폭음 울릴 핵보유국"…당국자 "수사적 의미"(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 나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사적지를 둘러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날 시찰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설명함.

● 북한 김정은 메기공장 시찰…"본보기 공장"(1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9일 메기공장'을 1년 만에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한 해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공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 우리나라 양어 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치하함.
- 그는 "양어 부문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인다면 우리나라(북한) 양어 부문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와 조용원 노동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 관료들, 싱가포르서 MBA 연수(12/9,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포스트)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싱가포르의 대북교류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경제 및 경영 관료 12명이 싱가포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회계, 재무, 인적 관리 등을 포함한 소규모 경영전문대학원 과정 연수(mini MBA)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관료 및 전문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초청돼 온 전문가 또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강사진에게서 교육받았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회사들도 방문해 견학 학습도 마쳤다고 전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은 북한인들이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 주선이 더 수월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 익스체인지가 2007년부터 선진 경영과 경제를 교육해 온 북한 관리들만 해도 이미 1천명이 넘는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관료들이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연수를 받아왔고 특히 싱가포르가 교육 관련 외의 분야에서도 북한 교류와 관련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일 4주기' 띄우기 총력…代 이은 충성 유도(12/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4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에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면서 멕시코에서 김 위원장의 저서에 대한 독보회(교양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정책과 시사 문제를 해설하는 소모임)가, 페루에서는 관련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슬로베니아에서는 사진 전시회가 각각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주기(12월17일)를 열흘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총력전을 펼침.
- 통신은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 멕시코, 덴마크 등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회고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소개하였고, 이란신문인 '이란뉴스'와 홍콩잡지 '국제연계'에 김 위원장의 업적을 담은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한 특집 기사가 실렸다며 이들 매체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영도자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7일 사설을 통해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우상화하였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 실현된 부강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천하 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기운차게 일어서기)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아가자"고 촉구함.

北, 당 대회 앞두고 새 우표도 제작…'김정은 치적' 선전(1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조선우표사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2016년에 즈음해 발행하게 될 새 우표 도안들을 창작해 내놓았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조선우표사는 여자축구 대표팀의 2015 동아시안컵 우승, '물고기 대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가한 어획량, 산림복구 활동,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주제로 복수의 그림을 새 우표들에 넣을 예정이며, 또한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성과물'로 선전하는 평양국제비행장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의 모습을 담은 우표첩을 발행할 계획임.
- 이어 방송은 "우표와 우표첩이 발행되면 당 제7차 대회를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 추동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함.

북한,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최상으로 보장" 선전(12/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0일 '세계인권선언과 세계인권의 날'이란 글에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8일 청소년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준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설을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사랑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치켜세움.
- 우리민족끼리도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보는 판이한 인권상황'과 '인권이자 국권이다'란 글에서 "공화국은 창건의 선포와 함께 인민 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왔다"며 "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펼치는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에 의해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며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우리나라(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고 한결같이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나라'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고 선전함.

北 TV '윤봉길 의거' 방영…"김일성 노선 정당 논증" 주장(12/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지난 9월(부터) 조선중앙텔레비죤(TV)은 윤봉길 렬사(열사) 의 의거를 내용으로 한 텔레비죤 소개 편집물 '렬사가 남긴 교훈'을 방영했다"면서 "현재까지 3차 방영된 텔레비죤 편집물은 지금도 전국 각지의 시청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편집물이 일본에서 윤 의사의 유해가 발굴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26분짜리 영상이며,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윤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리 철 실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작자들은 력사(역사) 학자들

의 도움을 받으며 많은 자료들을 고증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신문은 "편집물은 테로(테러)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민 항쟁으로써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조국해방 로선(노선)과 업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논증)했다"고 주장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참석도 거론하면서 "리승만(이승만)을 비롯해 친미, 친일주구, 사대 매국노들로 조작된 남조선 정권은 그 무슨 법통을 운운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비난함.

북한, 당국회담 당일에도 '금강산 관광' 띄우기(12/11,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11일 '푸른 옥에 핀 꽃, 천하명승 금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산악미와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절경을 한 곳에 모아놓은 명승의 집합체"라고 금강산 산세를 치켜세움.
- 매체는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 사시절 시시각각 아름다운 천태만변 금강산은 오랜 력사(역사)를 거쳐 내려온다"면서 "한 번 보고 금강산의 모든 경치를 다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고 선전하였고, "조선의 금강산은 으뜸가는 천하절승(천하절경)으로서 민족의 제일명산이며 세계적인 명산"이라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다 합치면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들의 높이를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함.

- 김정일 사망 4주기 즈음 '김정일 동지를 영도자로 높이 모시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긍지 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올 수 있었다'고 인민사랑과 선군혁명 영도업적 등을 칭송하며 '김정은 영도 따라 인민의 낙원,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주장(1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北)의 승리와 번영의 길은 "주체의 한길, 자립의 한길뿐"이라며 全民은 '우리식, 우리 힘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자'고 독려(12.9,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2.10, 중앙통신)
- 北,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호소문에 온 나라 노동계급이 열렬히 호응해 나서고 있다고 선전(12.10,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한" 일꾼-근로자들 에게 「감사」 전달(12.13, 중앙방송)
- 김정일(원산군민발전소)·김정은(류경원·갈마식료공장) 현지지도 표식비 각각 건립 및 준공식 진행(12.12,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선전매체 "구월산에 무선원격 산불감시체계 운영"(12/7,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7일 '우리 식의 산불방지용 무선원격 감시체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국토환경보호성 해당 부문 일군(일꾼)들과의 긴밀한 련계(연계) 밑에 산불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무선원격 감시체계를 세웠다"고 전함.
- 매체는 "산불 감시에 편리한 산봉우리에 송상(送像)카메라(영상전송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송상카메라의 전기는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해(이용해) 해결하고 있으며 지령실은 송상카메라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군산림 경영소 양묘장에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어 "지령실에는 송상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수십 리 구간의 산림 자원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설비들이 갖춰져 있고 이 설비들 역시 태양빛전지판을 이용해 전기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매체는 "지난 기간에는 산불이 나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며 "해당 지역의 방화대 력량(역량)을 신속히 기동시켜 산불이 번져지기 전에 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였고, 황해남도 은률군이 무선원격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함.

● 북한 리수용 "김정은, 삼림 파괴와의 전쟁 선포"(1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라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함.
- 방송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리 외무상이 이날 각국 대표단에 이같이 밝히면서 지구 차원의 환경 보전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하였음을 보도함.
- 리 외무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삼림 파괴와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고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다음 10년여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나무심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러한 조치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7.4%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임.

노동당, '돈줄' 지방 무역국 흡수(12/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아 김정은 제1비서를 '인민의 지도자'로 치켜세우기 위한 건설 공사에 내부 원천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함경남도 소식통은 "현재 각 도별로 애육원과 육아원, 경로원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도당은 인민위원회 무역국을 자기 산하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광물 등 수출원천을 당과 군대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 무역국이 다루는 수출원천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무역국이 버는 외화도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함.

다. 경제 상황

북, 미래과학자거리 아직 미완성(1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2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방문을 한 데 이어 11월 3일 준공식을 가진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과학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9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함.
- 소식통은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은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고, 외부공사와 상업시설 공사는 끝냈지만 과학자들이 입주해야 할 아파트는 이제야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11월 3일의 준공식 때 내부공사까지 완공된 아파트들은 53층으로 된 '은하'와 '과학중시', '주체화' 아파트를 비롯해 8개 동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개 동은 외부공사만 끝냈을 뿐 내부공사를 겨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밝힘.

라. 대외 경제 관계

태국, WFP 대북지원사업에 26,000 달러 지원(12/9, 미국의소리, 타스통신)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이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만 6천($25,617) 달러를 기부했음을 밝혔다고 9일 보도함.

- 방송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태국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식량 지원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으며,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세계식량계획의 타이모 소장은 타스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고,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천 780만 달러지만, 지난 6일 현재 모금액은 8천 90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1~10월 미-북 교역, 지난해 대비 79% 감소(12/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60만 달러($4,593,00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음을 9일 보도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21,900,000)의 21%에 불과 하다고 전함.
- 방송은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인데,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85%가 넘는 390만 달러($3,942,000)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함.

식량농업기구 "북한 산림 복구에 15만 달러 지원"(12/1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15만 달러(1억 7천 700여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으며, 이에 더글라스 맥과이어 FAO 산림위원회 정책조정관이 "산림경관 복원 메커니즘(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운영위원 회가 지난 7월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산림 복구 사업은 내년 초쯤 북한을 방문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방송은 맥과이어 조정관이 "북한 당국자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FAO는 산림 정책 고문관을 고용해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의 산림 복구 사업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음을 보도함.

러 에너지부 차관 방북…"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 예정"(12/10, 타스통신)

- 타스통신은 10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안톤 이뉴친 에너지부 차관을 대표로 한 방문단의 이틀 간 평양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전력 에너지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보도함.

-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이미 관련 협정 초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이뉴친 차관이 북측과 협의한 뒤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 전했으며,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지난 11월 말 게시된 초안에 따르면 협정은 러-북 양국이 전력 분야 기술 교류,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통신은 현재 러-북 양측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북한 나선시를 잇는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연해주 지역 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이 사업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유엔 식량기구, 엘니뇨 대응 지원국에 북한 포함"(12/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대상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복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보도하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엘니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16개국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밝힘.
- 방송은 북한과 몽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몽골에서는 식량농업기구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한에선 두 기구 모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방송은 식량농업기구가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 역시 올해 상반기 북한의 4개 도에 1천372ha에 달하는 산간 지역에 나무 700만여 그루를 심었다고 덧붙임.

'북한, 이스라엘서 40만 달러 규모 금 수입'(12/11, 미국의소리, 예루살렘 포스트)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40만 달러어치의 금을 수출했다고 11일 보도하였고, 이스라엘 관세청의 데이비드 후리 국장이 이스라엘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방송은 후리 국장이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 금이 수출됐고 이 사실이 적발돼 유엔에 설명을 해야 했는데, 2011년 이후에 북한으로 수출된 금은 없으며 이후 추가로 북한에 금을 수출하려던 시도는 차단했다"고 덧붙였음을 전함.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전국의 노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종업원 궐기모임, 각지 공장·기업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에서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12.8, 중앙방송)
- 자강도, 내년 산림 복구전투 준비사업(나무모 생산 계획 초과 수행 등)에 주력(12.8, 중앙방송)
- 장자강발전소 등(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평양객화차대·선교편직공장 등) 공장·기 업소 종업원들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 호소문 호응' 궐기모임 진행 소식 보도(12.9, 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인 '조선식의 라선식 뇌CT 설비' 개발(1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기관·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2,000여개(황해남도 80여개 등)의 과학기술 보급실 조성 및 일꾼들의 원격교육대학 강의 수강(12.9, 중앙통신)
-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 남새연구 성과(설란화 재배방법 과학화, 새로운 양배추 육성방법 등)" 선전(12.9, 중앙통신)
- 평양시 송배전부, 전력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12.9, 중앙방송)
- 제31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12.8~11) 폐막식, 12월 11일 국가과학원에서 진행(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러시아 '전력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12월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불가리아 '과학·교육 및 문화 분야 협조에 관한 계획서', 12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조인(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미래과학자거리 및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 참관(12.12, 중앙통 신·평양방송)
-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새로 건설 등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생산기지들 신설 및 개건' 선전(12.12,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 12월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3, 중앙통신)
- 평안북도 수산관리국 일꾼들과 어로공들, 연간 수산물 생산계획(126.4%)과 물고기 잡이 계획(104.6%)을 넘쳐 수행(12.13, 평양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외화벌이 회사, 무역와크(허가증) 장사로 돈방석"(12/8,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 국가기관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이 내년 무역 와크(허가증)를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에게 고율의 임대료를 받고 양도해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으며, 외화벌이 회사들이 연말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 임대료를 받고 무역 와크를 양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하여 8일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인민무력부, 당기관 소속 힘 있는 무역회사들은 와크 임대로 수 십년째 앉아서 달러벌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연말이 되면 김정은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 수수료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 와크를 돈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많아진다"며 "무역와크는 제도적인 것보다 뇌물을 많이 바쳐야 보다 많은 와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간부들은 연말마다 충성자금 바치기 경쟁을 벌인다"고 덧붙임.
- 특히 소식통은 "와크는 있지만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무역회사 같은 경우, 돈주들에게 와크를 넘겨주고 돈을 벌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고,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 타이어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의주 돈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타이어를 수입하기 위해 타이어 수입을 할 수 있는 외화벌이 회사에 임대비용을 주고 와크를 빌리고 있다"면서 "중국시장 타이어 한 짝에 200위안인데, 한 짝당 와크 임대비용이 11%로 약 25위안을 이 기업소에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서 '소년장수' 모바일 게임 인기(12/9, AP통신)

- AP 통신은 북한에서 만화 '소년장수'를 소재로 한 손전화용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보도하면서, 지난 9월 출시된 이 게임은 특히 여가를 즐길 시간과 돈이 있는 평양에서 즉각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내려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끼리 무선 연결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게임을 공유한다고 설명하였고, 소년장수 만화와 게임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인공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함.

●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연일 극찬…"한순간에 매혹"(12/10, 조선중앙통신; 12/11, 조선의오늘)**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생신하고 특색 있는 공연무대를 펼치는 모란봉 악단'이라는 기사에서 "모란봉 악단이 이번 중국방문 기간에도 예술단체의 생기발랄한 모습과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예술적 매력으로 중국 인민들을 끝없이 매혹시킬 것"이라고 보도함
- '조선의 오늘'도 11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유정 교원(교수)이 기고한 '모란봉악단의 개성적이고 특색있는 공연형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형식과 양상, 편성과 편곡 수법이 독특할 뿐 아니라 황홀하고 이채로운 조명효과와 배경 등도 기성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것이고 경이적인 것"이라며 선전함.

● **1천200여 개 질병 진단 앱 개발했다고?…북한, 의료성과 홍보(12/10, 조선의오늘; 12/11, 노동신문; 12/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위층들이 틈만 나면 외국에 나가 신병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는 1천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는 등 의료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1월 말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나노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가정용 의료진단 및 치료지원 애플리케이션 '명의원'이 널리 판매·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함.
- 이 제품에는 1천20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종합진단편, 30여 개의 주요 증상을 통해 350여 개의 질병을 예진해볼 수 있는 예진편, 3천여 개의 치료법을 제공한 치료법편 등이 들어있다고 통신은 전함.
- 노동신문도 11일 '옥류아동병원에서 다시 태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치료에 성공한 리위성 어린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평양 옥류아동병원의) 김향순, 한용원 동무를 비롯한 안과와 고려 치료과의 의료일꾼들이 망라된 유능한 의료집단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는 위성이의 눈 회복 치료에 기적 같은 성과를 안아왔다"고 보도함.
- 또한 '조선의 오늘'은 10일 7천여 종의 신약과 고려약들의 약리작용과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약물정보를 담은 임상약물정보 사이트 '약샘'을 개발했다고 선전함.

12.14-12.20

12월

3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北, “남조선, 북남대화 파탄 책임 못 벗어나”…또 책임 전가(12/15)
- 北, 당국회담에서 인권법 제정에 불만 표시(12/15)
- 남한 한미약품, 북한에 10억 원 규모 어린이 의약품 기증(12/16)
- 北, “2020년에 가면 100kt급 수소폭탄 배치” 가능성(12/17)
- 北, ‘이산가족-금강산 맞교환 부적절’ 홍용표 발언 비난(12/18)
- 北매체 “금강산관광 신변 보장, 이미 최고수준 약속” 주장(12/20)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외무성, 美대북제재 비난…“시대착오적 적대시 정책”(12/16)
- 중국, “북한의 ‘수소폭탄발언’ 뒤 모란봉악단 관람인사 급 대폭 낮췄다”(12/14)
- 北 외무성 당국자들 영국 의회 방문, 인권 등 논의(12/16)
- 주북한 중국대사관, ‘화교 100명 체포설’에 이례적 반박(12/17)
-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12/18)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노동당창건 70주년 연설원고에 ‘핵’ 넣었다가 삭제(12/16)
- 김 黨 제1비서, 김정일 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
- 김 黨 제1비서, 기계종합공장 시찰…“최고 수준” 극찬(12/20)
-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내년 5월초 개최 확인(12/16)
- 최룡해, 함남 덕성군 협동농장서 혁명화 교육”(12/15)

4. 경제

- 北, 25년 만에 재정은행대회…“재정 강화가 강성국가 필수”(12/14)
- 北, 50년 석유탐사 결국 실패…“中과 수역갈등·정치불안 탓”(12/14)
- 국제사회, 2015년 北 인도적 지원액 3천만 달러
- 세계식량계획(WFP), 2015년 1천800여 차례의 분배감시 활동…“北 협조적”
- 러시아, WFP 북한 영양식품 공급사업 300만 달러 추가 지원, “최대 지원국”
- 스위스, 최근 북한 사회기반시설에 10만 달러 재정지원
- 영국 구호단체 ′쉘터박스′, 나선 지역 수재민에 단열 천막 등 생필품 지원(38만 달러)

5. 사회

- 北, 영유아 사망 감소 추세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조선, 북남대화 파탄 책임 못 벗어나"…또 책임 전가(1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음모책동으로 북남당국회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더욱 암담해졌다"며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흩어진 가족·친척 문제를 해결하며 교류사업도 활성화 해나갈 것을 제기했으나 남측이 북남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를 잔뜩 들고나와 인위적 난관과 장애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남측이 '핵 문제'를 대화탁에 올려놓으려다 우리의 즉시적 된 타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서 "남측은 당국회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시시껄렁한 문제를 나열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우리는 회담 날짜를 연장해가면서까지 설득도 하고 아량도 보였지만 남측은 금강산관광재개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나자빠짐으로써 끝끝내 회담을 결렬로 몰아넣었다"고 덧붙임.

● **北, '이산가족-금강산 맞교환 부적절' 홍용표 발언 비난(12/1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8일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 이번 당국회담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저들의 대결적 자세를 계속 유지할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맞교환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국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횡설수설"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남(남북)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한 매우 절실한 문제이고 또 겨레의 의사와 요구인 것으로서 반대할 하등의 리유(이유)나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회담에서 이 현실 가능하고 쉬운 사업에 대해 한사코 반대해 나섰다"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당국에게는 애당초 회담 자체가 마음에 없었다"면서 "이전 정권도 해보지 못한 당국회담을 저들이 치렀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결적 흉심도 가리고 남조선 민심으로부터도 점수를 따보려 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홍용표 "北, 당국회담서 인권법 제정에 불만표시"(12/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11~12일 개성 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15일 보도함.
- 뉴스는 홍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특히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측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자들의 반응과 관련, "(북한측은) 인권문제니 이런 것들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을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조엘 위트 "북한, 2020년에 가면 100kt급 수소폭탄 배치"(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의 예측으로는 북한이 2020년께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7일 보도를 통해 전함.
- 100킬로톤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위력의 5배에 달하는 것이며, 통상 수소폭탄은 2단계로 구성되나 북한이 2020년께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폭탄은 그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1단계가 될 것이라고 위트 연구원이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위트 연구원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2020년께에는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 한다"며 "높은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 무기를 실험하려면 기존의 핵실험 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만일 북한이 더 큰 폭발력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굴착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수소폭탄 개발의) 단서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한미약품, 북한에 10억 원 규모 어린이의약품 기증(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한미약품이 어린이비타민(텐텐츄정), 종합감기약(써스펜시 리즈) 등 1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한미약품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인천항에서 물자 북송식을 치른 후 중국 다롄을 거쳐 해당 물품이 북한 현지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뉴스는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이 총 11개과로 구성된 43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문병원이라 소개했으며, 이번 지원과 관련하여 임종철 한미약품 자문위원은 "한미약품의 의약품 북송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나동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은 "이번 북송이 남북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을 전함.

● 北매체 "금강산관광 신변 보장, 이미 최고수준 약속" 주장(12/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고학철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묻는다'란 글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해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광지구의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간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남한 당국이) 왜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고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지 못했는가" 라고 지적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관계를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면서 민족의 운명을 팔아먹는 반역행위'라며 '외세의존과 체제대결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12.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추진에 대해 "북침공격태세를 완비하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한의 정치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한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수 없다'고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유엔의 '군축·비확산 회의(12.7·8, 서울)'에 대해 '우리(北)를 무장 해제시키고 체제통일,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反北 모의판'이며 유엔의 방관자적 자세도

'한반도 지역의 정세악화만 더해줄 뿐'이라고 비난(12.15,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軍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대응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등) 개최 관련 '백두산 혁명 강군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군사적 대결소동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전쟁 미치광이로서의 그들의 흉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해 주고 있다'고 비난(12.20,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외무성, 美대북제재 비난…"시대착오적 적대시 정책"(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이 우리의 무력, 군수, 무역기관들과 일꾼들, 지어(심지어) 외교관들까지 함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놀음에 계속 매달리는 데는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을 하여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의 거래를 꺼려하도록 함으로써 군수공업부문은 물론 민수분야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 전반을 질식시켜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제재소동은 오히려 우리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킬 뿐이며 결국 우리 군수공업의 국산화 비율만 높아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고, 북한이 앞서 평화협정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미국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만이 차례질 것"이라고 위협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백악관 "북한, 비핵화에 진정성 보여주면 모든 것이 가능"(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대니얼 크라이튼 브링크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it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고 밝힘.
- 또한, 크라이튼 브링크 보좌관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인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비핵화의 길을 걸어 내려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힘.

마. 대중국

"중국, '수소폭탄발언' 뒤 모란봉악단 관람인사 급 대폭 낮췄다"(12/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에서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뒤 중국 당국이 공연관람 인사를 당 정치국원(지도자급)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인사로 대폭 낮췄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처럼 중국이 공연참석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변경했다면 '격'을 3~4단계 정도 떨어트린 것이라고 설명함.
- 소식통은 "조선은 당초 중국에 시 주석이나 리 총리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한 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북한도 처음에 동의했으나 지난 10일 공연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덧붙임.
- 뉴스는 이에 "중국은 항의 표시로 (공연 관람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낮췄다"며 김 제1위원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불만을 제기하며 모란봉 악단을 전격 철수시켰다고 설명하였고, 모란봉악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부터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지켜본 한 소식통은 "취소 배경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서도 "악단들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 양측이 공연문제를 조율했는데 계속 잘 안됐다"고 전함.

주북한 중국대사관도 '화교 100명 체포설'에 이례적 반박(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보도를 통해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일부 매체들의 '북한당국의 화교 100명 체포설' 보도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함.
- 주북 중국대사관은 16일 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국가"라며 "조선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화교는 약 3천 명으로 주로 평양과 신의주, 청진 등지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조선을 여행하는 화교는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면서 조선 인민과 함께 조선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또한) 중조 간의 전통적 우의를 계승하고 일으키기 위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주북대사관은 특히 "조선을 여행하는 화교의 위법행위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른바 '간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의한) '화교 100명 체포설'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보도를 통해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고 전함.
-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이며,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뉴스는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반대는 3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19개국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포함됐다고 전함.

● 유엔 인권현장사무소장 "北 인권개선 위해 방북 고려"(12/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보도를 통해 사인 폴슨 유엔 인권현장사무소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폴슨 소장은 18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 사무소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을 방송은 전함.
- 이어 “북한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퇴치 등 일부 권고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자. 기타 국가

북한 외무성 당국자들 영국 의회 방문, 인권 등 논의(12/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보도를 통해 영국 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북정책협의회’의 공동 의장인 피요나 브루스 의원이 지난 10일 런던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만났다고 전하면서, 이 날 영국 의회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의 김선경 구주국장과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의 현학봉 대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함.
- 방송은 브루스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사항 가운데 어떤 권고들을 이행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북한의 김선경 국장은 북한 정부가 수용을 약속한 많은 UPR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전함.
- 이 밖에도 브루스 의원은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북한의 김 국장은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방송은 전함.

“영국 구호단체, 北수재민에 단열 천막 지원”(12/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보도를 통해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쉘터박스(Shelter Box)’는 나선 지역 수재민을 위한 특수 단열 텐트 500개와 난로, 담요, 전등, 물통 등 각종 생필품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다음주 2차 구호 지원 물품의 수송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함.
- 이번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38만 달러(한화 4억 4천여 만 원)로, 영국 정부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방송은 쉘터박스 측은 “직원 2명이 내년 1월 말 나선에 약 10일간 파견돼 올해 지원 물품이 수재민에게 정확히 분배되고 잘 이용되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日 법원의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혐의' 「총련」 의장 차남 등 유죄 판결 관련 '공화국의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공화국은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12.14,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제군사체육이사회 위원장(압둘하킴 모하메드 이싸 알샤누)과 일행, 12월 14일 귀국(12.14,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총기류 범죄·빈부격차·실업문제' 등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역사검증위원회' 출범은 "침략사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그를 밑거름으로 하여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12.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의 새 우주법(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 채택 본질은 "우주헌병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및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우주개발 권리행사' 강조(12.15,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안동춘 부의장), 12월 15일 캄보디아(아시아의회회의 제8차 총회 참석)에서 귀환(1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1기병사단 소속 1기병여단 병력(4,500여명) 南 순환배치 관련 '오직 북침전쟁의 길로만 내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주범, 평화의 원쑤'라고 비난(12.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이 평화협정체결 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고 황당한 주장들만 늘어놓으며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규탄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속히 응해 나올 것'을 재차 촉구(12.19, 중앙통신·노동신문)
- 윌리엄 페리 전 美국방장관 인터뷰내용(영변핵시설 공습계획 구상) 관련 '작전계획 5030'등 각종 한미 합동군사연습들을 거론 '미국은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를 노리며 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핵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주장(12.19,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노동당창건 70주년 연설원고에 '핵' 넣었다가 삭제"(12/16,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했던 연설의 원래 원고에는 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연설에서

는 빠졌다고 16일 보도함.

-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작성한 연설문 원안에 "미국의 공화국(북한) 압살 책동에 결사항전하고 공화국의 핵 주권을 굳게 지키겠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항 수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핵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으며, 원안에는 미사일 개발에 관한 언급도 포함된 데다 군사 행진에서 '핵 강국' 등의 구호를 등장시키는 것까지 검토됐다고 전함.

北 김정은, 김정일 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이번 참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양옆에 섰고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총정치국 조남진 조직부국장과 렴철성 선전부국장, 리용주 해군사령관,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도 참석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했으며, 이에 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4돌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함.

北 김정은, 기계종합공장 시찰…"최고 수준" 극찬(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 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확립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지도(시찰)하시였다"고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시찰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실시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면서 "이 공장 통합생산체계는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 부문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또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거뜬히 갖추어놓은 것은 물론 우리의 설계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수자조종공작기계와 공업용 로보트(로봇), 무인소재운반차, 자동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전변시켰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오늘이 있다"면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난다"며 과거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함께 이 공장을 찾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함.

- 이날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칠 기계 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北최룡해, 함남 덕성군 협동농장서 혁명화 교육"(12/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5일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룡해는 지난 11월 9일경 덕성군 장흥협동농장에 혁명화 조치를 받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룡해는 덕성군에서 주요 농업단위로 평가 받고 있는 장흥 협동농장에서 일반 농장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에 건설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백두산영웅청년발전 소) 공사부실 책임을 지고 덕성군 장흥리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함경남도 지역은 물론 멀리 양강도까지 최룡해 혁명화 조치 소문이 퍼져있다"고 전함.

북한, 케냐 대사에 명경철 임명(12/1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5일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에게 명경철 대사가 8일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보도하면서, 명 신임 대사가 케냐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함.
- 이에 방송은 케냐타 대통령이 사의를 표시하고 "케냐 정부와 인민은 조선의 북과 남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전 민족의 번영을 속히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북한 "노동당 제7차대회 내년 5월초 열린다"(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후 '세계적 수준으로 전변될 삼천메기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될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열리게 된다"고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北, 임현수 목사에 종신노역형…"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피고)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이 언도(선고)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면서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되였다"고 밝혔고, 이어 "심리과정에서 피소자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통신은 검사가 임 목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은 "그가 앞으로 통일된 조국, 부강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양정(양형)하여 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고 전했으며, 재판에는 각 계층 군중들과 북한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덧붙임.

"北, 4년간 김일성·김정일 기념탑 250개 건립"(12/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4년 동안 250개 이상의 김일성·김정일 기념탑을 세우고, 약 35개의 김정일 동상을 건립하는 등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올해 들어 나선시와 자강도 강계,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원산,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해 평양과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등 각 도의 행정 중심지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 건립이 추진됐고, 최근에는 김일성 정치대학과 평양시 룡성구역의 제2자연과학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동상 건립이 확인됐다고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특이사항 없음.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1권'(1968년 5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111건 저작 수록) 출판(12.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삼천메기공장 현지지도 및 "세계적인 메기공장으로 전변(양어의 주체화·과학화·집약화·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시킬 데 대한 과업" 지시(12.1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빛나라 단천제련소에 깃든 불멸의 자욱이여), 단천제련소에 건립(1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삼천메기공장'에서 제시한 과업(세계적 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 관련 '현대화공사를 黨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까지 끝내겠다'는 공장 노동계급의 각오와 함께 '2016년 5월초 黨 제7차 대회가 열린다'고 주장(12.16, 중앙통신)
-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강철의 청년 대오는 주체혁명 위업의 강위력한 추동력, 억척의 지지점'이라며 '불패의 청년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1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2권'(1969년 1월부터 7월까지 발표된 95건 저작 수록) 출판(12.20,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25년 만에 재정은행대회…"재정 강화가 강성국가 필수"(12/1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재정은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고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재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 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 "재정관리에서 국가의 통일 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개별적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기업체들의 재정관리와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고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재정은행사업 일꾼들은 인민이 벌어들인 귀중한 자금을 아껴쓰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빈틈없고 야무지게) 꾸려가는 인민의 충복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재정은행사업은 화폐 자금을 수단으로 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며 국가 경제기관과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을 규제하고 조절 통제하는 경제사업이라고 방송은 설명함.
- 방송은 이날 대회에 박봉주 내각 총리,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수용 노동당 비서, 로두철·리무영·리철만 내각 부총리, 기광호 재정상,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 김성의 무역은행 총재, 전국의 모범적인 재정은행일꾼과 공로자들이 참석했으며,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대회 보고를 하고 참석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하는 맹세문을 채택했다고 덧붙임.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50년 석유탐사 결국 실패…中과 수역갈등·정치불안 탓"(12/14, 38노스,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38노스의 북한 석유 및 가스 탐사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50년간 수차례 시도해 온 석유 탐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 석유 탐사의 실패 원인으로 중국과의 수역관할 갈등에 따른 현대식 채굴장비 부족과 정치불안을 꼽았으며, 우선 자원 확보에 공격적인 중국이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서한만 일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두고 북한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내세워 북한에 현대식 채굴 장비를 팔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국에 유리한 해양경계선 설정이라는 목표가 깔려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지난 2005년 북한과 서한만 분지의 원유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중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현재 6~7개 외국 정유업체가 북한과 석유 및 가스 탐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진척 여부는 외국업체의 원활한 채굴 비용 및 기술 제공과 북한 정부의 정치불안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북, 각종 공사로 산림훼손 심각(12/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해 나무심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종 건설을 구실로 해마다 파괴되는 산림면적이 새로 조성되는 산림면적의 배를 넘는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라는 구호를 내놓고 10년 안에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원상대로 복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복구는 고사하고 산림은 점점 더 파괴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덧붙임.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에서 산림이 가장 울창한 백암군만 해도 올해 '10월18일 종합농장' 확장공사와 '백두산청년발전소' 건설, '대택탄광' 공사로 광범한 지역의 산림을 훼손됐는데 라선시 큰물피해 복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대량 채벌까지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혜산-삼지연 사이 '백두산관광철도' 건설도 기존의 인원 3만 명에 추가로 농업근로자들 3만 명을 더 투입했는데, 이들이 공사 중인 구간엔 풀대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림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건축 건설을 위해 삼수군과 풍서군, 갑산군에서 각각 3백 입방씩의 통나무들을 건설용으로 베어냈는데 이런 산림훼손은 양강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단행됐다고 밝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성한 산림면적에 비해 국가적인 공사나 자재보장을 위해 훼손된 산림면적이 배가 넘을 것이고, 중앙에서 산림조성을 떠들지만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요원한 얘기"라고 강조함.

북 해외 주재원 연말 상납금 압박 시달려(12/1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요즘 남방에 파견된 한 해외 상사원은 상납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본국에서 소환령이 떨어질 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람은 충성자금 계획을 몇 달 미납한 상태인데 본국에서는 연말에 밀린 금액까지 다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소식통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무역일꾼들 가운데는 이처럼 계획 미달자들이 적지 않는데, 이들 가족들은 혹시 철수하라는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주재원들이 상납하는 목표액은 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연간 2만~5만 달러가량이며,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 기술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스위스, 북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원(12/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발표를 인용하여 스위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경제회복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분야에 미화 약 1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보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재정확인서비스(FTS)' 사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에 10만 3천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방송은 지난 6월 같은 분야에 약1만 2천500달러, 그리고 지난 2월 산간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0만 9천여 달러 등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기반시설'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약 22만4천 달러로, 스위스의 올해 대북지원 총액인 950만 달러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함.
- 이 밖에도 스위스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 5개 도의 농촌 지역에 수도관과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상하수도 지원 분야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유럽의 민간 연구소인 농업생명과학센터(CABI)에 약 16만 달러, 산간농법기술 지원에 약 110만 달러 등 농업 기술 분야에 126만여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북한 산간지역 주민의 형편 개선 및 산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방송은 덧붙임.

● "러시아, WFP 북한 영양식품 공급사업 최대 지원국"(12/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러시아가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강화 식품 공급 사업에 300만 달러(35억 4천여 만 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올해 이 사업의 최대 지원국이 됐다고 15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WFP의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지원한 400만 달러, 200만 달러와 합하면 러시아의 지원액은 총 900만 달러(106억 4천여 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였고, 국가별 지원 금액은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 593만 달러(70억 1천여 만 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390만 달러(46억 1천여 만 원), 호주 230만 달러(27억 2천여 만 원), 한국 200만 달러(23억 6천여 만 원), 캐나다 160만 달러(18억 9천여 만 원) 등이라고 덧붙임.

● WFP "북한 당국, 식량 분배감시에 매우 협조적"(12/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보도를 통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올 한 해 북한에서 1천800여 차례의 분배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이 식량 분배 과정에서 중간에 식량이 빼돌려지거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 분배감시 요원이 이 과정에서 식량이 중간에 빼돌려지지 않

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량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직접 주민들이 분배된 식량을 먹는 것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배감시 활동에 북한 당국이 매우 협조적이라고 덧붙임.

- 그러면서 대변인은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가능하며, 다수의 분배감시 요원이 북한에 상주하며 분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 (No Access- No Aid)" 즉,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직접 검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분배감시 활동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올해 국제사회 北 인도적 지원액 3천만 달러"(12/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이트를 인용 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이 3천만 달러로 지난해 2천 800만 달러보다 조금 많았지만 2012년의 1억 1천 300만 달러, 2013년의 6천 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도함.
- 그러면서 방송은 올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한 국가는 7개국으로, 스위스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한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순이라고 보도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열간압연공정 CNC화를 조선식으로 완성" 등 주요 생산공정 현대화공사 완공 및 '黨 중앙委 축하문' 전달 소식 보도(1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사리원 해운사업소, 200t급 자행선(자체 동력기관으로 움직이는 화물선) 새로 건조(12.16, 중앙방송)
– 北 경제전선, 黨 제7차 대회를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고 선전(12.16, 중앙통신)
– 청진시 포항지구, 관람실·율동오락실·전자오락실·전자사격장 등이 꾸려진 '입체 율동영화관' 신설(12.19,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김정은 극찬한 '창광상점' 상품 質 떨어져 파리날려"(12/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6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9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신축했다고 선전한 평양의 '창광상점'이 실제로는 중앙당(黨) 고위 간부들만을 위한 상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진열되는 상품은 북한 국내산으로 질이 떨어져 창광상점을 이용하는 간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당국은 이 상점을 가리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멋쟁이 상점'이라 선전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했을 뿐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며 "진열장에는 호감 끌만한 수입용품 대신 평양시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있어 마치 '국내 상품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설명하였고, "상점내부 넓은 공지 에는 청량음료(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만 몇몇 사람들만 눈에 띈다"면서 "창광상점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단층 외화상점에는 외국 상품들이 많아 발을 들여 놓기 어려울 정도로 간부들과 가족들이 찾는다"고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영유아 사망 감소 추세(12/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지부의 발표를 인용 하여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015년 1천 명당 26명(2.6%) 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특히 2015년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990년 당시 1천 명당 43명(4.3%)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함.
- 또한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북한 신생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4명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 올해 사망한 신생아는 총 5천명에 달하는 수준이고 이러한 신생아 사망은 출산 시와 출산 직후의 감염이 주원인이라고 함.

북한 "올해 국제대회서 금메달 90여 개 획득"(12/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이 올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90여 개를 포함해 약 250개에 달하는 메달을 따냈다고 전함.
- 통신은 이 가운데 북한 여자축구팀이 지난 8월 열린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안컵)에서 남한 대표팀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으며,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승하고 귀국한 북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직접 나가 마중했다고 덧붙임.
- 특히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개최한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 북한을 국가별 종합순위 1위에 올려놓았다고 통신은 설명함.

- 예술인들과 청년학생들·여맹원들의 회고음악회, 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강원도·함경남도 등 각지에서 진행(12.17, 중앙통신)
- 北 체육인들, 올해 국제 경기들에서 "90여개 금메달 포함 근 250개 메달" 획득 및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고 선전(12.18, 중앙통신)
- 로철수(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北 김치 담그기 풍습의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 등록(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 회의, 11.30-12.4 나미비아) 전언(12.18, 중앙통신)

12.21-12.27

12월

4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北 '南 인권백서' 발표…국제사회 '인권공세' 물타기(12/26)
- 北, '회담결렬' 책임전가 의도는…"대화재개 희망" 분석(12/21)
- 北, ICBM 설계 변경으로 2020년 이후에야 실전 배치될 것(12/22)
- 민간단체 통한 대북지원 규모, 작년 2배로 급증(12/23)
-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 분양가의 1.56%로 합의(12/24)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생물작용제 보유' 지적에 "터무니없는 모략" 반발(12/21)
- 北·日, 최근 한달간 중국서 납북자관련 3차례 비공식 협의"(12/21)
- 北, "임현수 목사 판결에 캐나다 시비" 반발(12/22)
- 北, 모란봉악단 철수 '사과' 특사 중국에 파견"(12/23)
- 北, DMZ 지뢰도발 "미국의 흉계로 北소행 둔갑" 억지(12/24)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북한군 기동훈련 참관…"실용적 훈련 많아야" 주문(12/24)
- 北, 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띄우기' 창작 주문(12/22)
-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생모에는 '침묵'(12/22)
- 北, 김정일 핵개발 업적 부각…최고사령관 추대 24주년(12/24)

4. 경제

- 北, 백두산3호발전소 완공시기 당대회 이전으로 앞당긴 듯
- 北 관광총국장, "비행기·스키관광 유럽 관광객에 호평"
- 독일 정부, 북한 재난감소사업 83만 달러 지원
- 유엔, 올해 북한 홍수 대응 10만 달러 지원
- "北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 명 이용" 추정

5. 사회

- 北, 오토바이 개인소유 금지 1년 4개월 만에 해제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南 인권백서' 발표…국제사회 '인권공세' 물타기(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은 26일 "올해에도 남조선에서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참혹한 인권유린 참사들이 연이어 빚어져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며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 조사통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협회는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재미동포 신은미 씨 등의 '종북 논란', 언론탄압,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한 시위진압, 메르스 사태 등을 올해 남한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례라고 주장함.
- 또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탈북 여성 김련희 씨 사례, 청년실업, 아동학대, 군대 내 폭행,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발언과 지난 6월 서울에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비난의 날을 세움.
- 협회는 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인권 모략 소동이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회담결렬' 책임전가 의도는…"대화재개 희망" 분석도(12/2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1일 '대결악습이 빚어낼 것은 북남관계 파국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당국회담의 결렬은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대결악습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과 남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협상, 관계개선 을 꼬물(아주 조금)만큼도 바라지 않았다"며 "그들에게 있어서 북남대화는 저들의 대결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도 21일 "이번 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에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려는 관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한 책임론을 제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ICBM 설계 변경으로 2020년 이후에야 실전 배치될 것"(12/22, 38노스)

- 38노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설계를 종전 3단체에서 2단체로 변경하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2020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과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8은 2012~2013년 공개한 것에 비해 짧고 단순하며, 탄두가 뭉툭하고, 기존 3단체에서 2단체로 변형됐다"며 "전반적인 미사일 성능은 대체로 그대로지만 (성능의) 신뢰도는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모델의 발사 성공률이 30~40%에 불과한 반면, 신형 모델에서는 성공률이 50~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이전 모델과 다른 뭉툭한 탄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데다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고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고 미사일방어체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고, "2012~ 2013년 공개된 이전 모델을 기준으로 KN-08 미사일의 사거리는 9천㎞로, 미국 서부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잡한 3단체 구조라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능하긴 어려워 보였다"며 "그러나 새로운 설계는 더 단순하고 신뢰도도 높아 더 믿을 만한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함.

● "北, 플루토늄 6㎏ 이하로 핵무기 1개 만들 수 있다"(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보도를 통해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이 플루토늄 6㎏ 이하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보통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는 플루토늄 6㎏ 정도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보다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의 판단이 수정된 것이라 설명함.
- 뉴스는 군과 정보당국이 최근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북한이 4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

식 자료를 아직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간 핵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지난 8월부터 영변 2원자로(5MWe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 확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공중·해상전력 취약한 北, '북한판 패트리엇' 개발 주력(12/2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군은 사거리 100여Km의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KN-06)을 개발 중이고, 함대함 미사일(KN-01)의 성능도 계속 개량 중"이라며 "올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가운데 KN-06과 SA계열, KN-01의 발사 횟수가 많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공중 및 해상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공중과 해안으로 접근하는 한미 연합군을 겁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은 연합공군 및 해군 전력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대공 및 함대함 미사일 개량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전투임무기 82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그-29, 미그-23 등 90여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형"이라며 "김정은이 이런 실정을 알고 대공전력운용부대의 훈련 미흡을 질책하고 전력보강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민간단체 통한 대북지원 규모, 작년 2배로 급증(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지난 1월 초부터 12월 17일까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 대북지원의 규모가 총 63건(112억 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54억 원)보다 107% 증가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세부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된 것이 40건(91억 5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것은 23건(20억 4천만 원)으로 주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영양식, 분유, 진료소자재, 묘목, 온실 자재 등이고 특히 농축산·산림·환경분야 지원액은 35억 원으로 전년도(2억 3천 만 원)의 15배로 나타났다고 전함.
- 그러면서 다만 유니세프(UNICEF)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2014년 141억 원에서 올해 107억 4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고 덧붙임.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 분양가의 1.56%로 합의(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요율이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결정됐다고 24일 보도하면서, 통일부의 발표를 인

용하여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 도총국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덧붙임.

- 뉴스는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정했으며, 개성 공단 1단계 330만㎡(100만 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천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고 하면서 최근까지 북측이 분양가의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하며 맞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양보해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이는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 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요율과 함께 양측 입장이 엇갈렸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남측 요구대로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된다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개성에서 南北여성 문화행사 열렸다…"동질성 회복 계기 되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 등 33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남북여성 공동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단체 대표와 회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23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에 참가한 후 당일 서울로 돌아왔다고 전함.
- 뉴스는 이번 행사에서 남측 대표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회장이, 북측 대표로는 김명숙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변규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리산옥 조선카톨릭교협회여성회 회장 이 나왔으며, 이후로 노래공연 및 오찬행사가 이어졌다고 덧붙임.
- 남북 여성 단체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장관 발언(이산가족-금강산 관광 맞교환 방식 바람직하지 않음, 꼭 지켜야 할 원칙 훼손할 수는 없음) 관련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北)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12.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委」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12.24),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한국 반입·실험은 "미국판 731부대"라고 비난 및 '남한의 비호두둔

도 준엄한 심판' 선동(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5년 남북 관계는 "대결이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남한의 反北 군사적 대결 망동이 계속 되는 속에서는 남북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책임 전가(12.24, 평양방송)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우리 남한의 메르스 발생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경찰의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 등을 거론하며 '보수 집권세력이 2015년에 저지른 인권유린 죄상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며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 발표(12.26, 중앙통신)
-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現 美행정부의 대외 및 인권정책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전 세계를 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평화파괴의 주범에 대한 단죄'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범죄적 흉계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12.26, 중앙통신)
- 日 경찰의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협의 총련 직원 3명 체포 관련 '일본 사회에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책동'이라며 '공화국은 일본 반동들의 反공화국, 反총련 도발행위들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2.26, 중앙통신·민주조선)
- 통일부 장관 발언(12.17. 관훈토론회,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수용 不可'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을 '6·15공동선언을 부정한 것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마련의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12.27,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생물작용제 보유' 지적에 "터무니없는 모략" 반발(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이 탄저균을 포함한 생물학 작용제 1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지적에 대해 21일 보도를 통해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발함.
- 신문은 '살인마들을 고발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사건'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이 '북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등을 보유'하고 '테러와 전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모략설을 내돌리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신문은 "이것은 있지도 않는 '북의 생물무기 위협'을 턱대고 저들의 탄저균 불법 반입 범죄를 정당화하며 유사시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악마의 세균을 마구 뿌려 북침 야망을 한사코 실현해 보려는 위험한 흉계의 발로"라고 주장함.

● 北, DMZ 지뢰도발 "미국의 흉계로 北소행 둔갑" 억지(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상보'를 통해 "8월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제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 미국은 그 도화선에 불을 달도록 남조선 군부를 내몰았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초기 비물류실(빗물유실)에 의한 지뢰폭발로 인정하였던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 헌병초소에서의 사고가 미국의 흉계 밑에 그 후 '북 소행'으로 둔갑하고 그를 구실로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이 전 전선에 걸쳐 재개되었다"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한, 모란봉악단 철수 '사과' 특사 중국에 파견"(12/23, 니혼게이자이)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월 초 있었던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특사를 최근 베이징(北京)에 보냈다고 23일 보도함.
- 신문은 나카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의 기명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이 아주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인사를 베이징에 보냈다"고 전했으며, "내년에 모란봉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기는 36년 만에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조선노동당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덧붙임.

바. 대일본

● "北·日, 최근 한달간 중국서 납북자관련 3차례 비공식 협의"(12/21,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3차례 걸쳐 중국에서 납치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고 21일 보도했으며,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 11월 중순과 하순 상하이(上海)에서 이달 중순 다롄(大連)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고 전함.
- 신문은 가나이 과장이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신문은 북측이 '일본이 말하는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이에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했다고 덧붙임.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CNN "캐나다 외교관,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면담"(12/22, CNN)

- CNN은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된 뒤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구호활동가 임현수 목사를 면담했다고 22일 보도함.
- 방송은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리 2명과 통역사 1명이 지난 18일 오전 평양에서 임 목사를 만났고, 임 목사의 건강이 양호했다고 전함.

● 북한 "임현수 목사 판결에 캐나다 시비" 반발(12/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 최고재판소의 종신노역형 판결을 캐나다 정부가 비판한 데 대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함.

- 이와 관련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기 공민이 저지른 악랄한 범죄행위로 우리 앞에 죄를 진 처지에 놓여 있는 캐나다 정부가 거꾸로 우리의 정정당당한 사법조치를 놓고 ‘우려’요 ‘국제법 위반’이요 하면서 시비질해 나서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반공화국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비호두둔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에게 삿대질하는데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캐나다 측의 부당하고 무례한 처사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영사 접촉을 불허했지만 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 특례적으로 캐나다 대표단을 초청해 재판에 방청으로 참가시키고 영사 접촉도 실현시켜줬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걸고들 아무런 법률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함.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韓美 합동실무단 운영결과발표(北 생물학 작용제 13종 보유 및 테러·전면전시 사용 가능 등)에 대해 “저들의 탄저균 불법반입 죄를 정당화하며 유사시 조선민족 머리위에 세균을 뿌려 북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흉계”라고 비난(12.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시리아 등 중동지역 불안정한 정세는 ‘무기장사로 제 잇속만 챙기며 저들 중심의 질서를 세우려는 미국의 침략야망 술책 때문’이라며 미국을 “세계 최대 무기장사꾼”이라고 비난(12.21, 중앙방송·노동신문)
– 미국의 ‘조선인민군 전략군’ 등 4개 단체와 北 외교관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관련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더욱더 횡포무도해지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北)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킬 뿐’이라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민간연구단체 전문가들의 발언(사드야말로 北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관련 ‘국제사회에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실행해 보려는 교활한 여론전’이라며 ‘미국이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획책할수록 미국과 우리(北) 주변나라들 사이의 모순과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생지옥, 인권말살 지대’라며 ‘미국은 주제 넘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그만두고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12.23, 중앙통 신·노동신문)
– 2015년 한반도 정세 관련 「중앙통신사 상보(12.24),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올해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전쟁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난 및 ‘北 병진노선 정당성 및 미국의 對北정책 철회’ 주장(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경기도 화성시가 캐나다 토론토에 건립한(11.18) 〈평화의 소녀상〉 은 ‘파쇼제국의 죄악을 기어이 청산하려는 세계 민심이 얼마나 준열한가를 깨우쳐주고 있다’고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비난(12.24,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합참의장, ‘차세대 국방어젠다’ 세미나(12.14)에서의 한반도 전쟁시 초(超) 지역

적 분쟁으로 확전 가능 원인으로 '北 탄도미사일 개발' 등 거론 관련 '평화파괴자의 감투를 씌워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12.25,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군 기동훈련 참관…"실용적 훈련 많이야" 주문(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제526대 연합부대와 제671대연합부대 간의 쌍방기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면서, 2개 기갑부대 간에 진행된 훈련에는 경보병(특수전)요원, 자주포, 방사포, 헬기 등이 동원됐으며, 훈련은 기갑부대가 차단물을 설치하고 방어부대가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방어와 공격이 나무랄데가 없다"면서 "오늘 훈련을 통하여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공격에로 이전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함.
- 또 김 제1위원장은 이어 "가장 치열하고 엄혹한 전쟁에 대처하자면 실용적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면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식훈련,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지 않는 훈련은 백번, 천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민 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전투력 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고 전함.
- 이날 훈련장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방관복 부총참모장, 제526대연합부대의 최두용 부대장과 윤희환 정치위원, 제671대연합부대의 강순남 부대장과 김정철 정치위원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코뿔소 뿔 밀매’ 北외교관, 남아공서 추방(12/23, 신화통신, 뉴스24)

-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추방됐다고 23일 보도하면서,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넬스 크그웨테 대변인을 인용해 지난 5월 체포된 박철준 참사가 지난 11일 남아공을 떠났다고 전함.
- 아프리카 현지 매체인 뉴스24는 남아공 정부가 지난달 박 참사에게 30일 안에 출국하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보도하였고,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국경 통과 시 검색을 받지 않는 특권을 악용해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코뿔소 뿔 밀매에 나선다고 덧붙임.

북한, 평북도당 책임비서에 김능오 임명(12/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종합편의시설)과 인민병원 개원식 소식을 전하며 “김능오 책임비서가 개원사를 했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北, 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띄우기’ 창작 주문(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명작폭포로 맞이하자’란 사설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문학예술 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 명작들을 꽝꽝 내놓음으로써 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명작폭포로 빛내이자”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과 당 정책결사

관철의 기풍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글폭탄, 노래폭탄, 춤폭탄으로 군인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추동해야 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와 불멸의 영도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기념비적 명작들을 창작하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 지침과 내용까지 소개함.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생모에는 '침묵'(12/2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김정숙의 생일(12월24일)을 앞둔 22일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라는 글에서 "김정숙 여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빛나는 귀감"이라며 "여사는 세월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 속에 영생하신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해 바치신 여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통일 애국의 길에서 길이 빛나고 있다"고 주장함.

北, 김정일 핵개발 업적 부각‥최고사령관 추대 24주년(12/24,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험산준령들을 다 넘으시며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자위적 군사력, 핵보검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조선의오늘'도 24일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구를 들었다놓으며 선군조선의 첫 핵뢰성(핵폭발음)이 울렸다"며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선군령장, 절세의 애국자"라고 치켜세움.
- 매체는 "100% 자체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한 지하핵시험에서의 완전한 성공, 이것은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인 대사변이였고 대경사였다"고 말했으며, "우리 장군님(김정일)께서 핵억제력을 마련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핵참화가 몇 번이고 휩쓸었을 것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북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정숙·김정일 '띄우기'(12/24,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노동신문은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역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란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혁명을 이끄신 역사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여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을 마련하신 성스러운 역사"라고 치켜세움.

- 그러면서 신문은 '민족단합을 위한 어머님의 자애로운 손길'이란 글을 통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는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김정숙을 찬양함.
- '조선의 오늘'도 '12월 24일이 전하는 뜻깊은 사연'이란 글에서 "오늘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리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탄생 98돌이 되는 날"이라고 밝힘.
- 매체는 "어버이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기를 그토록 열렬히 바라신 김정숙 여사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의미에서 여사의 탄생일을 택하시여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넘겨주신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12월 24일은 백두산 밀영의 소백수가에서 자제분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자고 다지시였던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 여사의 위대한 약속이 현실로 꽃펴난 뜻깊은 날이었다"고 주장함.

北 매체 '헌법절' 맞아 '김일성·김정일헌법' 선전(12/2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7일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란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발포(반포)하신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사설은 "사회주의 헌법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 수정 보충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정식화되었다"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나갈 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라고 치켜세움.
- 우리민족끼리도 27일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헌법' 이란 글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무기를 틀어쥐게 되었다"고 주장함.
- 민주조선도 사설에서 "헌법절은 인민을 위해 가장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 정치헌장이 태어난 뜻깊은 명절"이라고 소개했고, 조선중앙방송은 '오늘은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이란 보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인민 대중의 모든 꿈과 이상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정신적 무기"라고 자찬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보존관리에 기여한 양강도의 여러 단위들에

'감사' 전달(12.22, 중앙방송)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91.12.24) 24주년 즈음 '핵보유 등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 부각 칭송 및 全民은 '김정일 선군혁명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며 '김정은에 충성' 강조(12.24,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김정숙(김정은 祖母) 생일('17.12.24) 98주년 즈음 박영식·곽범기·김평해·김 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 및 당·무력·정권기관·내각 일꾼 등, 12월 24일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홍인철(국가관광 총국장), 올해 '북한에서 외국인(독일·영국 등) 관광(비행기·스키관 광 등)이 지난해에 비해 활성화 됐다'며 이는 '국가적인 관광장려 정책(입·출국 수속 간소화, 외국인 관광객들 요구 실현 등)의 결과'라고 선전(12.24, 중앙통신)
- 자강도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 및 학교에 '박금산(공화국 영웅) 반신상' 건립 제막식, 12월 24일 김재룡(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4일 故 리종옥(항일혁명 투사) 빈소에 화환 전달(12.25, 중앙방송)
-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표식비' 준공식, 사리원 돼지공장·금컵 체육인 종합식료 공장·인민 야외 빙상장·능라 인민체육공원 관리소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2015년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2015년 체육사업 정형 총화회의, 12월 25일 '리일환'(국가체육지도위 부위원장인 黨 부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6일 故 신병강(인민군 문예창작사 사장, 김일성상·김정일상 계관인, 노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빈소에 조화 전달(12.26, 중앙통신)
- '노동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당의 승리는 곧 인민의 승리'라며 '우리(北)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12.26, 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노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
- 北, '김일성 일화집' 제7권(1946년 1월부터 9월까지 김일성의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으로 편집) 출판(12.26,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8, 중앙방송)
- 「헌법절('72.12.27, 사회주의 헌법 채택)」 43주년 즈음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선전(12.2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백두산3호발전소 완공시기 당 대회 이전으로 앞당긴 듯(12/21, 평양타임스; 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평양타임스가 21일자 기사에서 "내년 당 대회 전에 발전소 건설을 끝내기 위해 북부지역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젊은 일꾼들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25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이 이 기사를 통해 이에 따라 수로터널의 콘크리트 코팅작업과 임시 배수시설 및 물막이 시설물에 대한 다지기 작업 등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배수로 굴착 작업은 84%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공사들도 동시에 진행 중임을 알렸다고 전함.

● 北선전매체 "'한의학 자료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12/2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북한 고려의학과학원이 고려의학(한의학) 고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구 보존하는 전자 문서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5일 보도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개발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고려치료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 내용을 전자 문서화함으로써 임의의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 및 열람하면서 치료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매체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려의학 고전들의 원문 내용을 영구 보존하게 되었으며 치료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의 조건에서 열람하면서 의료봉사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고려의학 전산화 프로그램이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덧붙임.

● "北 동해안 원양어업기지 완공 단계"(12/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 지난 10월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수산사업소가 거의 완공됐으며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고 밝힘.
- 위성사진에 포착된 수산사업소는 약 5만 5천㎡의 부지 위에 부두와 방파제, 수산물

냉동시설, 가공공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합숙시설과 문화회관 등도 들어섰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각 공장과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도 완공됐으며, 과거 86m에 불과했던 부두 길이도 최근 1㎞로 늘어났다고 방송은 전함.

다. 경제 상황

北선전매체 "평양에 천지개벽"…5대 신축건물 소개(12/21,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21일 "2015년, 조국에서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며 평양 시내의 5대 신축물들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함.
- 신문은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천지개벽 된 수도 평양'이라는 제목의 사진특집 코너에서 먼저 "조선 노동당의 과학중시 사상이 응축된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대동강반에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다"면서 지난달 초 준공한 미래과학자거리의 중앙통신 사진 2장을 게재함.
- 또한 신문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리모델링 준공식과 건물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 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졌다"고 치켜세우며 만수대의사당 주변에 조성된 만수대 분수화초공원의 야경 사진을 싣고 "평양시민의 새로운 문화 휴식터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지난 7월 준공식을 개최한 평양국제비행장(순안국제공항)의 로비 전경을 보여주면서 "조선의 관문, 나라의 얼굴답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선전함.
- 그러면서 한 번에 1천 2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를 선전하며 "수도 시민들이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보도를 통해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도 변하게 하는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 속에 평양과 지방도시들에는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들이 련이어(연이어) 일떠섰다(세워졌다)"고 자랑함.

"부실 기업소 北간부, 돈주에게 수천달러 받고 건물 임대"(12/2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돈주들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신설 기업은 시내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돈주들은 간부들에게 일정한 돈을 바치고 국가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임시로 빌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한다"면서 "과거에는 신규 부지를 승인받아 건물을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보다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을 임대받아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고, "국영 기업소 간부들이 개인 돈주에게

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 주는 움직임이 많아지자 각 지방 당 및 행정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당 및 행정 간부들은 이 같은 임대행위를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간부들은 임대를 대신해주는 거간꾼을 찾아가 임대 건물을 소개해주고 알선료까지 챙긴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때문에 국영공장기업소가 차지하는 건물 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면적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면서 "공장 간부(지배인, 당비서)들은 기업운영자금을 구실로 저마다 건물 빌려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힘.

북한, 고려술·가시오가피약 등 18개 품목 최우수품 선정(12/22,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2일 "201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 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을 수여했다"고 밝히면서 "과일빵, 사과단물, 고려술, 놋그릇, 가시오가피약"을 소개함.
- 방송에 따르면 '12월15일품질메달'은 북한에서 최우수 상품에 수여하는 품질 인증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되었고, 당시 대동강식료공장의 '평양주'가 최초로 이 메달을 수여한 이후 올해는 선흥식료공장에서 생산한 과일빵, 영양단묵(젤리), 종합영양강정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든 사과단물을 비롯해 모두 18가지 제품이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됨.
- 이어 방송은 대동강식료공장과 강계포도술공장의 고려술, 인풍술을 비롯해 강계 고려약가공공장의 가시오갈피엑스·삼지구엽초엑스 등 고려약들도 최우수 품에 선정되었으며, 함께 선정된 경질유리그릇과 신선로, 놋국수그릇, 놋밥 그릇, 놋수저에 대해서는 "질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명제품"이라고 찬사를 보냄.

北관광총국장 "비행기·스키관광 유럽 관광객에 호평"(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홍인철 국가관광총국 국장이 "올해 조선에서 관광 활동에 매우 불리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이 지난해에 비해 활성화됐고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세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홍 국장은 이에 "국가적 관광 장려 정책에 따라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시켜줬으며 다양한 관광 상품도 유럽 관광 시장에 내놓았다"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배경을 설명하고 "에볼라 비루스(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3월 중순부터 관광이 시작됐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나라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됐던 지난 8월에도 관광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비행기관광, 마라톤, 자전거, 스키, 낚시, 과일따기, 나무심기, 천막 및 등산관광 등 다양한 항목의 관광 일정들이 유럽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함.

북 농민, 쌀값 하락에 생활고(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가을철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농민들과 뙈기밭 농사에 의지해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통강냉이 1kg은 중국인민폐 1위안, 입쌀은 중국인민폐 3.5위안"이라며 "가을부터 내리기 시작한 식량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8월까지 통강냉이 kg당 중국인민폐 1.8위안, 입쌀 6위안이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눅은(싼) 가격인데 여기에 비하면 북한의 생필품들은 해산물을 제외하고는 값이 오르거나 그대로라고 설명함.
- 특히 소식통은 북한 북부 국경지역은 11월 27일 폭설이 내린 후 석탄 1톤에 중국인민폐 400위안, 땔감용 나무는 한 입방에 중국인민폐 150위안까지 올라갔다며 겨울철 한 가정에서 아무리 땔감 나무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3.5입방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땔감용 나무 3.5입방을 살려면 장사꾼들에게 넘기는 가격으로 입쌀 2백kg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생필품조차도 쌀을 팔아 구입해야 하는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를 위해 아까운 식량을 헐값으로 내다 팔고 있다"고 강조함.

라. 대외 경제 관계

러 전문가들, 북한 발전소 현장 실사(12/2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하며, 발전 분야 기술자인 이들이 동평양 화력발전소와 평양 남강 수력발전소 그리고 함경남도 금야 수력발전소 등을 직접 둘러봤다고 전함.
- 방송은 현재 논의중인 러시아의 대북 전력 생산공급을 위한 현장 실사 성격의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의 대북 발전설비 공급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북한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에 북한의 전력생산 현황과 전기공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함.
- 또한 이를 토대로 양 측은 기존 발전시설의 전기생산 능력 향상 방안과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기술자들이 현지 발전소 설비체계의 문제점에 관해 솔직히 털어놨다고 방송은 덧붙임.

독일 정부, 북한 재난감소사업 83만 달러 지원(12/2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독일 정부가 독일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 세계기아원조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83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이 자금을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재난 감소 사업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지 관리들을 교육하고 재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 지원금은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경사지에 나무를 심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농촌 지역에 관개수로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주며,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방송은 전함.

"북중 합작 트럭 조립회사, 연간 2만대 이상 조립"(12/22, NK뉴스)

- NK뉴스는 북한의 무역잡지 '북한의 대외무역'(Foreign Trade of DPRKorea) 최근호를 인용해 "금평자동차는 트럭 조립라인과 부품용 대형창고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에서 트럭을 연간 2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 잡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금평자동차의 생산량은 남북이 합작해 남포에 만든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함.
- 뉴스는 평화자동차의 한 해 생산량이 1천 600여 대인데, 금평자동차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기보다 중국에서 차체와 부품만 가져다 단순 조립하는 회사로 보인다고 덧붙임.

"유엔, 올해 북한 홍수 대응 10만 달러 지원"(12/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국제적십자사(IFRC)의 발표를 인용하여 유엔이 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해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가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식량 농업기구(FAO)등 5개 유엔 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호소해 모금된 금액을 북한 수재민에 지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으며, 수재민 1만 1천여 명에게 고열량 영양 비스킷과 보건의료세트,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에 학용품,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하고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함.

"北, 에스토니아서 고급가구용 원목 수입"(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이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로부터 원목을 수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에스토니아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국가별 교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에스토니아로부터 수입한 전나무 원목은 지난 10월 기준 3만 8천 336유로(약 5천만 원)였다고 덧붙임.
- 방송은 북한이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에도 11만 1천 407유로 어치의 전나무

원목을 수입했는데, 2006년 에스토니아로부터 3만6천833유로 규모의 종이와 판지 등을 수입한 적이 있지만 원목 수입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힘.

● "러시아, 북한에 사료용 건초 첫 수출"(12/25, 스푸트니크 방송)

-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에 사료용 건초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25일 자국 관세청과 화물운송회사 IS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 회사가 "지난 11월 극동 철도를 통해 528t 가량의 연해주 건초를 북한으로 운송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방송은 이 화물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시 시비리체보역에서 출발하여 북러 접경지역 철도역인 하산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설명함.

– 2015년에 "전국적인 발명 건수가 지난해 대비 111% 이상 증가" 선전(12.24, 중앙방송)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12월 25일 '로두철'(국가체육지도위 부위원장인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12.25, 중앙통신)
– 원산청년발전소, 연간 전력생산 계획을 113% 초과 완수(12.25, 중앙방송)
–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과 인민병원 개원식, 12월 25일 김능오(평안북도당 책임비서, 개원사)·장준상(보건성 부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26, 중앙방송)
– 양강도 대홍단군, 2015년 감자 생산 계획 129% 초과 달성(12.26, 중앙방송)
– 중앙공업부문 115%·지방공업부문 110% 등 올해 식료일용공업부문 연간 인민경제 계획 초과 수행(12.2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매체 "세·네쌍둥이 출생은 나라의 경사"(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올해 평양산원에서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 출생'이란 글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의 출생이 한 가정의 기쁨으로, 온 나라의 경사로 되고 있다"며 평양산원의 세·네쌍둥이 출산 소식을 보도함.
- 신문은 "지난 1월 16일 남포시의 김혜경 여성이 올해의 첫 세쌍둥이를 낳은 것으로부터 평양산원에서는 김형권군의 세쌍둥이와 개천시의 세쌍둥이, 강계시의 세쌍둥이 등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1쌍의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소개하면서, 지난달 3일 함경북도 청진시에 사는 리봄향 여성이 낳은 네쌍둥이까지 합하면 올해 12쌍의 세쌍둥

이, 네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전함.

- 이어 신문은 이들 쌍둥이를 낳은 산모와 아기들을 평양산원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산모들은 한 달 동안 평양산원에서 보약을 써가며 건강관리를 보장받고 아기들은 몸무게가 4㎏이 될 때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준다. 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평양산원에는 현재 황해북도 중화군과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온 2명의 여성이 세쌍둥이 임신으로 확인돼 입원,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北합법시장 400개 넘어"(12/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여,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올해(북한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합법적 시장의 확대"라며 "합법적 공식 시장의 수가 400개가 넘는다"고 보도함.
-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으로 본 김정은 시대 특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나선시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확장한 시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함.
-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걸쳐 물놀이장과 영화관 같은 유흥·오락 시설이 많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스케이트 공원은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이 새로 생겼고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6개 이상 초호화 현대식 시설의 애육원과 보육원이 건설된 상황임.

정보당국 "北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 명 이용"(12/27, 연합뉴스)

- 북한에서 장마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100만~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27일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총 306곳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평안남도 37곳, 함경남도 36곳, 평안북도 34곳, 황해남도 33곳, 황해북도 32곳, 함경북도 28곳, 강원도 26곳, 자강도 24곳, 평양직할시 23곳, 양강도 18곳, 남포특별시 10곳, 나선특별시 5곳 등의 순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정보당국은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때 장마당을 폐쇄했다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2개월 만에 재허용했다"고 설명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처형까지 해도 北주민, 南드라마 시청 막을 수 없어"(12/2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올해는 한국 드라마를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 시청 중 적발되는 경우에도 총살까지 한다는 국가안전보위부 엄포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남한 드라마 시청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단순 흥미로 한국드라마를 보았다면 지금은 드라마 속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하며 평가하기도 한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보위부 간부들도 남한 드라마 시청을 보호해주거나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아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들도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남한을 동경하거나 통제가 심한 북한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면서 "물론 이러한 불만이 체제를 뒤엎을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뿐 아니라 간부들도 체제에 대한 반감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문화가 이미 오래전에 형성 돼 있어서 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단속과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드라마가 주는 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드라마 시청을 막을 수 없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오토바이 개인소유 금지 1년4개월만에 해제"(12/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지난해 7월 금지했던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를 지난달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한 소식통은 RFA에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를 금지했던 북한 당국이 11월 초부터 인민보안부를 통해 소유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민이 오토바이를 살 때 상당한 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면서 "인민보안부 산하 군인상점들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이전의 시장가격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군인상점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상당수는 겉으로는 우리나라(북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산에 평양의 '보통강'이란 상표만 갖다 붙인 것"이라고 덧붙임.

북한 "올해 역기·사격 등 국내 신기록 19개 수립"(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월)와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 대회(6월), 공화국선수권대회(9~11월)에서 19개의 공화국 새 기록이 수립됐다"고 보도함.
- 신기록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역기로, 남자 85㎏급 인상·용상·종합, 여자 48㎏급 용상·인상, 여자 75㎏ 이상급 인상 등의 종목에서 종전 북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남자 94㎏급 경기에 출전한 리준 선수가 4월 용상에 이어 11월 인상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지만 새 기록이 정확히 몇 ㎏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 50m 소총 3자세 여자 개인 및 단체, 50m 러닝타겟 혼합 남자 단체, 클레이 스키트 등의 종목에서 신기록이 나왔으며, 수영(여자 4X100m 혼합계영, 50m 배영), 육상(해머던지기),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종전 기록을 경신하는 새 기록을 수립했다고 덧붙임.

북 어민들 마약중독 심각(12/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난 사고는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있다"며 "어민들에게 있어서 마약은 술보다 보관이 간편한데다 효과와 지속성도 더 강해 조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일어난 잦은 해상사고가 이러한 마약중독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보도함.
- 이어 방송은 해상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2010년부터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대체 수단으로 마약을 찾게 되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예전에 어민들은 하루 어로활동을 위해 한 사람당 보통 여름철에 40%짜리 술 한 병, 추운 겨울철에는 술 세병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필로폰이 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필로폰은 한번 흡입하면 24시간 효력이 지속되는데 주변 상항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은 조난을 당하기 쉽다고 덧붙임.

北매체 "선수 28명 내년 하계올림픽 출전 자격 획득"(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올림픽참가를 위한 올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조선선수 28명이 입장권 획득'이란 글에서 "11월 말 현재 조선 선수들 속에서 28명이 (내년 하계)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힘.
- 통신은 최근 3개월간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기계체조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서 10여 명이 올림픽 '입장권'(출전권)을 획득했으며 내년에도 유도, 권투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였고, 특히 아시아 강팀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축구팀과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23살 미만 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한

남자축구팀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통신은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북한 선수들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를 포함해 모두 47개의 메달을 땄다"면서 이들 가운데 김일(레슬링)이 금메달 2개 (1992년, 1996년), 계순희(유도)가 금메달(1996년)과 동메달(2000년), 은메달(2004년)을 각각 획득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임.

북한, 올해 10대 최우수선수 선정 발표(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에서 올해 체육사업정형총화회의 진행'이란 글에서 "올해 체육사업정형총화회의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는 2015년 조선(북한)의 10대 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 선수들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10대 최우수 선수는 엄윤철·리성금·김명혁·림정심· 최효심(역도), 라은심·리명국(축구), 김국향(수영), 리세광(기계체조), 윤원철(레슬링) 등임.

북한, 국가표창 수여식…김일성 훈장에 차종범·김복남(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한 해 공을 세운 과학자와 노동자, 군인들에게 표창을 주는 2015년 국가표창 수여식을 25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일성 훈장은 차종범·김복남, 김정일 훈장은 최용,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국기훈장 제1급은 리천수·양문상 등 10명에게 수여됐다고 통신은 전함.
- 김일성상은 김영희, 김정일상은 최성천, 김일성의 이름이 적힌 시계표창은 조석철·오철시 등 14명, 김정은 표창장은 김문철·김천웅 등 23명 등에게 주어짐.
- 북한은 또 국기훈장 제1급은 오수남·리상섭·리인철 등 54명, 국기훈장 제2급은 25명에게 수여함.
- 이날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11월말 현재 北 선수 28명의 '제31회 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 및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포함 47개 메달 획득' 선전(12.24, 중앙통신)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 12월 24일 횃불 남자팀과 4.25여자팀이 우승한 가운데 종료(12.26, 중앙통신)
- 조선축구협회, 2015년 최우수 남·여 축구선수로 리명국(평양체육단)과 라은심(압록강체육단) 선정(12.26,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

12.28-12.31

12월

5주차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조선총련,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굴욕적 합의” 비난(12/29)

2. 핵문제 및 외교
   - 中, 北 김양건 사망에 조의 표명…동지로 호칭(12/30)
   - 北, 김일성 일가 선전 ‘평양센터’ 러시아에 개관

3. 대내 정치
   - 김 黨 제1비서, 김양건 비서 장의위원회 위원장 맡아(12/30)
   -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12/29)
   - 北 김양건 장례식, 국장으로 열려…최룡해는 불참(12/31)
   - 北, 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 보고대회(12/29)

4. 경제
   - 北, 방송 “올해 10만정보에 수억그루 나무 심어”
   - 중 지린성, 북중경제합작구 신설
   - 북한 신의주 관광단지 개장, 중국인 무비자 방문

5. 사회
   - 北, 국경통제 강화로 주민 원성 높아
   - 北 어민·군 외화벌이 어업에 혈안…무리한 조업에 조난 빈발
   - 북한, 미세먼지 피해 심각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조선총련 산하 평통협 "굴욕적 합의" 비난(12/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가 "굴욕적인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29일 리동제 협회장의 담화문을 내고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는 성노예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으며 일본 정부가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리 협회장이 "남조선 당국은 일본 집권자의 국가적인 책임도 법적 책임도 밝히지 않는 사죄니 반성이니 하는 말을 받아들여 성노예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으니 이처럼 굴욕적인 대일 외교가 또 오데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38노스 "북한, 풍계리 새로운 핵실험 터널 굴착 계속"(12/30, 38노스)

- 38노스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핵실험 터널을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자로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새로운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보도함.
- 38노스는 굴착 중인 새로운 터널의 입구 위에 떨어지는 잔해들을 막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고, 터널을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도록 되어있는 광산 수레 궤도가 관찰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콘크리트장벽은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南 군부독재자들이 감행한 매국 배족적 행위의 산물이라며 '진정 남북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장벽해체의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1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와대의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부분개각 관련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자치하고 재집권 야망을 이루어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고위 인물들을 바꾼다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서 변화가 있을리 만무하다'고 비난(12.29,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매체, 중국에 우회적 불만 표출…"전쟁 위기에 중립지켜"(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그 누구도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 남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조국 앞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올 때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신문은 이어 "일부 유관국들은 우리와 적대세력에게 냉정성과 자제력을 구하면서 중립을 지켰다"고 말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중-러, 새해맞이 행사 공동개최 예정(12/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훈춘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북한 두만강시와 중국 훈춘시, 그리고 러시아 하산시가 내년 1월1일 두만강변에서 2016년 새해맞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보도함.
- 훈춘시는 두만강변에 인접한 북중러 3국 도시가 함께 일출을 보면서 각종 문예공연도 감상할 수 있도록 새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고, 또한 3국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지역과 시간을 나누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임.

● 中, 北 김양건 사망에 조의 표명…동지로 호칭(12/30, 연합뉴스, 신화통신)

- 연합뉴스는 중국 정부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명했다고 30일 보도하면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김양건 동지의 불행한 서거(逝世·서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루 대변인이 “김양건 동지는 중조(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고 특별히 중조 양당의 고위층 교류·왕래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루 대변인이 애도 메시지를 표명하면서 김 비서를 ‘동지’로 수차례 호칭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신화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비서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전우에 속한다”며 그의 사망 소식과 생전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北, 김일성 일가 선전 '평양센터' 러시아에 개관(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 24일 평양쎈터(평양센터)가 로씨야(러시아)의 아무르주 과학 도서관에서 개관됐다"면서 "개관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선군조선 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돼 있었다"고 보도함.
- 북한 당국이 평양센터를 해외에 개소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4주년(12월 24일)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12월 30일)을 계기로 러시아 아무르주에 평양센터를 열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관련 '조선반도를 죽음의 세균전 폐허지대로 만들어보려는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국제 전범자재판정에 스스로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주한미군의 탄저균 15번 실험과 페스트균 반입 관련 '우리(北)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미제의 범죄적 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제 전범재판정에 상정되어야 하며 미국은 마땅히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29, 중앙통신·민주조선)
- 前) 美공군 무인기 조종사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항의편지(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사람들을 살해한 데 대해)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이 편지는 부정의를 정의라고 광고하면서 그 막뒤에서 온갖 인권 유린행위를 다 저지르고 있는 미국을 폭로·규탄한 양심선언'이라고 비난(12.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 △최신군사기술 획득·신형 무장장비 개발('SM-3 블로크 2A' 시험발사 등) 구입' 책동은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경종(12.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현재 32개의 싸이버 전문부대를 41개로 확대 결정' AP통신 등 외신보도 인용, 이는 "미국이 싸이버 공간까지 장악하여 세계제패 야망실현에 써먹으려는 것"이라고 주장(12.30,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노동당 중앙委, 12월 30일 콩고 노동당 중앙委 앞으로 '콩고 노동당 창건 46주년' 축전(12.3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31일 '쿠바 혁명승리' 57돌 즈음 同國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쓰'에게 축전 및 駐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31, 중앙통 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수산부문 공로자에 표창장 수여(1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12월2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가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여식에 앞서 "불리한 어황 및 일기조건 속에서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사계절 바다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고기잡이 전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했다"고 참가자들을 치하했으며, 참가자들을 '당 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라고 높이 평가함.
- 그러면서 "수산 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최전선"이라며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당 중앙의 의도"라고 말하였고, 연설을 마친 후 수산부문 공로자들에게 직접 표창했다고 통신은 전함.

北 '항일혁명투사' 리영옥 사망…김정은, 빈소에 조화 보내(12/2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일혁명투사' 리영옥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29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일혁명투사 리영옥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지난 2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전하였으나, 리영옥의 사망 일자와 주요 경력, 항일 활동 상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北, 김양건 사망에 추모 분위기…김정은 장의위원장 맡아(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지난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서 30일 아침 김 비서의 장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명단을 알리며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김양건 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장의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맡는다고 전함.

北 김정은, 김양건 조문…"영원히 잊지 않을 것"(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김양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 12월30일 고인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김양건 동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충실한 방조자, 친근한 전우였다고 말했다"면서 "싸늘하게 식은 혁명 동지의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하셨다"고 전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또 "금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김양건이)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다"면서 "함께 손잡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간다는 말도 없이 야속하게 떠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따뜻이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 허비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조문에는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조연준이 동행하였으며, 앞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던 최룡해는 동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김정은 외교 브레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104(2015)년 12월29일 6시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양건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밝혔으며, 이

어 "김양건 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전함.

- 그러면서 김 비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평가하였고,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고 강조함.

北김양건 장례식, 국장으로 열려…최룡해는 불참(12/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31일 김양건의 장례식이 열린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인 김양건 동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함.
- 방송은 장례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당·정·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밝히며, 지난 11월 초 지방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는 김양건 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됐으나 이날 장례식에는 불참했다고 설명함.

다. 공식 행사

북한, 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 보고대회(12/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북한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12월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보고에서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체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날 행사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8, 중앙방송)
- 軍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8일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당 중앙위 회의실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4돌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12월 28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2.28, 중앙통신)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12월 29일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성문화회관에서 진행
- '올해에 우리(北)가 미제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책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은 것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 막강한 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선의 힘은 김정은'이라고 주장(12.29,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 요해(12.29, 중앙통신)
- 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12월 29일 황병서(연설)·박영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목란관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홍성철(육해운성 국장) 등에게 '감사' 전달(12.30, 중앙방송)
- '올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 70돌과 당 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 일심단결의 대축전으로 빛내었다'며 '원수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강화되고 그 견인력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된 뜻깊은 해'라고 주장(12.31,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1월 1일 0시 축포발사(평양 김일성광장 앞 대동강반) 실황중계 예고(12.31, 중앙방송·평양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혁명성지’ 삼지연군 확 달라졌다…리모델링에 공장신축(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량강도 삼지연군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했으며 준공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준공식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상원 량강도 당위원회 책임 비서, 리성국 량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군문화회관,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 숙영소 숙영각들(숙소들), 백두산지구 체육촌, 베개봉국수집 등으로 알려졌고 군 경기장과 피복 공장, 버섯 공장도 삼지연군에 새로 들어섬.

● 북한 방송 “올해 10만정보에 수억그루 나무 심어”(12/3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1일 “전국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 한 해 동안 줄기찬 투쟁을 벌여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며 “애국적 헌신성에 의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에 수억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모 생산계획을 100%로 넘쳐 수행했다”면서 “평안남도 평원군, 평안북도 태천군, 함경남도 단천시, 남포시 천리마구역에서도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대학생, 빵이 든 주머니 들고 장마당 가는 이유(12/2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9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요즘 장마당에서는 혜산농림대학 마크(배지)를 단 대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식빵이 든 주머니가 들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방학을 맞아 집에 갈 때 이용할 기차나 서비차 비용을 마련하려고 빵을 팔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평상시 학생들은 대학에서 매일 공급받는 빵을 먹거나 장마당에서 담배로 바꿔 먹기도 했는데, 방학을 앞둔 최근에는 대부분 배급된 빵을 팔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일반 주민에게 개당 천원에 팔리는 빵은 넘겨주면 800원을 받는데 한 달 분량을 팔면 2만 5천원을 모을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빵은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식사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일부 장사꾼들은 장마당 입구에서 대학생들을 보면 다짜고짜 매대로 데리고 가 싼 가격에 넘겨받기도 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배급된 빵을 먹지 않고 장마당에 내다 팔아, 볼펜, 노트 학용품을 비롯해 생필품을 구입하는 현실이라고 전함.

북한 택시는 특권층 전유물(12/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의 택시가 일부 간부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고급 운송수단이 되어, 택시사업소에 바쳐야 하는 월입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운전수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돈 많은 손님만 골라 태우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이어서 "택시운전수들은 매월 150달러의 지정금액을 사업소에 바쳐야 하는데 주행거리 1km당 요금은 중국 인민폐 3원으로 매우 비싼 편이지만 간부들과 장사꾼들은 왕복거리 40위안정도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어 택시 운전수의 돈벌이가 괜찮은 편"이라고 전했으며, 최근에는 택시운전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구입해 사업소에 등록하는데 대개 중국산승용차의 매입가격은 5만 위안 정도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 나선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간부들과 장사꾼들은 장거리를 운행할 때 시끄러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택시운전수들이 단속초소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고이고 있어 초소를 무사통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나선시를 오가는 길목에 있는 보위부10호초소 '후창초소'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지만 유독 택시들은 무사통과 시켜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중 지린성, 북중경제합작구 신설"(12/28, 길림일보,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압록강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이 자강도 만포시와 마주한 지안에 북중경제합작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8일 길림일보를 인용하여 보도함.
- 방송은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통관시설과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3.57 ㎢ 규모의 북중경제합작구가 지안시에 들어서게 되며, 지린성은 새 합작구 건설에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위안(약15억 달러)을 투입한다고 덧붙임.

- 또한 방송은 지린성이 합작구 건설과 함께 지안에서 평양을 잇는 고속철 건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창춘-퉁화-지안-평양을 잇는 약 800㎞ 구간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린성이 추정한 총 사업비는 415억 위안(약63억 달러)으로 고속철과 함께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된다고 밝힘.

국제사회 올해 대북 지원 4천 270만 달러...대부분 영양 지원(12/3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5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천 270만 달러($42,739,838)로 집계됐다고 3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천 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이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천 100만 달러로 집계했다고 전함.
- 방송은 2015년 한해동안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이며,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950만 달러를 지원한 스위스이고 두 번째는 900만 달러를 지원한 러시아라고 밝힘.

캐나다 구호단체, 北에 영양소가루 180만포 지원(12/3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캐나다 민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를 위해 미량영양소 가루 180만 포를 지원했다고 31일 보도함.
- 방송은 수전 리치 퍼스트 스텝스 대표가 "지난 12월26일 180만포의 미량 영양소를 북한에 보냈다"며 "(이를 포함해) 올해 메주콩 200t과 스프링클스 480만포 등 총 60만 캐나다 달러(5억여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힘.
- 또한 방송은 스프링클스라는 이름의 이 가루가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 등 성분이 함유돼 영유아 성장을 촉진하거나 임산부의 빈혈과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지원된 가루는 평안남도와 강원도 내 진료소를 통해 어린이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함.

북한 신의주 관광단지 개장...중국인 무비자 방문(12/29, 중국신문망,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29일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을 인용하여 신의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 관광단지가 문을 열었다고 보도함.
- 중국신문망은 신의주압록강 관광단지로 명명된 새 관광단지가 지난 20일 개장 행사를 가졌고 이에 북한과 중국 관광업계 등에서 300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으며, 신의주압록강 관광단지는 1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식당, 면세점, 공연장, 부두 등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 매체는 또한 '중국신문망'은 중국인들이 랴오닝성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이 관광단지로

갈 수 있으며, 당일 관광의 경우 입국사증 없이도 국경지대에서 북한 세관이 발급해 준 허가증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전함.

- 개성시, 8개의 양어 못을 건설하며 새 양어장건설 1단계 공사 완료(12.28, 중앙방송)
- 2015년 과수부문 사회주의 생산경쟁 총화 모임, 12월 29일 곽범기(당 비서)· 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혁명사적관 개관식, 12월 29일 현지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
- '사회주의 증산경쟁(黨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을 전국 공장과 기업소들에 선포하는 모임, 12월 30일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문화회관 에서 주영길(「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下 진행(12.30, 중앙통신)
- 강계 고려약 가공공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12월 29일 김재룡(자강도 黨 책임 비서) 등 참가下 진행(12.30,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새해 첫날 '0시 불꽃놀이' 오후 9시로 연기(12/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01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5분께 자막을 통해 "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21시부터 김일성광장앞 대동강변에서 축포발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알림으로써 원래 1월 1일 0시에 열기로 했던 새해 첫날 불꽃놀이 행사를 연기한다고 보도함.
- 이로써 북한은 새해 첫날 0시에 열려고 했던 불꽃놀이 행사를 갑자기 21시간이나 늦췄으나, 방송은 이러한 연기 사실을 자막으로만 알렸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북 국경통제 강화로 주민 원성 높아(12/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중 국경연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온 북한이 전례 없이 강력한 국경통제방안으로 처벌규정과 함께 철조망 공사에 당 자금까지 투입하고 있어 연선작업(국경지역의 불법활동)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최근 강연회를 통해 불법월경과 밀수를 근절할 데 대한 김정은 제1위 원장의 새로운 지시가 내렸다"고 전하면서, "강연회에서 발표 된 국경통제의 첫 번째 조치는 불법통화에 대한 처벌"이라며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불법통화가 확인되면 1분당 1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힘.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北어민·군 외화벌이 어업에 혈안…무리한 조업에 조난 많아"(12/28,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북한에서 1995년 이후 개인이 자비로 목조선을 마련해 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에 배를 등록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국에 사는 한 탈북 남성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이 남성은 좀처럼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군에 배를 등록해 어업을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군이 어업을 하는 이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며 많게는 연간 약 50만 달러(약 5억 8천 475만원)까지 목표가 설정된 배도 있다고 밝힘.
- 뉴스는 청진이 중국과 가까워 외화벌이하기 쉬운 까닭에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목조선은 약 2천척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7할이 군에 등록된 배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어민들은 출항 전에 라디오로 조선중앙방송 등의 일기예보를 들을 뿐 배에 라디오나 무선통신 설비가 없어 날씨가 급변할 때 조난당하기 쉽다고 지적함.

북한도 미세먼지 피해 심해(12/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며칠 동안씩 '황사'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올해 들어 더욱 심해졌다"며 "2천년 대 초까지는 일기예보 시간에 '황사' 경보를 전했는데 지금은 관련 정보를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워낙 어느 지역이나 흙먼지가 많아 여태껏 주민들은 '황사' 현상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지만,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과 의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황사'가 끼는 날이면 마스크를 쓰는 어린이나 여성들이 늘고 있어 장마당에서도 중국산 '황사' 마스크가 잘 팔리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이런 '황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가정들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공장기업소들에서 연료로 쓰이는 석탄으로 인해 '황사'(미세먼지)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고 우려함.

"北 동해서 무리한 조업으로 실종 어민만 150명 넘어"(12/31,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한 어민들의 고기잡이를 연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동해안에서 무리한 조업으로 실종된 주민만 15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업만 독려하고 있어 실종주민이 늘고 있다고 31일 보도함.
- 이에 소식통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낙지(오징어)철과 11,12월 도루묵철 사고분석에 따르면 실종자 대다수가 작은 목선(8~12마력 어선)승선자들이었다"면서 "침몰된 선박 대다수가 전문 선박공장에서 건조한 것이 아닌 개인 목수들이 어설프게 제작한 자그마한 전마선(傳馬船)들이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북한 동해 지역 주민들은 마땅한 벌이가 없기 때문에 6~10월의 낙지 (오징어)철과 11~12월 도루묵철이 되면 '물고기가 내 가족 먹여 살린다'며 물고기 잡이에 나섰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작은 목선을 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풍랑과 잦은 엔진고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북한 새해맞이 음식…떡국부터 메기탕까지(12/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수도의 급양봉사기지(대형식당)들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는 인민을 위한 명절봉사 준비로 흥성이고 있다"며 "내부와 외부를 보다 환하게 꾸려 명절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음식품평회와 시식회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먼저 '인민의 전통적인 설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옥류관·청류관·평양면옥의 꿩고기국수, 경흥관·동천호식당의 노루불고기, 금성거리온반집·약산식당·칠성각의 평양온반과 타조불고기를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소개했으며, 이어 "양력설 명절에 특색있는 음식 봉사는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에서 준비하는 보가지(복어)탕"이라며 "더 잘 만들어 봉사하기 위해 양력설명절을 앞두고 여러 차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함.

북, TV로 영화문헌학습 실시(12/3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앙에서 영화문헌학습을 개인집에 모여 텔레비죤을 통해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11월부터 지역회관이나 영화관 대신 인민반별로 개인집에 모여 진행된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지난시기 영화문헌학습은 대개 “5~6백명의 주민들이 모여 동단위로 진행되었다”며 학습일에는 조직별 인원장악이 엄격해 출석률은 높은 반면 공공장소의 잦은 정전으로 촛불을 켜고 진행하면서 학습시간은 주민들의 취침시간이 되어왔다고 설명했으며, “예전에는 조직별 통제 요원이 감시하고 있어 참여도가 높았지만 새로 도입된 학습방법은 한동네 주민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정을 봐주고 있어 학습에 빠진 인원이 많아도 전원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북 서민도 명절 준비로 바빠(12/3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소식통이 “지난 해 농사가 잘 돼 식량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과일이나 돼지고기 값은 더 올랐다”며 “‘때대끼(하루벌이)’로 버티는 집들에서도 떡방아를 찧는 소리가 들려 새해가 다가왔음이 실감 난다”고 전해왔음을 보도함.
- 소식통은 당국이 설 명절을 맞으며 군인들에게 공급한 물고기가 장마당에 대량으로 흘러들면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마당 해산물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값이 내렸다고 전하면서, 도리어 북한의 전기사정은 예년보다 더 못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한 또다른 소식통도 “3일간의 명절휴식을 주었지만 새해 첫 아침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조문행사와 ‘신년사’ 청취가 의무적”이라며 “새해 ‘첫전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휴식은 1월 2일 하루뿐”이라고 밝힘.

북한지역도 ‘겨울실종’…연초 평양 최고기온 9.2도(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일 오후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낮 제일 높은 기온이 5~12도로 날씨가 매우 푸근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특히 평양 9.2도, 신의주 6.1도, 평성 6.9도, 남포 9.3도, 사리원 11도, 해주 10도, 강계 5.1도, 함흥 11.2도, 원산 12.1도로 당일 제일 높은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전함.

– 北 역기협회, 2015년 최우수 男女 선수들 선정(12.31, 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11·12월

북한동향 일지

〈11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1.1, 중통·중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수용(외무상)·박봉주(내각총리),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위문 전문
11.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95회 생일 맞은 김철만(항일혁명투사)에게 생일상 전달
11.3, 중통·중방	北, 박봉주(내각총리), 박영식(인민무력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진행
1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리영길(인민군 총참모장) 등과 함께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
11.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 및 연설
11.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포시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기여자들에게 감사 전달
11.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당 창건 70주년 축전에 대해 쿠바·중국·라오스에 답전
11.8, 중통·중방	리을설(인민군 원수), 94세 일기로 사망
11.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고 리을설 빈소 조문 및 조화 전달
11.12, 중통·중방	고 리을설 장례식,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11.1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과업수행에 헌신한 축전경흥상점 일꾼·근로자에 감사
11.1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양건(당 중앙위 비서)·오수용(당 비서)·조용원(당 부부장)과 새로 완공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지지도
11.17, 중통	北-러, 형사사건 상호협력조약 및 범죄 인도조약 체결
11.1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현지지도
11.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 시운전 참관
11.2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1.21, 중통·중방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김일성정치대학에서 진행
11.2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11.21, 중통·중방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평양체육관에서 개막
11.2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25일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11.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11.2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관하 15호수산사업소 현지지도
11.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구두공장 현지지도

〈12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2.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
12.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라오스 창건 40주년 기념으로 라오스 대통령에게 축전
12.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황병서(軍 총정치국장)·오수용(당 비서)·조용원(당 부부장)과 조선인민군122호 양묘장 현지지도
12.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참석
12.9, 중통	北 공훈국가합창단·모란봉악단, 중국 친선방문 공연차 평양 출발
12.9, 중통·중방	리수용(외무상), 유엔 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의에서 연설
12.10,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 현지지도
12.10,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12.11～12. 중통·중방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으나 결렬
12.12,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9일 메기공장 현지지도
12.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한" 일꾼-근로자들 에게「감사」 전달
12.14, 중통	北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1권 출판
12.16, 중통·중방	北,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 언도
12.1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삼천메기공장 현지지도 및 세계적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과업 지시
12.1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사망 4주기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12.1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영덕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
12.20,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12.20, 중통	北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2권 출판
12.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보존관리에 기여한 양강도의 여러 단위들에 감사 전달
12.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671대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참관
12.2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4일 항일혁명 투사 故 리종옥 빈소에 화환 전달
12.25. 중통	2015년 국가표창 수여식,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12.26.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故 신병강 빈소에 화환 전달
12.2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2.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참가

보도일자	내용
12.29. 중통·중방	김양건(당 중앙위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 김정은(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박영식, 리영길,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임철웅, 김덕훈,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영대, 류미영, 리일환, 리만건, 김만성,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홍인범, 김경옥, 최휘, 리병철, 김용수, 전일춘, 정명학, 김히택, 전경남, 서홍찬, 노광철, 림광일, 조남진, 렴철성, 조경철, 윤동현, 김형룡, 김영철, 오금철, 태종수, 김수길, 박태성, 김능오, 전승훈, 박영호, 박태덕, 김재룡, 박정남, 리상원, 강양모, 림경만, 김완수, 원동연, 리종혁, 김진국, 박진식(위원)
12.29. 중통·중방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12.29.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 요해
12.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항일혁명투사 고(故) 리영옥 빈소에 화환 전달
12.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故 김양건 영구(靈柩) 조문
12.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홍성철 등에게 감사 전달
12.31. 중방	故 김양건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12.3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쿠바 혁명승리’ 57돌 즈음 라울 카스트로에게 축전 및 주북 쿠바대사관에 화환 전달